



봄
2024

통권 제4호

이번호 주제: 개성(開城) 특별시

신해방지구 접경도시 개성의 발전과 공간구조

개성시 공간구조와 공간격차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의 문화유산

만남과 교류의 장,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성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남북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친해졌나?

개성의 교회를 찾아서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와 윤치호의 모범촌 구상

소망의 언덕에서(개성공업지구와 개성협력병원)

박완서의 소설 『미망』에 나타나는 개성의 로컬리티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4 봄 통권 제4호

이번호 주제 : 개성(開城) 특별시



22

02 권두언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개성지역 교회의 신앙적 유산



28

08 신해방지구 접경도시 개성의 발전과 공간구조

22 이시호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개성시 공간구조와 공간격차

28 박성진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의 문화유산



37

37 백일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만남과 교류의 장,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성



43

43 김유연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원)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남북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친해졌나?

51 개성의 교회를 찾아서



Cover Story

개성 남대문에서 바라본 자남산.
자남산은 개성 시내 중심에 있는
해발 104m의 얇은 산으로, 북한
정권은 1968년 산 중턱을 깎아내
고 김일성 동상과 광장을 조성하
였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량,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4년 4월 11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71

71 강명숙 (역사학 박사)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와 윤치호의 모범촌 구상



79

79 김정용 (전 개성협력병원 병원장)
소망의 언덕에서(개성공업지구와 개성협력병원)

84 개성을 배경으로한 문학작품
박완서 소설 『미망』에 나타나는 개성의 로컬리티

89 개성의 음식



89

90 개성 출신의 유명인

91 개성의 사람 사는 이야기
개성출신 탈북민 인터뷰



100

100 언론에 비친 개성
최근 1년간 언론에 보도된 개성과 관련된 소식

개성지역 교회의 신앙적 유산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개성은 개경이라고 불리며 고려의 수도로서 500년 동안을 번성하였고, 벽란도는 국제항구로서 중국뿐 아니라 바닷길로 이어진 실크로드의 극동 종착역과도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동남아시아와 아랍의 상인들까지 드나드는 국제상업의 관문 도시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수도가 서울로 옮겨졌기에 이전 왕조의 수도로서 여러 가지 제약과 통제를 받아 왔지만, 개성 사람들은 관직에 등용되는 것보다 상업에 종사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개성에는 중인계층의 거상들이 많았고, 그들은 개성 인삼을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까지 판로를 가지고 있었다. 선교의 주인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성 출신의 유력 가문의 윤치호를 일찍이 개혁과 개방에 눈을 뜨게 하시고,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에 그를 중국과 미국으로 보내시고, 그 과정에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손길이었다. 윤치호는 미국 남감리회의 선교사가 운영하던 상해의 중서서원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추천하여 남감리회의 거점이었던 미국 남부지역의 밴더빌트대학과 에모리대학에서 공부하였다. 강명숙의 글, “남감리회의 개성 선교와 윤치호의 모범촌 구상”은 미국 남부지역에 있는 밴더빌트와 에모리대학의 학문적 풍토와 남부지역 자체가 남북전쟁 이후에 개성지역의 모습과 비슷하나 농촌개량과 근대농업으로서 혼합농법과 윤작법을 통해서 식품 가공 및 그에 따른 화학산업에 이르기까지 남부지역의 산업화를 활성화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윤치호는 기독교의 신앙 정신과 미국 남부지역의 개혁 및 개량 정신에 영향을 받아서 단지 개성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조국의 독립까지도 염두에 둔 활동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윤치호와 그의 이모부인 이건학을 통해서 미국 남감리회의 선교사들을 1896년 중국에서 개성으로 오게 하였고, 남감리회는 1906년에 중국선교연회에서 독립하여 조선독립선교부를 구성하고, 1910년대에는 통계조사

로 볼 때 개성지역이 조선에서 남감리회의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 당시에 남감리회는 당시 복음주의선교공의회를 통해 개성지역을 선교지역으로 할당을 받았고, 강원도, 경기도, 서울 북부지역을 선교지역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 9월에 북감리회와 남감리회의 조선 선교부는 서로 합병했고, 1931년에 개성에서 첫 합동 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렇듯이 개성을 중심으로 한 남감리회의 선교 확장과 북감리회의 선교지역은 합병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멀리 중국의 동북 만주 지역과 당시 러시아의 해삼위(블라디보스톡)까지 감리교회의 선교사역 지경이 넓혀졌다. 개성을 중심으로 한 남감리회 선교사들의 활동과 토착 지역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유산은 감리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뿌리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공산화된 북한 지역의 그루터기 지하교회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개성지역에 개성공단을 남북 합작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있다. 개성지역 인구의 적어도 10퍼센트 이상이 공단 산업에 참여하였고,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수 산업활동이 개성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했고, 전국적인 판로를 열기도 하였다. 개성공단은 이질적인 가치관과 사상, 문화와 행동양식이 다른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10년이 넘는 접촉 공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경제이익을 창출하며 남북한 간의 평화로운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생의 접촉 공간이었다. 비록 정치 지형의 변화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여파로 개성공단은 가동을 멈추었고, 지금은 김정문에 의해서 남한을 괴뢰로 부르며 동족임을 부인하는 극단적인 단절과 증오로 인해 개성공단의 재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북한 주민들이 받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북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남한 사람들이 주도하여 2002년에 건립한 KEDO 신포 금호단지 내에 신포교회가 세워졌고 개성공단 내에 2005년에 신원그룹에 의해 세워진 개성교회는 2006년도에 3천석 규모의 대형교회 건물을 세우기까지 발전하였다. 모두가 남한 근로자들을 위한 교회 시설이었지만, 북한의 그루터기 지하교회의 신자들에게 놀라운 감명과 북한교회 재건을 향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 개성지역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적 유산이 남한의 교회보다 북한 지역의 그루터기 신자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북한교회와 교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모든 사례가 보안 처리되었음에 양해를 구한다.

첫 번째 사례로서 성미와 구제 사역이다.

2000년도 초에 북한의 모 지역의 지하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모인 성미를 보내온 적이 있다. 그 지도자는 전통적으로 조선의 교회는 성미를

모아서 사역자를 후원하거나 교인 중에 가장 어려운 성도를 구제하는 일에 성미가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보내왔다. 이것은 여러 지역에서 교인들 간에 행해지는 북한 지하교회의 중요한 영적 관습이었다. 필자도 1960-70년대 도시뿐 아니라 농촌지역 교회에서 동일하게 성미함이 있고, 성미가 거뒀던 시기가 한국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지금 세대의 젊은 교인들은 성미 모으는 관습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의 교인들은 성미를 모으는 영적 유산을 북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막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어려운 시기이었다. 많은 교인이 오지 산악 지역에 있었고, 그분들은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힘든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북한 전역에 소재한 지하교회의 교인들은 본인들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본인들보다 더욱 힘든 형편에 있는 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미 모음을 적극 활용하였다. 여기에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의 가루 통과 기름병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왕상 17장). 성미를 모아서 교역자를 지원하거나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 초기 한국교회의 영적 관습은 바로 개성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북한의 교인들에게서 아름다운 영적 유산으로서 실천되고 있다.

두 번째, 교회의 자립정신의 영적 유산이다.

개성에 남감리회 선교사가 들어와서 활동할 때 윤치호와 이건혁은 앞장을 서서 선교 후원금을 내고, 본인들의 토지를 선교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교회에 기증하였다. 남감리회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기도처와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개성지역의 교인들은 교사들의 봉급과 학생들의 식비 등을 처음부터 지원하였고, 선교사들이 놀랄 정도로 교회당 건물을 세울 때 선교사들이 지출하는 비용 못지 않은 건축비용을 모금하였다. 이러한 개성지역 교인들의 자립정신은 장로교 선교부의 네비우스 선교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교회의 귀한 영적 유산이다. 바로 이런 교회의 자립정신이 북한 지하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에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도 중반부터 2000년도 초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성경과 찬송가를 절실하게 요청하였고, 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성경과 찬송가 및 신앙 서적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양식이었기에 우선으로 영의 양식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렵고, 교인들이 생존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북한 교인들 스스로가 상부상조하며, 가장 연약한 신자나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2000년도 중엽부터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상세하게 알리기 시작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와 교인들은 교인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신자들을 구제하며, 북한 상황에 적절한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

는데 본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가용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있다. 의존적인 신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는 교인들이다.

세 번째는 평신도 전도자의 조직적인 전도 활동이다.

남감리회의 개성 선교의 특징은 먼저 한국 땅에 정착하여 사역하고 있는 북감리회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 평신도 현지 동역자들을 소개받아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교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리드 선교사는 김주현과 김흥순을 소개받았고, 캠벨 여선교사는 김사라를 소개받았다. 캠벨 선교사는 중국에서 10년 이상 함께 사역하였던 중국인 여성 전도자로서 전도 부인으로 활약하였던 여도라를 동반하였다. 이들 현지인 동역자는 선교사들의 후원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 최초의 고양읍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예수 믿게 되어 시각장애인 전도자로 유명한 백사겸 평신도 전도자를 배출하였다. 북감리회와 남감리회는 감리교의 전통으로서 일정 지역을 할당받아서 평신도이지만 전도자 훈련을 받고, 순회 전도자의 사역을 하게 한다. 이것이 남감리회의 한국 선교사역 특히 개성지역 선교사역에서 개성 사람들의 특성에 부합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하였다. 스톡 선교사에 의해 개성에서 시작된 2만 교인 구령운동은 기존 신자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는데, 이는 전체 감리교 선교부에서 20만 명 구령운동으로 확대되었고, 1909년 복음주의선교공의회에서 초교단적으로 이 운동을 받아들여서 1백만 명 구령 운동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진술한다. 백만인 구령운동의 특징은 1960년대에 남미에서 미국선교사인 케네스 스트라찬에 의한 심층전도운동의 내용과 같다.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총동원전도운동과 유사한 내용이다. 개성지역에서 시작이 되어 교인 각자가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헌신하여 전도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시작하였다. 북한의 지하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적으로 헌신된 믿음과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영성을 갖춘 백사겸 같은 전도자가 많이 있다. 이분들이 무서운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네 번째는 개성지역 교회의 신앙적 유산으로서 목회자의 사표(師表)가 될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산정권은 지난 76년 동안 김일성의 통치로부터 그의 손자인 김정은의 시기까지 반종교, 실질적으로 기독교에 집중된 종교말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 선교사들을 제국주의의 앞잡이, 조선 백성들을 수탈하는 승냥이, 황해도 신천대학살의 주범으로서 살육자 등등 온갖 무시무시한 정죄를 하고 있다. 조선교회의 목

사들은 “김목사의 일가” 영화 내용에서 보듯이 선교사들과 야합하여 조선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앞장을 선 매국노들이다. 1980년대 말 동구라파와 구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기독교를 통일전선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김정은의 통치 시기는 2016년도에 제작된 “종교미신은 국가 반역의 길”의 영화 내용과 2023년에 제정이 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조항 내에 성경책 소지도 불온 문서이요, 국가 반역을 유도하는 문서로서 극형에 처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기독교 말살정책이 여전히 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이 북한 정권 차원에서 선교사와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이 국가적 정책으로 각종 문서와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개성지역 북부교회 출신으로서 독립선언문 대표 33인 중의 한 분인 신석구 목사와 개성에서 남강리회 중앙회관 총무로서 활동하며 미국에 유학하여 주일학교 교육의 전문가로서 해방 이후에 평양에서 성화신학교를 창설하여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조선기독교도연맹과 타협하지 않은 배덕영 목사가 있다. 이분들은 모두 장로교회의 조만식 장로, 김화식 목사 등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모두 함께 북한의 공산화에 저항하다가 장렬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다. 북한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지하교회의 교인들은 이분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북한 교인들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믿음의 사표가 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개성공단의 경험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이다.

이미 필자가 언급했지만,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신포교회, 개성공단 내의 신원그룹의 개성교회 등이 한국 근로자들과 한국인 근무자들을 위해서 세워졌고, 이분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며 북한 정부의 철저한 봉쇄정책과 주민 통제가 있었음에도 그곳 지역을 오고 가는 북한 관리, 기술자, 노동자로서의 제한된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북한 그루터기 지하교회의 신자들에게 알려졌고, 이분들은 북한교회의 재건에 대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손길로서 큰 격려를 받았다.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성”의 글을 쓴 백일순이 언급하였듯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많게는 10년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의 남한 기업의 운영과 경제활동을 지켜보며 참여하였던 수십만의 북한 근로자들을 통해서 남한 기업들이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금년 1월 15일 제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지방 경제 상황을 한심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이내에 모든 시, 군, 즉 모든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지방 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에서 남한 기업의 경제활동에 경험을 가진 북한 근로자 출신 주민들은 각 지역의 특색, 기간시설의 유무, 연료 및 초

보적인 시장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력갱생의 원칙에 근거하여 특정 모델 공장을 선정하고, 지방 자체가 지역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각 공장을 무조건 세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맹목적인 선전용 기획이지 실제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방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실효성이 없는 악한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

개성지역 교회의 지나간 신앙적 유산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 가운데서 남한의 교회뿐 아니라 특히 북한의 그루터기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실천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중반 북한의 모 지역 감리교회 그루터기 지하교회 지도자가 과거의 배덕영 목사가 중심이 되어 평양에서 조직한 서부 연회의 영적 유산을 언급하며 1935년도에 출판된 단권인 아빙돈 성경 주석 전권을 필자에게 보내온 적이 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 불순물이 씻어지며 신앙과 신학이 순금처럼 단련된 감리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신앙 간증과 함께 보내온 귀한 선물이었다. 

신해방지구 접경도시 개성의 발전과 공간구조

1. 들어가며

개성은 한반도 서해안의 대표 도시로서 고려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인삼재배와 상업으로 이름난 도시이다. 또한 남북이 분단된 후 접경지대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발전에 장애를 얻게 된 최근 70여년을 제외하고 최근 1000년간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관문도시 중 하나였다. 이런 이유로 개성에는 서울과 경주 못지않게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남아 있다. 개성은 38선에 걸쳐 있는 도시로 6.25 전쟁 이전에는 남한의 영토였고 전쟁 이후에는 북한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6.25 이후 “신해방지구”로 구분되어 특별하게 관리되었다. 개성은 남북화해의 분위기 속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특히 2005년-2016년 11년간 가동되었던 개성공단은 남북한 주민이 어우러진 합법적-상시적 접촉지대로서 남북통일의 리트머스 시험지, 남북경제협력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개성은 과거 남북 협력 경험과 개성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이후 남북교류가 재개될 경우 남북교류의 핵심거점을 감당할 최우선의 후보 도시로 여겨지고 있으며 남북이 통일될 경우 수도로서 최고의 입지를 갖춘 곳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개성의 역사와 공간구조를 살펴본 후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되었던 개성공단의 경험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성 지역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이후 남북 협력 시 주어진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개성의 역사

1) 개성의 역사와 발전

개성은 고려왕조의 수도로서 개경(開京), 황도(皇都) 등으로 불렸으며 고려 중엽에는 인구가 10-13만 호에 이르는 대도시였다. 고려의 국제항 벽란도의 원래 이름은 예성항(禮成港)이었던 것이 근처에 있던 건물인 벽란정(碧瀾亭)의 이름을 따고

거기에 나루의 뜻을 가진 도(渡)를 붙여 벽란도(碧瀾渡)라 불리게 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벽란도는 개성에 속하였지만, 고려시기 벽란도는 개성의 외항으로 중국의 송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반도와 중동지방의 해상들까지 드나들며 교역을 하는 국제항으로 발전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왕조가 들어선 이후 태조, 정종, 태종 시대까지도 개성은 수도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태종이 수도를 서울로 옮긴 후 조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업 질서를 재편하는 동시에 개성의 개시(開市)를 전면 금지하고 상인들도 서울로 이주시켰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개성의 기득권층은 더 이상 황도로서의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때부터 개성은 더 이상 개경(開京)이 아닌 송도(松都), 개성(開城)이라 불리게 된다. 정치적으로 중앙진출이 어려워진 개성의 엘리트들은 500년간 수도로 쌓여 왔던 재화와 한반도 바닷길의 중심이었던 장점을 활용하여 상업에 투신하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개성은 서울, 평양, 의주와 함께 조선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한다.¹⁾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정리와 함께 개성은 개성군이 되었으며 1930년 개성군 송도면의 시내지역이 개성부로 개편되고, 송도면의 나머지 지역과 주변의 면들이 통합되어 개풍군(開豐郡)으로 개편되었다.²⁾ 일제강점기의 기록에 의하면 “개성인은 배타적인 반면, 향토적 단결력이 강하여, 일본인은 관광, 학교 교직원, 경찰 외 상인으로서는 전혀 들어가기 어려워 전 조선 중 일본인 세력이 가장 약했던 곳”이라고 전한다. 또한 개성은 1930년대 경기도의 주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400호 2,000명밖에 되지 않았다.³⁾

남북이 분단된 후 1949년에는 남한의 경기도 개성시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부터 개성은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는데 개성을 점령한 북한은 1951년 개성과 개풍군을 병합해 개성지구라 칭하고, 개성지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직속 관리지구가 되었다. 1957년에는 직할시로 승격하여 개풍군·판문군을 포함하였고,



개성의 수로와 벽란도(출처: 박하의 북한읽기, <https://blog.naver.com/wonh55>)

1) 김성보, “남북분단의 현대사와 개성: 교류와 갈등의 이중공간,” 학림 31집 p. 63.

2)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2 남포, 개성, 라선』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6)

3) 김성보, “남북분단의 현대사와 개성: 교류와 갈등의 이중공간,” p. 68.



개성의 행정구역,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 날짜: 2023. 10. 22)

1960년에 장풍군을 편입하였다. 2002년 당시까지 개성시에 속했던 판문군을 폐지하여 장풍군, 개풍군, 개성시에 분할 편입하였고 이때 개성공업지구가 따로 지정되었다. 2003년에는 개성직할시의 개풍군과 장풍군을 황해북도에 편입하였으며 개성은 일반시로 격하되면서 황해북도에 편

입되었다. 2005년 개풍군이 개성시에 편입되었다.

2019년 개성시는 황해북도에서 분리되어 다시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이 때 과거 개풍군 지역을 개풍구역, 판문군 지역을 판문 구역으로 부활시켰고 이전 개풍군 지역의 개성시내와 가까운 일부는 개풍구역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개성의 동쪽에 인접한 장풍군도 개성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 라선, 남포는 북한의 행정 구역상 모두 특등시였으나 2010년 라선이 특별시로 지정된 데 이어 2011년에는 남포가 평양의 서부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남포 특별시로 승격이 되었다. 2019년 개성 특급시의 특별시 승격으로 과거 북한의 '3대 특급시'가 '3대 특별시'로 바뀌게 되었다. 북한의 특별시 지정은 인구수가 아닌 정치·경제적 위상 등이 영향을 끼치는데 당시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정권과의 화해 무드 속에서 향후 남북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⁴⁾

2) 6. 25 이후 신해방지구로서의 정체성과 도시의 지위변화

개성은 해방 후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미친 도시이다. 해방 후 38선을 기준으로 남한의 영토가 되었다가 6.25 이후에는 북한의 영토가 된 다섯 도시-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남백연군, 웅진군-을 남한에서는 “미수복지구”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신해방지구”라고 불렀다. 위 도시들은 해방 후 5년간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괴뢰도당’의 통치를 받은 지역으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개성은 신해방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로 재교육 사업의 중심이 되었다.

해방직후 급하게 한반도로 내려온 소련군이 개성에 주둔하던 시기에 개성에 결성된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대체로 중도적인 성향의 인물들 그리고 개성의 토착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김명호는 윤치호의 손자사위로 알려졌는데 김명호의 부인 윤자희는 민주여성동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⁵⁾ 미소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련군은 철수하고 9월 13일부터는 미군이 개성에 진주하여 미군정이 통치를 시작했다. 10월 23일에는 이승만의 통일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개성에 조선독립촉성개성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협의회장은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명호의 사돈인 이종근이 맡았다. 위 두 단체는 전혀 다른 설립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중도적 지향성을 공유하였고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출범하였다. 그러나 38

도선에 인접한 개성은 남한 반공단체에게 있어서 대북공작의 전초기지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공산주의 조직도 급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 진영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1946년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좌우의 대립이 극심한 지역이 된다.⁶⁾

개성은 1950년 6월 25일 6.25 발발 직후 북한군에 의해 가장 먼저 점령된 도시이다. 6월 26일에는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임시로 조직되었으며 7월 15일에는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의 ‘공화국 남반부 해방지역 군·면·리 인민위원회 선거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고 인민위원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남한의 재점령과 1.4 후퇴로 인한 북한의 재점령을 반복하는 와중에 전쟁 기간 개성 시내에서는 남북한의 화폐가 모두 통용되었다고 한다.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된 후 개성은 완충지대로 선포되었으며 9월에는 북한 정권에 의해 개성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12월부터 특별 관리가 시작된다. 당시 당정치위원회 108차 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개성시민, 기업가, 수공업자, 상인들의 자유상업과 기업의 발전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당시 공산당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으로 개성 지역사회의 실권을 쥐고 있는 상인들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결정문에 의하면 개성과 개풍은 신해방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적들의 반동적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에 당정치사업과 군중교양사업을 적극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6.25 전후 남북한의 국경 변화. 개성은 38선 이남의 도시로 6.25 전쟁 이전에는 남한에 속하였으나, 전쟁 이후 북한에 속하게 된다.

4) "김정은,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남북협력 재개 염두" 뉴스핌 2020년 05월 15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514001100>

5) 김성보, “남북분단의 현대사와 개성: 교류와 갈등의 이중공간,” p. 68.

6) 김성보, “남북분단의 현대사와 개성: 교류와 갈등의 이중공간,” pp. 74-76.



개성시 덕암리 정동 농업협동조합(출처: 노동신문 1954년 10월 24일, 라이프인, “상호의 존과 격리의 경계선에서 개성 땅을 바라보다,” 이찬우)

1954년 12월 개성을 방문한 김일성은 개성이 상업지역임을 주목하면서 개인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생산협동조합을 결성하는 한편 남한과 접경지역인 만큼 개인농경리를 협동화하여 사회주의 집단경리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⁷⁾

한편,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52년 말 개성이 북한에 속한 채로 종전될 기미가 보이자 공산주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정치, 사상적 탄압, 재산 몰

수, 폭격을 피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개성의 주민은 월남을 택하였다. 휴전과 동시에 국경이 확정되며 개성의 많은 주민들은 이산가족이 된다. 김일성은 개성 인구의 60~70%가 이남으로 끌려갔다고 주장했다.⁸⁾ 이 시기 북한정권은 월남자들로 인해 발생한 간부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북한의 각지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개성으로 모아들여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등 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⁹⁾ 종전 직후부터 소년형무소를 방직공장으로 바꾸는 등 경공업업을 위한 시설들을 건설하였고 1955년 4월 12일 내각에 의해 ‘개성시 복구 건설을 위한 총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내각 결정 제 41호가 채택된 이후 개성에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

공산당을 중심으로 전쟁을 거치며 추진한 농업 협동화는 북한 정권 수립이 10년차에 다다른 1956~1957년 즈음 대부분 완성 단계에 들었다. 그러나 전쟁 후 북한에 편입된 지역들인 신해방지구의 협동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1956년 말에서 1957년 초에는 황해남도과 개성의 부농과 중농이 농업협동조합에서 대거 이탈하는데, 이 사건은 이탈의 중심지 배천군의 이름을 따 ‘배천바람’이라 불렸다. 배천과 개풍 지역은 남한의 강화도를 직접 마주 보는 곳으로서 남한과의 연계성을 의심받았다. ‘배천바람’의 책임을 지고 당 농업부장(남한의 장관에 해당)을 비롯하여 황해남도와 개성의 간부들이 숙청되었고 배천바람의 주동자들은 반혁명분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된다.

원래 개성에서 살고 있던 이른바 ‘본주민’들은 해방 후 5년간 남한의 통치를 겪은 이들로, 해방 직후 북한의 국가건설에 동참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한의 국가건설에 복무한 자들로 여겨졌다. 1951년 이후 몇 년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

되며 ‘본주민’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입주민’들로부터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게 되는데 개성의 본주민들은 정권의 의심과 입주민들로부터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월남자 가족들과는 거리를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주민들과 월남자 가족은 점점 분리되어 갔다.

북한정권은 신해방지구의 농업 협동화를 1957년 말 완성하였다고 발표한다. 1957년 말부터 북한 언론매체에서 ‘신해방지구’라는 명칭은 사라지는데¹⁰⁾ 이는 ‘신해방지구’를 더 이상 북한 내 특수지구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북한당국의 지역 동화정책이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탈북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1980년대까지도 개성의 일부 주민들은 개인이 땅을 소유하여 경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이들의 토지가 국가에 편입되었다.¹¹⁾ 개성의 농업 협동화는 타지역에 비해 월남자 가족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 남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지리적·정치적 폐쇄성으로 인해 다른지역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더디고 엉성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의 내부적 경계는 계속 철저하게 이어졌는데, 1957년 미제간첩 백봉기 사건으로 대표되는 개성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간첩 사건이 『로동신문』과 『개성신문』에 보도되었다.



“버스가 달리는 개성의 거리 (출처: 노동신문 1955년 7월 28일, 라이프인, “상호의 존과 격리의 경계선에서 개성 땅을 바라보다,” 이찬우)”

3. 개성의 공간 구조

1) 개성의 지리

개성은 북한의 3대 특별시 중 하나이다. 북한의 특별시는 도와 같은 위계로 남한의 광역시와 같은 급으로 볼 수 있다. 개성은 북쪽은 황해북도 금천군과 토산군, 동쪽은 북한령 강원도 철원군과 접해 있으며 서쪽은 예성강을 경계로 황해남도 배천군과 접해 있다. 바로 남쪽에 휴전선을 경계로 남한의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이 있으며 한강 하류를 건너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과도 인접해 있다. 개성은 북쪽의 송악산(488m)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부흥산, 용수산(용백산), 오공산(지네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다. 이 분지 지형이 다시 한강 하류와 연결되는 예성강과 임진강으로 둘러싸인 형태로 천혜의 요새로 불리었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 중 인구로 보아 평양(310만), 청진(65만), 함흥(54만)의 세

7) 기광서, “한국전쟁 및 그 이후 시기 북한의 ‘신해방지구’ 정책,” 『통일과 평화』13권 2호, (2021) pp. 129, 138.

8) 김일성,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102를 기광서, p. 136에서 재인용.

9) 송경록, 『북한 향토사학자가 쓴 개성 이야기』 (서울: 푸른숲, 2000) p. 126.

10) 기광서, “한국전쟁 및 그 이후 시기 북한의 ‘신해방지구’ 정책,” pp. 137~139.

11) 탈북민 000과의 인터뷰. (2024년 3월)



개성 시내 사진 (출처: <https://m.blog.naver.com/worldtrabiz>)

도시는 여타 도시들과 분명한 격차를 보이는 대도시이다. 이 도시들의 뒤를 이어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로 개성(37만), 신의주(36만), 원산(36만), 남포(36만), 사리원(30만) 등 주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들이 있는데, 개성도 규모 면에서는 일반 도청소재지와 같다. 2023년 이전 개성의 인구는 31만여 명으로 추산되었으나, 2023년 장풍군이 개성특별시에 편입되며 37만여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라선특별시	개성특별시
면적(km ²)	1,849	1,295	904	1,297
인구(명)	3,255,288	366,815	196,954	377,544
인구밀도	1,760	283	217	291

표1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통계청 북한통계(<https://kosis.kr/bukhan/search/search.do>)를 참조로 필자 작성. 최근까지 발표된 북한관련 통계는 대부분 개성시와 장풍군이 합병되기 이전 통계이다. 2023년 장풍이 개성에 편입되었으므로 이 표는 개성시와 장풍군의 합산 값을 반영한다.

개성은 6.25이후 북한의 영토로 편입된 소위 “신해방지구” 다섯 도시 중 북한 정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도시이다. 1955년 4월 12일 북한 정권의 내각에 의해 ‘개성시 복구 건설을 위한 총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내각 결정 제 41호가 채택된 이후 개성에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 개성 시가지의 핵심 도로와 중심축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 개성의 중심도로로서 고려황궁의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남북을 잇는 길은 상점과 주민들이 밀집된 도시의 중심축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정부기관들이 있는 지금의 북안동 앞에 남북을 가르는 도로가 있었으나 1968년 자남산 언덕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언덕으로 향하는 거리에 여러 편의시설을 비롯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며 개성의 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남산은 개성의 시내 중심부에 있는 해발 104m의 얇은 산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정상에 신사가 있었다. 북한정권이 들어선 이후 신사에서 남쪽방향 중턱을 깎아내고 김일성 동상과 광장을 만들었으며 이 동상으로부터 개성의 중심가인 남대문에 이르는 대로를 건설하였다. 남대문을 기준으로 동편에 있는 청년로에는 통일관, 개성백화점, 고려인삼판매소, 인민병원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남대문 서편 송도로 주변에는 송도사범대학, 개성학생소년궁전, 개성신문사 등이 위치하고 있다.¹²⁾

최근 발표된 답려닝 기법을 통한 개성의 공간연구에 따르면 수목 밀도의 경우 송악산 북쪽 숲 지역과 도심에서는 송악동, 고려동, 부산동, 운학2동에서 높게 나타

났으며 녹지는 개성공단과 개성도심 주변의 운학1동, 운학2동, 송악동이 높게 나타났다. 농경지의 경우는 임진강과 한강 주변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구밀도는 개성광장과 남대문 북쪽지역인 북안동, 만월동, 해운동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생활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북안동, 자남동, 방직동, 만월동, 역전동 인근의 생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개성의 시장,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참고: 홍민 외, 『2022 북한공식 시장현황』, 2022, p.154, 이미지 날짜: 2023. 10. 22)

2) 개성의 시장

개성은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발전한 한반도 상업의 중심도시로, 여러 시장이 있었다. 일제는 개성의 중심지 남대문 주변의 시전을 정리하고 당교(唐橋)와 도교(都橋)에 대형 시장을 열었다. 6.25 이후 공산정권이 들어서며 개성의 시장들은 자연스레 축소되어 당교시장은 사라지고 도교시장은 ‘개성중앙시장’으로 개편되었다. 북한의 시장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통제, 관리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리는 편법을 통하거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개성의 보선동 시장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활성화되어 관리사무실도 존재하였으나, 시장의 운영과 관리가 과연 어떠한 법과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모호하다. 그러던 것이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와 2003년 시장을 공식화한 내각지시 24호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양성화되었다. 이후로 상업관리국에서 ‘시장관리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장의 명칭은 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나 리의 지명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고 “시장표준설계” 규정에 따라 건설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시장사용료(장세)의 액수를 결정하는 책임은 상업성, 재정성의 판단과 함께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

12) 박소영, “사회주의 지방도시 개성과 ‘개성시’의 변화” p. 2, 3. 월간 환경과 조경, 315, 2014년 6월호.

13) 이시호, “답려닝 기반 북한 도시공간 연구,” pp. 53, 54.

에게 부여되었다. 200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발표된 “재정성 지시 제30호”에는 종합시장의 장세가 명시되어 있다. 곡물 100원, 채소(남새) 80원, 의복 120원, 해산물 200원, 전자기기 250원, 고기류 250원 등이다.¹⁴⁾ 그러나 2009년에 있었던 화폐개혁을 감안 하더라도 이를 최근 실제 장세 현황과 비교해보면 10배에서 40배까지 차이가 난다. 개성은 행정구역상 특별시임에도 불구하고, 함남 단천, 평남 개천, 자강도 강계, 함북 회령 등과 함께 3등급 도시로 분류되는데, 3등급 도시의 장세는 1일 기준, 2017년에 북한 돈 1,000원 - 2,800원이던 것이 코로나 통제가 막바지에 이르던 2022년 9-12월에는 1,600-5,8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⁵⁾

위성사진과 개성 출신 탈북민 인터뷰를 분석한 통일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성에는 공식적으로 5개의 시장이 있다. 시장의 이름은 각각 시장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을 따라 보선동시장, 개풍시장, 판문군시장, 고려동시장, 남문동 시장이다. 이 중 개풍지역에 위치한 개풍시장은 2015년에는 공장으로 판단되었으나, 현재는 시장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풍시장의 건물은 사업소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과거 소규모사업소였던 곳을 개조하여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선동시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던 2016년 후반부터 외연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2021년에는 기존 10,383km²에서 12,417km²로 크게 확장되었다. 보선동시장은 남문시장과는 1km, 고려시장과는 1.6km 떨어져 있다.¹⁶⁾

지역구분	위치	시장이름	면적(㎡)	특이사항
개성도심	보선동	보선동 시장	12,417	2016-2022년 사이에 확장됨
	고려동	고려동 시장	1,202	
	남문동	남문동 시장	5,145	
개풍군	개풍군	개풍시장	3,205	2015년을 전후하여 위치 이동
판문군	판문군	판문시장	1,757	

표2 개성의 시장 현황, 홍민 외, 『2022 북한공식 시장현황』, 2022, p.154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3) 개성의 교통

개성의 철도역으로는 평부선의 개성역이 있다. 경의선의 주요역은 서울 - 일산 - 문산 - 장단 - 개성 - 사리원 - 평양 - 안주 - 신의주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경의선의 평양-신의주 구간을 “평의선”으로, 평양-개성 구간을 “평부선”(평양-부산)으로 부르는데 이는 서울이 아닌 평양을 한반도 철도의 기점으로 간주하는 북한정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개성역의 신역사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14)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50-53.

15)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pp. 64, 65.

16)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pp. 128, 129.

결정된 경의선 철도연결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세워졌다. 건물의 모양은 전형적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유리외벽 양식으로 남한의



2007년 5월 17일에 있었던 남북 열차 시험운행 시간계획(그림:문화일보)

마석역, 예산역과 비슷한 형태이다. 개성역의 최근 사진을 보면 남한 스타일의 역사 외부에 김일성 초상화와 조선로동당 찬양 구호가 걸려 있는 모습이 매우 이색적으로 보인다. 개성역 청사가 세워진 직후 남한의 문산역과 개성역 간의 시험운행이 있었고 이후 남한 수도권 전철의 개성까지로의 연장도 논의되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직되며 계획은 무산되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남한의 특별지원 물자가 남한에서 출발하여 철도를 이용하여 개성역을 통해 북측에 전달되었다.

개성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의 종점이다. 평양-개성 고속도로는 유엔에 의해서 아시아 하이웨이 1호선의 일부로 지정되었다. 연장 170km, 노폭 24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경사각도 대부분이 4도(대략 70퍼밀) 미만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다른 고속도로와는 달리 시속 100-120km의 속도제한이 있다. 최근 김정은에 의해 철거되어 주목을 받은 평양 충성의 다리 남단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터를 기점으로 평양시, 황주군, 사리원시, 봉산군, 서흥군, 평산군, 금천군, 개성에 도착한다. 개성-평양 고속도로는 판문점에서 약 2km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비무장 지대(DMZ)로 들어가는 통문까지 도로가 이어지며 개성공단 진출입로(경의선 남북 출입도로)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1987년 착공하여 당초에 1992년 4월 15일 김일성 80회 생일에 맞추어 개통하였다고 선전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분 개통이었고, 전체 개통된 것은 1994년으로 1994년 김일성 사망 직후에 완공되었다



개성역 외부 전경. 개성역의 신역사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결정된 경의선 철도연결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세워졌다.



개성은 직선거리로 김포국제공항에서 48km, 인천국제공항에서 52km로 도로가 연결된다면 두 공항 모두 한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사진: 금성출판사)



2022년 10월 5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출처: 연합뉴스)

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해 평양까지 간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밖에 신의주에서 출발하여 평양, 개성, 서울을 거쳐 목포에 이르는 1번 국도가 개성을 지나며, 개성을 출발하여 웅진군으로 가는 도로로 50번 국도가 있다. 개성에는 공항이 없다. 그러나 직선거리 기준 김포국제공항에서 48km, 인천국제공항에서 52km로 도로가 연결된다면 두

공항 모두 한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4. 개성공단의 시도와 영향

개성공단은 남북이 분단된 이후 양측이 협력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한 첫 프로젝트로, 2004년 12월 가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2016년 2월 가동이 중단되기까지 남북경제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이었다. 개성공단은 1998년 6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소 501마리를 데려간 ‘소떼방북’을 통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8일간 북한에 머무르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경제협력에 관련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뒤이어 1999년 10월에 있었던 정주영 회장의 2차 방북에서 현대그룹과 북한 정부 간 서해안 공단 건설에 대한 합의가 있는 이후 논의가 지속된 끝에 2000년 8월 남한의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2002년 북한의 7.1관리 조치로 대표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물결 속에 북한은 여러 지역에 경제특구를 추진하는데 당시 2002년 9월에 있었던 신의주특별행정구역 지정 직후 2002년 10월에는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진행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03년 2월에 남측 실무진들의 개성공단 부지 육로답사가 있었고 뒤이어 6월 30일 개성공단 시범지구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어 2004년 12월 15일 완공되었다. 2004년 6월 시범단지에 주방용품 기업 리빙아트, 의류기업 신원을 비롯한 15개사가, 2005년에는 추가로 24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부터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남한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3월 6일 제 265회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성공단은 더욱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법제도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자, 중소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2007년에는 183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대한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개성공단은 개성이라는 한 도시의 외곽지역에서 있었던 제한적 사업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남북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상징성을 지니며, 기업들의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었다. 북측 근무 인원은 2005년 7,600여 명에서 2015년 54,0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북측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06년 68달러에서 2013년 137달러로 약 2배 증가하였다. 개성의 경제활동 인구 약 15만 명 중 약 5만여 명이 개성공단에 근무하여,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얻었다. 생산액 또한 2005년 1,491만 달러였던 것이 2015년에는 56,33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노동자 1인당 생산액 역시 2005년 2,287달러에서 2015년 10,094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발전과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되었다. 2008년부터 있었던 남북관계 경색 정국에서 2008년 12월 북한은 개성공단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및 체류인원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였고, 2009년 5월 15일에는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3월 30일 소위 유성진씨 억류사건이 일어난다. 유씨가 북한 여성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사회에서 같이 살자”라고 편지를 보냈다가 북한에 적발되었고 이를 이유로 억류된 것이다. 결국 현대아산 회장이 직접 방북하여 협상을 한 끝에 유씨는 137일 만에 풀려났다. 뒤이어 있었던 2009년 한미연합사령부의 키 리졸브 훈련 당시에는 3번이나 통행이 금지되는 등 후폭풍이 있었다.

2010년 3월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 사건의 결과로 남한정부는 2010년 5월 24일 5.24 대북제재를 발효했다. 그 가운데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금지하고 개성공단 밖에서 이루어지는 임가공 사업도 불허하는 내용,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기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축소·조정하는 등 여러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전면 중단”이라는 다수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생산규모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2013년 들어 개성공단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연합사에 의해 3월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었다. 키 리졸브 훈련과 동시에 북한의 각종 조치가 이어졌는데 4월 3일 남한인원에 대한 개성공단 입경이 차단되었고 바로 다음날인 4월 4일 북한은 4월 10일까지 개성공단 인원에 대한 전원 철수를 통보했다. 2013년 4월 26일, 결국 남측도 전원 철수를 결정하여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됐다. 이후로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



2020년 6월 17일 조선중앙TV는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국 실무회담을 진행하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개성공단은 재개된다.

그러나 2013년 위기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개성공단은 문을 닫게 된다. 2016년 1월 6일에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에 있었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남한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통일부는 2월 8일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650명에서 500명으로 줄였고, 뒤이어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중단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10여 년간 이어졌던 남북협력의 대표적인 모델 개성공단은 막을 내리게 된다. 2013년의 학습효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이번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개성공단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18년 남한에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크고 작은 논의들이 있었으나, 진지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경 북한은 개성공단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바로 옆 건물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 4일, 통일부는 2024년 중으로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1월 26일 기준 개성공단 남단에 위치해 있던 군사시설 7동이 모두 사라졌는데, 김정은이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새로 발표한 정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그 터에 공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그 뒤로도 개성공단에 주차된 수십대의 버스가 사라졌다는 뉴스, 북측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2월 20일에는 개성공단의 각 공장시설 설비를 그 일대에 새로 개건한 지방공업 공장으로 이전해 공식적으로 가동할 것이며, 중앙에서 옷공장과 신발공장 등을 재건 확장해 경공업기지로 개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5.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개성의 역사와 공간구조 그리고 2004년에서 2016년까지 이어졌던 개성공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성은 수로와 해로의 교차점이자 주변에 평야를 보유하여 물산이 풍부한 도시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이후 항상 한반도의 주요도시였다. 고려왕조의 수도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음은 물론 조선시대 상업의 중심지로 개성을 대표하는 송방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해방과 6.25를 거치며 개성의 지위와 역할은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나뉘었을 때는 남측에 속한 접경지대로, 국경이 휴전선으로 조정된

이후로는 북측에 속한 접경지대로 개성은 각 정부의 특별관리 지역이 되었으며, 군사적 대치의 상황에서 국경도시의 특성은 도시발전에 절대적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개성공단 설치와 가동은 이에 대한 극적 반전이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인 모델로, 개성공단이 가동된 12년간 많을 때는 6만 명에 가까운 남북의 직원이 함께 한 통일의 시험장이자 연습이었다. 남북 주민들 간의 접촉을 통해 접촉지대를 형성하였으며, 남한의 경관이 북측에 자연스레 이식되고 모방되는 경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국 수많은 어려움 끝에 개성공단은 2016년 문을 닫았다. 개성공단 내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2020년 북한정권에 의해 폭파되었으며 작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에 대하여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남과 북은 2개의 국가라고 선언하며 발언하였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든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언젠가는 남과 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협력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시작점에 개성이 있을 확률이 높으며 개성공단의 경험은 새로운 협력에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 🐼

개성시 공간구조와 공간격차¹⁾

이시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개성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 영토에 편입된 분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인근이자 남북 경제협력 경험을 가진 현재와 미래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도시이다. 개성공단과 개성시는 5km 정도로 매우 근접해 있으며, 공단 운영시 개성시의 많은 주민들은 개성공단의 근로자로 남한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경험했다. 비록 2020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소가 폭파되었지만, 미래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북한의 SDGs 달성과 남북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²⁾ 따라서 개성시에 대한 연구는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북한 내 특정 도시에 대한 연구이자 향후 남북경협을 고려한 도시연구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 도시연구는 자료 부족과 현장 접근의 불가능성이라는 근원적 한계가 있다. 이를 넘어서고자 필자는 개성시를 대상으로 인공위성 자료를 시기별로 추출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방식으로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는 개성시 이탈주민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차 검토했으며, 동시에 개성 도시공간과 일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 위성 자료 활용한 AI 분석은 최근 개발도상국의 도시공간 연구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통계 데이터가 부족한 지역에서 적은 인력과 시간, 비용을 통해 광범위한 공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지역을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그리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³⁾ 위성자료를 사용한 연구 사례로는 북

한 지역격차 연구⁴⁾, 야간 불빛을 이용한 인도네시아 빈곤연구⁵⁾, 아프가니스탄의 빈곤과 범죄 연구⁶⁾, 태국과 베트남의 농촌지역 소비변화 연구⁷⁾, 등이 있다.

필자는 개성시 공간구조와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개성시 행정구역 약 552km²를 40개 구역 ‘동’ 단위로 세분화하고 위성자료와 지리정보자료(GIS)를 수집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총 12개 변수로 각 동별 인구수, 건물밀도, 건축면적, 나무, 녹지, 농경지 밀도, 시장 접근

성, 야간조도, 주요도로, 생활도로, 대중교통, 관심지점(카페, 식당 등) 이다. 추출된 변수는 각 동별로 밀도 차이를 분석해 동별 공간 특성과 구조를 파악했다. 이후 AI 방식 분류(autoencoder clustering) 과정을 통해 개성 도심 동을 4개 계층, 곧 최상층, 중상층, 중하층, 하층 거주 공간으로 나누었다. AI를 통한 연구결과는 개성시에서 거주 경험을 가진 세 분의 이탈주민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검토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개성시 공간과 일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성시 공간구조 및 특성

개성시 공간구조는 크게 장풍군, 개풍군, 판문군의 농촌지역과 도심, 개성공단으로 나눌 수 있다. 개성시 북쪽은 산지가, 동남쪽은 임진강과 농지, 군사 분계선이,

〈개성지역의 문화유적 현황〉



출처: 이시호, “딥러닝 기반 북한 도시공간 연구: 개성시 공간격차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2호, 2023, 43쪽.

1) 이 글은 필자의 연구 ‘이시호, “딥러닝 기반 북한 도시공간 연구: 개성시 공간격차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2호, 2023, 37-60.’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 및 보완했음을 밝힙니다.

2) 진윤호, “SDGs 관점에서 개성공단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개성공단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19권 2호, 2022, p.50.

3) Li G, Cai Z, Qian Y, and Chen F, “Identifying Urban Poverty using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ry and Machine Learning Approaches: Implications for housing inequality”, MDPI Land 10(6), 2021, pp.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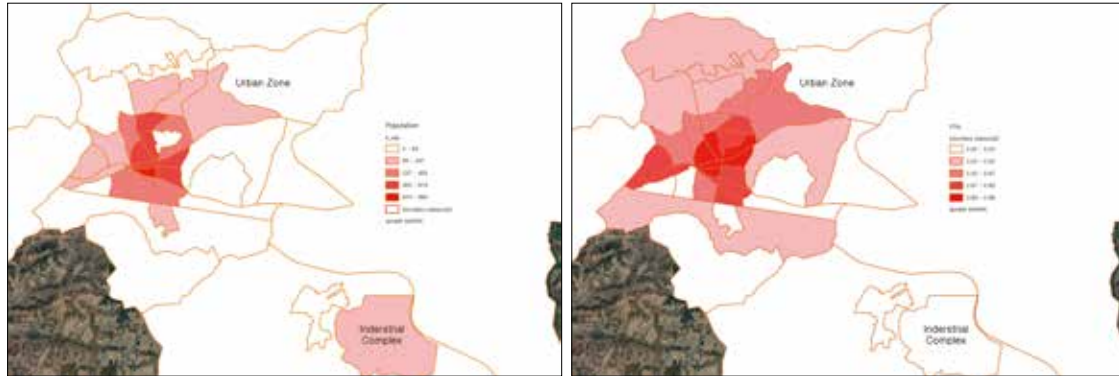
4) 위성자료와 AI 기술을 활용한 북한 연구는 KBS 뉴스 “[클로즈업 북한] AI로 들여다 본 북한…도농 간 격차 커져”를 참고하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9751>).

5) Aprianto K, Wijayanto AW and Pramana S, “Deep Learning Approach using Satellite Imagery data for Poverty analysis in Banten, Indonesia”, IEEE conference on Cybernetics and Computational Intelligence, 2022, pp. 126~131.

6) Irvine JM, Wood RJ and McBee P, “Remote Sensing to Analyze Wealth, Poverty, and Crime”, IEEE Applied Imagery Pattern Recognition Workshop (AIPR), Washington, DC, USA. 2017, pp. 1~9.

7) Woelk, F, Yuan T, Kis-Katos K, Fu X, “Measuring Consumption changes in Rural villages based on Satellite image data: A Case study for Thailand and Vietnam”, IEEE Xplore, 2022, pp. 600~607.

〈그림 2〉 개성 도심 동별 인구밀도(왼쪽)와 관심지점(식당 등, 오른쪽)



출처: 이시호, “데이터 기반 북한 도시공간 연구: 개성시 공간격차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2호, 2023, 49쪽.

도심은 개성시 행정구역의 중앙 지역에 위치한다. 도심은 개성광장과 남문 일대이며, 도심의 북쪽은 송악산이 위치해 지대가 높고 서쪽으로는 개성역이, 동쪽 보선동 일대는 언덕이며, 개성공단은 도심 남동쪽에 위치한다.

도심지역 ‘동’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인구밀도와 건물밀도는 도시 중앙인 개성광장과 남대문 북쪽 북안동, 만월동, 해운동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시장 접근성은 도심인 남문동뿐 아니라 북쪽 고려동과 보선동 언덕 인근 운학1동, 개성공단 인접한 판문1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이 설립된 위치와 관계가 있다.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야간 불빛 강도는 도심의 개성광장과 개성역 인근 남문동, 룡산동, 관훈동 그리고 송악산 아래 고려동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도시 동쪽 보선동, 운학동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접근성을 나타내는 주요도로 밀도는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외곽과 개성 남대문을 잇는 도로 인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도로는 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과 동흥동, 북한동, 남문동, 해운동, 선죽동, 룡산동에서 높게 나타났다. 버스 및 기차 정류소 밀도는 개성역과 도심 남문 사이 주요 도로에서, 관심지점(카페, 식당, 이발소, 호텔 등)은 도심 남대문 주변, 개성역 인근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성 도심 공간격차: AI 분석

인공지능(AI) 방식 공간분류(Clustering) 알고리즘인 ‘Autoencoder’을 통해 개성 도심 27개 동을 4개 클래스로 분류했다. 개성 도심에서 상위층 거주지역으로 판명되는 지역은 〈그림 3〉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개성광장과 남문 인근과 북쪽으로 고려동, 남쪽으로 남산일동 인근이다. 이 지역은 건물과 인구, 도로가 밀집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고위층이 거주하고 한옥 주거지, 호텔, 식당 등 편의 시설이 많아 외부 방문객들이 머무르는 곳이다. 연두색 중상층 지역은 서쪽 개성역이 위치한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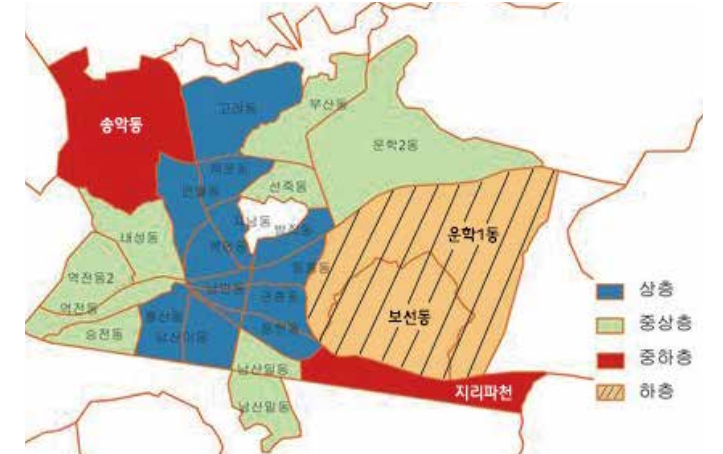
동 인근과 남쪽 남산일동, 북동쪽 운학2동 인근으로 나타났다. 중하층 지역은 붉은색 송악산 아래 송악동과 하천이 지리파천 인근 지역으로 나타났다. 하층민이 주로 사는 지역은 동쪽 보선동과 운학1동 인근으로, 이 지역은 언덕 위 ‘땅집(단층 슬레이트집)’이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도로포장도 되어있지 않은 곳이다.

계층별 변수의 특징을 확인해 보면 상층 주거지일수록 인구수, 건물 밀집도, 시장 접근성, 야간 불빛, 주요 도로, 대중교통, 관심지점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층별 주거지의 위성 이미지 특징을 보면 〈그림 4〉와 같다. 상층 주거지는 도심 광장과 호텔, 높고 규모가 있는 건물과 한옥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포장도로와 가로수가 있다. 반면 하층 주거지는 언덕 위 좁은 비포장 골목길에 단층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다.

도시 일상

AI 방식 공간격차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구체적 공간 상황과 일상을 확인하기 위

〈그림 3〉 AI 분석 개성시 도시공간 격차 지도



출처: 이시호, “데이터 기반 북한 도시공간 연구: 개성시 공간격차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2호, 2023, 51쪽 내용 필자 수정

〈그림 4〉 계층별 주거지 위성사진 검토



출처: 이시호, “데이터 기반 북한 도시공간 연구: 개성시 공간격차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2호, 2023, 52쪽 내용 필자 수정

해 개성 거주 경험을 가진 이탈주민 세 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은 공간 분석 결과에 대해 “잘 보셨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A, 50대)”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다.

“여기는 그냥 보통 중산층이 많이 살죠. 송악산 밑에 (고려동, 부산동 인근)... 맞게 보이네요. 파란색 이렇게 잘 사는 동네. 노란 건 못 사는 동네. 맞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맞아요. (C, 30대)”

그들은 ‘잘 사는 지역’으로 남문 근처 북안동, 자남동, 방직동, 만월동, 역전동 인근을,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보선동 인근으로 꼽았다. A에 따르면 보선동은 2000년 전후로 도심 남문 인근에 있던 장마당이 “외국 사람들 와도 안 좋다. 안 보이는 데로 가라”는 말과 함께 옮겨온 지역이다. 이후 이 지역은 과거에 비해 상황이 좋아 지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제일 잘 사는 동네는 남문동, 북안동 이쪽이고. 선죽동은 경기장 근처잖아요.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두 번째 정도로 잘 살고. 송악산 밑은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저소득층은 보선동, 성남동. 그 다음에 역전동. (그곳은) 다 서민이 사는 거죠. 서민들이 장사, 메뚜기 장사 그런 비슷하게 하고 있고. (C)”

“보선동은 원래 진짜 못 살았던 동네인데. 보선동이 여기 방공호가 있고, 방공호 뒤로 이렇게 산이 언덕이 짝 있는데, 이 언덕에다가 장마당을 옮긴 거예요. 그러면 산꼭대기로 겨울에도 구루마들 끌고 올라가니까 그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럼 이 꽃제비 아이들은 구루마 밀어주고 뭐 하나라도 얻어먹고, 또 그러고 살고 그랬던 데예요. (A)”

C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개성공단 운영과 시장 확산은 개성시 공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외부에서 온 근로자들은 거주할 숙소를 건축하기보다는 지인 집의 창고나 운영이 중단된 공장, 학교 공터 등을 개조해 임시 숙소를 마련했다. 개성공단 운영으로 개성 쌀과 함께 한국산 물품(한국산 원단을 가공한 옷, 장갑, 초코파이 등)은 북한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A). 시장 확산에 따라 물품 보관 창고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임시 숙소와 함께 창고들이 송악산 아래 고려동, 부산동 인근에 들어서게 된다.

“송악산 밑에 야영소가 있는데(부산동, 연두색), 거기를 관리하는 무슨 교육직들이나 관리직들 집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잘) 살아요. 거기 변두

리에 살면서 늘려나갈 땅도 있고... (임시 노동자들은) 창고 같은 거, 여기 무슨 곰팡이가 나든 벌레가 기어다니든 알아서 청소하고 살아요. 공짜데 얼마나 좋아요. (C)”

최근 도시변화에 대한 C의 증언을 확인하고자 2004년 4월과 2023년 4월 위성사진을 비교해 가며 위치정보를 하나씩 기입하는 방식(Eyes Watching)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시각화 지도(heat map)를 그렸다 (<그림 5> 참조). 확인 결과 C의 증언처럼 도심 북쪽 송악산 밑인 고려동, 해운동, 부산동, 선죽동, 운학2동과 도심 서쪽 운학1동, 그리고 남쪽 룡산동, 남산이동 일대에 건축 활동이 밀집되어 나타났다.

<그림 5> 2004~2023년 사이 신축된 건물에 대한 위치 밀도 지도



출처: 이시호, “답러님 기반 북한 도시공간 연구: 개성시 공간격차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2호, 2023, 55쪽.

나가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히브리서 11:1)”이다. 이 연구는 마치 영속적으로 멈추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 남북경협 중심 도시 개성의 도시공간 구조와 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방법론과 접근을 통해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던 개성시의 물리적 공간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개성시 주민들의 생활과 생각의 변화 그리고 미래 이곳에서 함께 살아갈 ‘우리’의 공간을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가 체제전환국 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도시공간의 유산은 전환기 자본의 투자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동한다.⁸⁾

광복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개성은 대한민국에 포함되었던 자유로운 도시였다. 개성 도심 남문에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만나 이야기하며, 보선동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날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래’ 본다. 그리고 북한 땅에 천국 복음과 자유를 ‘침노’하려면,⁹⁾ 우리는 더욱 북한의 공간과 사람을 연구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

8) Kiril Stanilov, The Post-socialist city: Urban form and space transforma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socialism, pp. 5-28.

9) 필자는 북한 도시교회 설립을 위한 연구로 체제전환 이후 부다페스트 개신교회 설립양상을 연구한 바있다 (이시호·함승수, “체제전환 국가 도시교회 설립양상 연구: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신학과사회』 제36권 3호, 2022, 209-242.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의 문화유산

박성진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1.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황(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개성역사유적지구’는 2000년 5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었다.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 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2005년 11월 개성 현지에서 ‘개성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남북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기에 이른다.¹⁾ 이 자리에서 개성 역사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제안되었다. 이후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의 역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고 보존 관리하기 위해 남과 북이 협력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2006년 1월, 개성 역사유적 발굴에 대한 포괄적 합의서가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되었다.²⁾ 같은 해 2월에는 북측이 발굴조사 대상으로 송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려궁성(속칭 만월대)을 제안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고려궁성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조사와 복구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북한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년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반려(deferral) 판정을 받았다. 반려 이유는 세 가지로 첫째 고려왕조의 수도인 개

성의 유산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유적에 대한 재고 필요, 둘째 신청 유산의 문화 및 자연환경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유적 지역 경계 재설정, 셋째 향후 개발 등으로 유적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을 잠재적인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역 설정 등이 그것이다.³⁾

이후 북한은 2011년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등재서 미비(incomplete)’로 인해 심사는 2012년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2012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된 ICOMOS 기술평가팀의 현지답사 결과 2013년 5월 13일에 공개된 실사 보고서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23일 ‘개성역사유적지구(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개성역사유적지구’가 고려시대 이전 한반도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문화·정치적 가치들을 5세기에 걸쳐 이웃 국가들과 ‘교류’한 점과 고려의 특출한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결정하였다.⁴⁾ 이번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등재로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과 함께 모두 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11건과 함께 한반도 전체에 총 13건의 세계유산을 등재하게 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주요내용〉	
일 자	내 용
2000. 05. 20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2005. 11. 18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남북 공동 학술토론회와 유적답사
2007. 01. 17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2008.	제 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보류(Deferral)로 결정
2011. 01.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신청서 미완성으로 판정
2011. 02. 14	수정 변경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2012. 09. 21	ICOMOS에서 동아시아에서 문화발달에 대한 개성의 역할, 비교 연구, 진정성, 완충지대와 관리에 관한 질문 편지를 보냄
2012.09.26. - 10.01	ICOMOS에서 실사 수행
2012. 10. 19	2012. 09. 21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 받음
2012. 12. 20	패널 심사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보냄
2012. 02. 27	답변 받음
2013. 06. 23	제 3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결정

출처: 이해은,『개성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추진) 과정』, 2013 제주 세계유산포럼 자료집, 문화재청·제주특별자치도·(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13.

3) 이해은, “개성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추진) 과정”,『2013 제주 세계유산포럼 자료집』(문화재청·제주특별자치도·(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13), 33~37쪽

4) “『개성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 등재확정”,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3. 6. 24.)

2. 개성의 문화유적 현황과 보존

개성지역은 현재의 개성특별시 일원으로 주변으로 북쪽의 금천군과 토산군이 자리하며 남쪽은 남한의 파주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개성지역 일대의 문화유산은 현재의 개성시가지를 중심으로 나성으로 둘러진 지역까지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으나 나성 바깥으로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개성 일대에는 약 148개소⁵⁾의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 개성특급시·개풍군·장풍군에 포함되어 있다. 148개소의 문화유적은 각각 무덤유적·정치국방유적·궁궐유적·불교관련유적·유교관련유적·기타유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⁶⁾

〈개성지역의 문화유적 현황〉								
구 분			무덤 유적	정치국방 유적	궁궐 유적	불교 유적	유교 유적	기타 유적
계		148	52	24	5	37	4	26
지정문화재	국보유적	26	2	4	1	13	2	4
	보존유적	82	33	13	4	15	2	15
비지정문화재		40	17	7	-	9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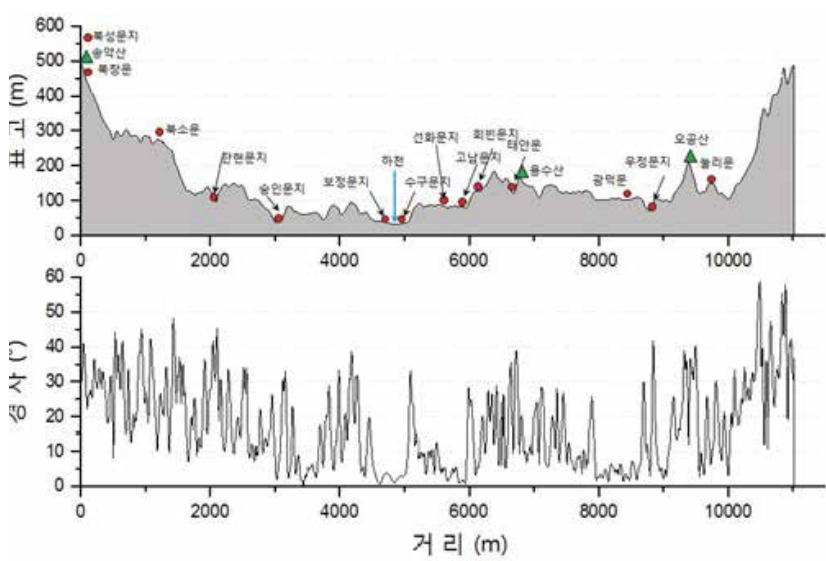
고려의 고등교육기관 성균관의 유네스코 안내판 및 설명문 (출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기록관)

개성지역은 평양과 더불어 각각 고구려와 고려의 수도였던 이유로 북한 내의 타 지역과 비교해 많은 문화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개성지역 문화유적의 특징은 무덤 유적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인데 이는 개성이 고려 500년의 기간 동안 수도로 사용되면서 왕족들의 능이 개성 일대에 지속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 당시의 국교였던 불교와 관련된 사찰 등의 유적들이 다수 분포하는 것은 고려시대 전체 기간 동안 왕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서 불교 관련 유적을 꾸준히 조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성곽을 비롯한 다양한 군사시설과 각기 다른 성격의 관청들의 조영으로 인한 관련 유적들의 분포 역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등은 개성 일대의 문화유적의 분포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의 건국이 개성에 위치하는 목청전(穆淸殿)에서 이루어지

는 등 조선 초까지 개성은 수도 혹은 그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며 꾸준히 사용되었다. 특히 태조 이성계에 의해 한양으로 천도한 후 수도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지만 정종(正宗)의 등극과 함께 개성은 다시금 조선의 수도로 정해져 이후 7년 동안 조선의 중심으로 기능하였다.⁷⁾ 이러한 이유로 개

성은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자리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역사적 연계성은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있어 고려에서 조선, 불교에서 유교로 전환되는 문화의 변화로 설명되기도 하였다.

개성지역은 고려의 수도로 북한 정권의 집중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문화재와 비교해 월등히 나은 관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성지역 문화재의 경우도 보편적 관점의 문화재 보존과 비교해 상당 부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려의 정궁(正宮)인 궁성(만월대)의 중심건축군 축대는 2011년 남북공동조사 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즉시 붕괴 위험’ 상황으로 판정된 바 있다. 또한 현재 고려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미 많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녀간 개성 성균관의 경우 성균관 건물을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성균관 건물 자체의 훼손이 우려됨은 물론 전시공간의 협소함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유물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개성 성균관의 복구와 신축 박물관의 건립 시 이러한 부분에서 국제 기준의 경험을 가진 남한의 전문가와 기술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공민왕릉은 고려 후기의 왕릉을 대표하며 조선왕릉 축조의 기준이 되고 있어 미적·역사적으로 높은 평



개성의 경사도 및 축선 단면

7) 조선의 제2대 왕인 정종은 새로운 도읍인 한양에서 1차 왕자의 난이라는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경험한 뒤 조선의 제2대 왕이 되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그는 태조에게 양위를 받은 뒤 구도(舊都)인 개경으로 다시 천도하였으며 후일 태종이 되는 동생 정안군에게 양위한 뒤에도 줄곧 개경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개성의 내성(內城) 남대문 인근을 중심으로 2차 왕자의 난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등 당시의 정세는 그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다. 고려의 수도 개경이 정종과 태종 재위 기간인 1399년부터 1405까지 동안 조선의 수도였다는 사실은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정종과 정안왕후의 능이 개경 주변에 위치하는 것은 개성으로 천도한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를 받고 있으나 일제강점기의 대규모 도굴로 인해 봉분 석재의 상당 부분이 파괴 또는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⁸⁾ 현재의 왕릉은 북한측의 상당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되나 파괴 부분을 시멘트 등으로 메우거나 접합해 놓아 향후 봉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개성관광이 다시 시작될 경우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이 유적을 방문하는 것을 예상한 보호조치와 이와 관련된 유적과 관람객 모두에게 안전한 관람설비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개성의 문화유적 보존과 남북협력사업

개성지역은 평양과 함께 고도(古都)로 인식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정권차원의 보존대상으로 지정되어 북한 내 타 지역의 문화유적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보존돼 왔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문화재 보존에 대한 열정만이 아닌 고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북한의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북한 내부의 기준으로 관리되던 개성지역의 유적들은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보다 강화된 기준의 보존 환경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이미 북한측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과정에서 명확해진 부분이다. 개성 성균관의 박물관 전용으로 인한 훼손 문제는 남한의 문화재 전문가를 비롯한 개성관광을 다녀온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새로운 박물관의 건립은 북한 내부의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롯하여 ICOMOS 측의 박물관 전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아진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에 새롭게 발표된「문화유산보호법」의 법령을 이행하기 위해 2013년 9월에는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침을 확정·승인⁹⁾하였다. 또한 ICOMOS의 평가서에서는 ‘개성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유적인 남대문 북서쪽의 한옥군락(통칭 ‘개성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한 법적 체계 속에서 엄격한 보호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 서술하고 있어 2013년 6월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개성지역 일대의 문화재와 관련된 보존과 조사 여건은 이전과는 다른 국제적 표준에 준하는 환경으로 일부 변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개성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계

8) 박성진, "우리 손으로 이어가는 고려의 흔백", 『통일한국』제351호(2013), 68~69쪽
북한의 자료에는 러일전쟁 시기 일제의 공민왕릉 도굴 기록이 나타난다. 일제는 도굴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화승총까지 들고 저항한 지역민들에 의해 실패를 거듭하였다고 한다. 결국 1905년 헌병대까지 동원, 화승총을 사용할 수 없는 우천을 틈타 도굴을 감행하였다. 도굴꾼들은 무덤의 입구를 찾을 수 없자 능의 뒷부분을 다이내마이트로 폭파 한 뒤 10여 대의 수레에 유물을 나눠 싣고 철수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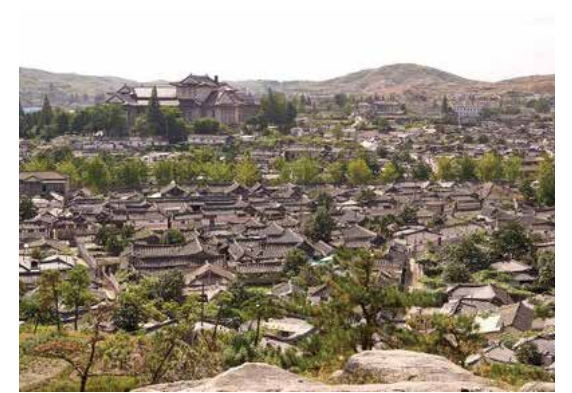
9)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DPR of Korea) No 1278rev, ICOMOS, 2013.

획하고 있는 국내의 단체 및 기관에서는 이러한 북한 내부의 문화재 관련 체계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준하는 보존과 조사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북한 내부의 문화재 관련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특히 향후 남북협력사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감안하여 개성일대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몇 가지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¹⁰⁾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유적 193건¹¹⁾이며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개성특별시의 경우 총 26건의 국보유적이 자리하고 있다.¹²⁾ 하지만 북한의 국보유적은 일부 우리의 문화재청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확인되고 있어 민간 주도의 협력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간의 문화재분야 교류와 협력이 가시화될 시점을 대비하여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문화재 분류기준안의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북한문화재 지정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문화재의 현황은 우리의 문화재청 역할을 하는 북한의 문화보존지도국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가 아닌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한 사업수행자들이 확보한 자료가 국내에 공개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물론 지금까지 남북간의 문화재 관련 사업들이 당국간에 추진된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이로 인한 남한 내부의 북한문화재 현황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문화재 현황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지정현황의 상이성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보유적 제7호로 확인되었던 보현사9층석탑의 경우 국보유적 제142호로 파악되기도 하였으며 국보유적 제38호 자모산성, 제161호 덕화리무덤,



개성한옥마을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10)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DPR of Korea) No 1278rev, ICOMOS, 2013.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3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개성역사유적지구’와 관련된 일련의 지침은 현재로서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ICOMOS의 평가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과 문화재 보존의 일반적 원칙들을 적용하였으며 향후 관련규정의 정확한 확인을 통해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11) 북한의 국보유적을 문화재청 유적분류기준으로 구분하면 주거유적 1건, 무덤유적 20건, 생산유적 4건, 정치국방유적 36건, 교통통신유적 3건, 종교신앙유적 32건, 제사유적 1건, 주거건축 23건, 관아건축 6건, 종교건축 1건, 불교건축 39건, 유교건축 9건, 비갈(碑碣) 11건, 거석기념물 4건, 동산문화재(공예) 3건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부 이러한 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확인 되는 등 향후 북한 지정문화재를 분류하는데 보다 세분화된 분류기준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국립문화재연구소『북한국보유적 연혁자료집』, (대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개성의 고려 광궁(만월대)터
(출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제162호 유점사종, 제177호 안양암마애삼존불상, 제178호 고성온정리마애불입상, 제184호 정릉사 8각7층석탑, 제188호 화성동제단, 제189호 삼성사, 제190호 용강큰무덤, 제191호 신계사, 제192호 영통사 등은 지정사항이 누락·미지정 되기도 하고 달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지의 지정표석이 국내에 알려진 지정번호와 상이한 것도 확인되었는데 국보유적 제144호로 확인되던 보현사8각13층석탑의 지정표석은 국보유적 제143호

로 표기되어 있으며 국보유적 제149호 묘향산 보현사비의 지정표석은 국보유적 제144호, 앞에서 언급하였던 국보유적 제7호 보현사9층석탑의 경우 지정표석은 국보유적 제142호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¹³⁾ 그리고 지정표석이 교체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는데 국보유적 제127호 개성성균관의 경우 지정표석에 지정고적 제234호라 표기되어 있어 지금까지 알려진 분류체계와는 다른 또 다른 분류체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⁴⁾ 이와 같은 다양하고 수많은 오류로 인해 관련 정책당국은 북한문화재 보존을 기획·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연구자들간에는 개인마다 다른 현황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학문적인 정체 혹은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당국과 연구자의 경우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여 업무와 연구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불분명한 북한문화재의 현황자료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종사자의 경우에는 북한문화재와 관련된 현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자료를 불신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대중의 경우 자칫 지금과 같은 북한문화재 현황을 접하고 북한문화재 전반에 대해 불신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향후 남북문화재교류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북한문화재 자체에 대한 허무주의적 관점을 양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자산인 북한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지역의 경우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유적과 유물의 현황을 공개하고 ‘개성역사유적지구’와 개성지역 일대의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통해 지정현황의 현행화와 지정표석을 비롯한 지정문화재 주변경관에 대한 개선사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개성역사유적지구남북공동보존계획’ 수립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관련 남북공동 학술대회와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 교환과 논의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나열한 다양한 제안들은 ‘개성역사유적지구 보존 남북공동위원회’¹⁵⁾의 구성으로 귀결된다. 또한 ‘남북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개성역사유적지구 남북공동연구센터’ 설립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공동연구센터’¹⁶⁾에서는 개성지역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수·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간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관련 문화재에 대한 보다 발전된 연구성과를 축적해 개성지역 문화재 보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다양한 현지 시설을 활용, 북한 내 문화재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 이후 개성지역을 비롯한 북한전역에 소재하는 문화재의 종합관리와 보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건축 분야에서의 조사와 보존·복원, 다양한 재질의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고



개성 문화유산 그림지도(출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13) 지정표석과 관련된 오류는 필자가 관련유적의 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였으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참고한 것이다.


14) 위에서 밝힌 다양한 문제점들은 남한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국보유적을 대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교가 가능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지역의 현장자료까지 모두 검토한다면 북한 국보유적의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지정문화재의 정확한 현황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은 원론적으로는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북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자료 확보 및 지정표석의 일치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5) 이후 ‘남북공동위원회’로 표기함

16) 이후 ‘남북공동연구센터’로 표기함

고학적 발굴조사의 다양한 최신 기법, 3D 스캐너를 활용한 문화재 정밀 개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과 기술전수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대한 남북 공통의 인식을 강화하여 앞으로 남북한 공통의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중장기적인 계획의 실행보다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금 당장 보존·복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화재들이다.

고려궁성은 고려 500년의 정궁(正宮)으로 경주의 월성, 평양의 안학궁, 조선의 경복궁과 그 맥을 같이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유적에 대한 굴착이 수반되는 발굴조사의 특성상 발굴조사의 중단으로 인한 유적의 파괴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고려궁성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는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남과 북이 함께 시작한 사업으로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조사와 보존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유적일 것이다. 또한 향후 개성관광의 재개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유적의 특성상 발굴조사와 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려성균관의 복구·복원, 공민왕릉 보존과 벽화 관람시설 설치, 개풍군에 위치한 조선왕릉인 후릉(厚陵)과 제릉(齊陵)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조사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가등재 등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만남과 교류의 장,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성¹⁾

백일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접촉지대와 개성공단

‘접촉 지대(Contact zone)’는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문화들 간의 접촉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메리 루이스 프랫(Mary Louise Pratt)과 폴 카터(Paul Carter)에 의해 고안되었다. 프랫은 접촉 지대에 대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리된 집단 혹은 개인이 서로 접촉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프랫의 연구는 주로 탐험가의 신대륙 개척 과정에서의 원주민과의 만남, 식민화를 위한 서구 열강의 군사적 점령에서 발생하는 이문화 충돌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 이러한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다루는 접촉지대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내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갈등과 협상의 과정이 상시 존재하는 곳이라 볼 수 있다.

접촉지대에서 발생하는 문화번역(Transculturation)은 두 집단 이상이 접촉하는 상황에서 상이한 문화에서 전달되는 의미들을 선택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화의 압력과 범주에 따라 그 영향을 강하게 받는 민족은 지배적인 문화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프랫 저, 김남혁 역, 2015). 접촉지대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들을 해석하는 것은 결손이라기보다는 생산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교류가 가진 파괴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접촉지대는 일종의 사회적 공간으로 이질적인 자아, 문화,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 갈등과 소통, 배제와 포섭 등과 같은 역동성이 발생하며, 경계의 재구성을

1) 본 기고문은 백일순. (2019).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적 특성 분석. 문화역사지리, 31(2), 76-93.의 원고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임

촉발시킨다. 공간으로서의 접촉지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작동한다(이우영, 구갑우 외, 2016). 이 공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문화적 차이에 대해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새롭게 구성된 경계들이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회적이거나 단선적인 방식으로 제한되지 않고 접촉의 빈도와 깊이에 따라 정교한 경계로 재구축된다.

개성공단을 접촉지대²⁾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접경지역 연구는 주로 ‘민족’을 중심으로 소속감을 가르고, 이웃 국가의 문화가 만나는 장소로서 접경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같이, 동일한 민족이 접합되는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르고, 나뉘는 것’을 강조하는 접경 개념보다 ‘접합되고 교차하는’ 접촉 개념이 더 적절하다. 구분을 위한 선(line)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내재한 면(surface), 즉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을 살펴보는 것은 접경 연구가 가진 문제를 보완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

둘째,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의 생산은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람, 물자, 생각, 제도 등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경계지역으로서 서로 맞닿는다는 수동적인 접촉이 아닌 가까이 대하고 사귄다는 능동적 접촉의 과정을 통해 개성공단의 공간 구조와 내용들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접촉지대 개념이 가지는 상호능동성, 변화 가능성은 개성공단의 공간적 형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접근이다.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은 일상적 삶의 실천에 강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물리적, 상징적 가치들의 유입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겪었다. 특히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는 개인, 지역 단위의 미시적인 공간 활동에 의해 재구조화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의 경험과 인식 변화들을 근거로 하여, 개연적, 역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이 다양한 실천으로 구성되며, 공간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 내부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그 형태와 의미가 매우 독특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개발과 새로운 접촉지대의 형성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도시 계획의 개발 계획안의 주체로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개발업자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사업 추진 계획안의 결정과 시행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발의 내용 역시 특정 지역에만 성장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균형발전, 북한 정권의 상징

경관의 우선 배치가 아닌 평화와 협력이 개성공단의 상징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개성공단은 접촉지대로서 도시 공간 구조의 형성과 기능, 배치 등의 설정에 있어 ‘남북한의 경제협력’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구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배후도시 개성과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각종 인프라의 개발 방식 역시 접촉지대로서 상호 협력과 조정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개성공단 조성 초기에 도로, 전력, 용수의 공급 등과 같은 인프라의 조성은 단순히 개성공단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개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남측의 인원과 물자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였다. 이로 인하여 남한의 선진화된 기술력을 통해 북한의 자원 효용성과 공간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남북경협³⁾의 공간적 효과는 산업단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확산되어 더 많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

개성공단 개발총계획에 따라 교통 계획은 가로망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며, 지구 내에서 격자형 가로체계를 도입하였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남북 연결도로를 계획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기존시가지와도 연결하도록 하였다. 대중교통 수단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탓에 근로자들은 대부분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도로를 재정비하였다(한국토지공사, 2009). 도로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제공한 출퇴근버스는 개성 주요 시가지의 아침 및 저녁 풍경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이동 흐름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동하였다.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이 도시 구조는 물론,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위양식 및 인식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한편 도로정비 과정에서 개성공단 외의 지역의 개발은 북한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으므로, 남한의 건설인력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 하였다. 때문에 개성공단을 넘어서 이루어졌던 도로 포장 공사는 북한에서 직접 시공하게 되었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015). 이러한 도로의 건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품질의 균질함을 보장해주지 못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남북한 체제와 운영 방침의 차이를 수용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연결도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성공단에서의 계획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되지 않았다. 합의서를 쓰는 과정에서부터 계획을 실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결렬과 협상을 반복하며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개성공단의 인프라 조성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접촉지대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즉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플랫폼이 말한 번역의 과정을 거쳐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었다고 해도 다시 재번역을 시도하는 무수한 시행착오의 결과로 공간이 구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조정과 협력의 과정은 개성공단을 넘어서는 공간의 연결을 만들어냈을

2) 본 연구에서는 접촉지대 개념이 가정하고 있는 권력의 불균등성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자전거 도로 및
출퇴근 버스 (출처: 개성공업
지구지원재단)

뿐만 아니라 북한 도시와 산업 단지의 연결로 국한되지 않고 남한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접촉지대의 계기들을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견고하게 구축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개성공단의 이식경관

개성공단은 산업단지로서의 경관 특성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개성공단 특유의 경관들이 형성되어 있다. 주요 건물들의 배치,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빈터, 도로 등의 연결망이 남한의 산업단지 계획과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개성공단의 공간적 특성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의 '이식 경관'이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산업단지

와 상당히 유사한 경관체계를 갖는데 이는 건물의 배치와 동선에 있어 한국의 제도와 경관 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 단지 조성 계획에서 산업단지의 공간배치는 위치, 규모, 유치업종, 배후도시의 유무등과 같은 단지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며, 생산, 주거, 휴식 등의 기능별 공간이 합리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생산기능 지역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주요 생산 공간과 연관 생산 공간의 합리적인 입지 선정으로 생산과정의 계열화, 협업화를 도모해야 한다(대한국토계획학회, 2014).

공간 생산의 방식이 '최대 효율, 최소 비용'이라는 목적 아래 개성공단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역시 공장용지는 적정 수요로 배분하여 업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배치하고 상업 및 지원시설용지를 단지 중앙부 선상으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이러한 산업 공간의 배치에는 북한의 법적,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제한된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남측의 산업단지 형태를 그대로 복제하였으며 일종의 '이식(移植) 경관'³⁾으로서 북한 도시 공간에 새로운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3) 이식 경관은 주로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경관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지배국가의 도시 계획의 실험 대상지인 식민지 지역에 효용성을 예측할 수 없는 도시계획들을 적용, 그것으로 인한 식민지의 생활양식 및 경관 변화를 분석한 식민도시 연구들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제시기에 경성에 도입되었던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같은 도시 계획들은 근대성이란 이름하에 식민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이식 경관들은 식민지 담론을 재생산하고, 도시 중심부를 차지하기 위한 일제의 의도를 재현하는데 활용되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이식경관의 의미는 식민이나 지배와 같은 위계적, 종속적 권력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상이한 체제가 중첩,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 남한의 산업단지 경관을 수용한 개성공단의 경관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도시 수출'⁴⁾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선진화된 기술과 과학적인 토지 구획 방식을 도입하여 제 3세계의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 세계에 도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산업 경관은 사회주의 이념을 전시하고,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높은 생산성, 효율성, 합리성에 기반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도 이식경관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개성공단의 기업 및 공공 기관의 건물 등은 남한의 산업 경관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곳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단 내, 외부의 가로망 체계를 보면, 개성공단과 개성시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성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간 사용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구역의 배치 목표는 일체화, 개방화,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근로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동선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가로변 저층부에 개방형 구조를 이용한 건물을 조성하고 주요 보행 동선 상에 녹지대 확보 및 공원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이동에 있어서 불필요한 건물과 마주치지 않도록 계획되었다(현대아산, 2005).

대부분의 기업, 공공 기관 등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이나 단독 공장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특히 개방형 구조를 통한 주요 도로변 저층부에 사무동이나 쇼룸 등의 공간 배치를 하도록 장려되었는데, 이는 초기 공단의 정착 단계 이후 폐쇄적 공단의 형성이 우범화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015).

이처럼 개성공단 내의 공간의 배치와 구성은 남한에서 사용되는 공간 계획과 건물의 배치 방식을 일부 혹은 전면 수용함으로써 북한의 도시 계획과는 다른 비(非)



열린 구조의 원칙이 적용된 공장 건물 (출처: 현대 아산)

4) '도시수출'에 대한 개념정의가 정리되어 있는 문헌은 아직 없으나, 한국형도시모델과 관련된 기업, 지자체들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서 해당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도시수출은 도시인프라, 주택, 교통정보망 등과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도시행정, 의료문화 등의 전문서비스, 생활양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국내 저개발지역이나 국외 도시의 개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개성공단의 공간 구성과 사용은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촉지대의 효과는 개성공단의 설립 결정과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남북협력이라는 추상적인 목표 아래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는 경제적 효용성이 개성공단의 시작이었지만, 실제 개성공단이 형성된 과정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실현 가능한 선택지를 결정하는 일들이었으며, 이는 남북한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접촉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개성공단의 현재, 접촉지대의 붕괴

2024년 현재, 남북한은 경쟁하듯이 남북한 협력사업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다. 북한은 운영이 중단된 남북협력 사업을 전부 철수하였고, 관련 합의서 및 법률을 폐지하였다. 남한 역시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던 관련 재단을 해산하고, 남북협력 대신 대북 도발에 대한 강경노선으로 선회하였다. 어렵게 만들어냈던 남북 간의 접촉지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상호 이해를 위한 접점이 만들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그 시점을 알지 못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평화, 상호협력, 상생의 가치를 가진 공간으로서 개성공단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였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생활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들(김진향 외, 2015)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경험의 차이에 놀라고 서로에게 적응하는 것이 쉽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다!

끝으로 접촉지대의 관점에서 개성공단의 공간 형성 과정을 되돌아보면,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갈등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가장 경직된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끊임없는 협상의 시간을 거쳐 공동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유연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새로이 정립해 나가야 할 남북 관계의 방향성에 있어 상호 관계에 대한 신뢰는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 포용적인 공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15, 개성공단 현황과 과제.

김진향, 강승환, 이용구, 김세라, 2015. 개성공단 사람들 :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 내일을여는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단지계획, 보성각.

메리 루이스 프랫 저, 김남혁 역, 2015, 제국의 시선 : 여행기와 문화횡단, 현실문화(Pratt, M. L. 1992,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Routledge.)

이우영, 구갑우, 양문수, 윤철기, 이수정, 2016, 분단된 마음 잇기 : 남북의 접촉지대, 사회평론 아카데미

한국토지공사, 2009, 개성공단개발사.

현대아산, 2005,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남북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친해졌나?

김유연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원)

개성공단 개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합의된 후 같은 해 8월 (주)현대 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착공된 후 15개의 기업이 시범단지에 입주하여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했던 개성공단은 2015년에 이르러 125개의 기업이 들어서고, 남북한 근로자 5만 5천여 명이 일했던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었다. 2013년에는 북한이 연초에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4월에 개성공단 입경을 차단하면서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160여 일이 지난 9월 16일 다시 운영되었고, 2016년 2월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였다.

필자는 2018년 대학원에서 통일교육 관련 강의를 듣다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연구 참여자를 만났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재개했던 2013년 말부터 2016년 2월 다시 폐쇄될 때까지 근무했던 이찬용(가명) 선생님은 통일교육 수업에서 직접 북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했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려주었다. 덕분에 그 수업은 이론보다 더 생생한 사례들로 채워질 수 있었다. 그때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많이 만나봤지만 한 번도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던 필자는 과연 스스로 북한 사람들, 정확히는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한국에 난민 혹은 이주민으로 입국하여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하지 않고 북한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간에는 분명 큰 차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도로의 모습(사진: 조선일보)

1) 이 글은 필자의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 「통일과 평화」 제12권 2호 (2020), 183~228쪽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이다.

이찬용 선생님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했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북한 사람들의 특성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이 그들과 관계 맺은 방식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북한 내에 남한 시스템이 도입된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에서 남북한 근로자들이 친해지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매일의 일상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라포(rapport)²⁾가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물론 모든 남측 근로자가 북측 근로자와 라포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는데, 필자는 의도적으로 북한 근로자들과 적대 관계나 얇은 관계만을 형성했던 사례는 배제하고, 관계형성 전략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남한 근로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총 다섯 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의 동기를 제공해준 첫 번째 연구 참여자 이찬용 선생님은 개성공단에서 약 2년 근무한 정부 관료였고, 두 번째 연구 참여자 남희진(가명) 선생님은 개성공단에서 생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직원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1년 동안 근무하였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 정원식(가명) 선생님은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6년 폐쇄될 때까지 한 입주기업의 법인장으로서 처음과 끝을 모두 경험한 “산 증인”이다. 네 번째 연구 참여자 박상필(가명) 선생님 또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개성공단에서 공공기관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마지막 연구 참여자 김재원(가명) 선생님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에서 필자가 포착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은 군인과 같은 행동, 강한 자존심, 잦은 거짓말, 남측에 대한 높은 관심, 개성공단 근무에 따른 행동 변화 다섯 가지였다.

“평생 직업군인인 사람들” – 이찬용, 남희진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지적인 예상치 못했던 북한 근로자의 특성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군인 같았다는 점이다. 이찬용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들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군대에 비유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모두 계급과 직업이 다른 “평생 직업군인”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일본의 북한 연구자 와다 하루키는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를 군대에 비유했다.³⁾ 그는 김일성 통치기에 북한은 김일성을 사령관으로 하여 전 인민이 받드는 ‘유격대국가’였고, 김정일로 넘어 와서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정규군이 모든 것의 모범이 된 ‘정규군국가’가

됐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관찰한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도 마치 모두가 군인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무조건 단체”로 행동하고, 둘째, 북한 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만 행동해야 하고, 셋째, 서로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상부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본래 북한의 공장은 공장당위원회회의 ‘집체적 영도’ 하에 당적 통제를 강화한 대안의 사업체계로 운영된다. 개성공단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지만 북측의 정부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공업지구관리기관 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 등을 담당하며 북한 근로자들을 통제한다.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산다” – 연구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과 접촉했던 남측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그들의 특성은 바로 ‘자존심’이다. “아무리 나라가 가난해도” 절대로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외부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박상필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뭐 없어가지고 돈 벌러 온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도와 달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러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사람들의 이러한 자존심은 북한의 핵심 사상인 주체사상으로부터 비롯된다. 1950년대 중반 처음 등장하여 1960년대까지 이론적으로 정비된 이후 주체사상은 계속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주체사상은 1960년대 말부터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유일사상체계로 확립되었고, 1980년대 말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붕괴되자 체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⁵⁾ 이렇게 북한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 주체사상 때문에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은 궁핍한 모습을 숨기고 계속 자기들의 나라가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야 했다.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들은 자존심이 센 북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직하면 바보다” – 위와 같이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전 인민을 군대화하여 통제하고 교육했다. 그러나 인민들은 고도의 통제사회 안에서도 살 길을 찾아냈다. 특히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때 배급제가 무너지고 이데올로기와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비공식 경제 영역인 장마당을 확장시켰고, 군인이나 보위부원과 같은 체제 부역자들은 자신들의 감시권



개성공단에서 북측의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출처: 현대일보)

2) 라포(rapport)는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개념으로, 원래 ‘다리를 놓다’라는 의미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밀접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프랑스어이다.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공감적인 인간관계 또는 그 친밀도, 특히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관계’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아닌 공감적인 인간관계와 친밀도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려고 한다.

3) 和田春樹 저,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서울: 돌베개, 2002).

4) 차문석·김지형, 『북한의 공장 및 노동 실태 분석』(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8), 29쪽, 114~116쪽.

5) 이종석,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과 한계: 유일체제의 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1995).



폐쇄 전 개성공단에서 근무 중인 북한 노동자들(사진: 더 스쿠프)

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기 시작했다.⁶⁾ 북한의 일상화된 부정부패는 부정직한 문화를 양산했고, 절도나 횡령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⁷⁾ 북한의 일상화된 감시체계는 “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김재원 선생님은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북측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지도그룹이 요청했던 근로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을 내보내서 티격태격했던 일이 “다반사”였다고 했다. 또

한 엄격한 처벌제도 역시 책임 회피의 문화를 낳는다. 이찬용 선생님은 북측의 가장 큰 문제를 “뭔가 잘못되면 자기네들 입장을 싹 바꿔버리고 책임을 안”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사람들』에서도 실수를 숨기려는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북측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면 ‘크게 다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 자체를 숨기려고 한다.⁸⁾

“민족의 소원이 통일인데” – 남북의 근로자들은 서로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다. 비교적 정보 공유가 자유로운 남측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안팎에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접하지만, 북측 근로자들은 공식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는 외부 소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대하여 더 강한 호기심을 나타낸다. 북한 사람들 사이의 한류 확산으로 촉발된 남측에 대한 관심 내지 인식 변화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⁹⁾ 이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한류 콘텐츠를 통해 남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동경하게 됨으로써 남한 문화를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경제적·문화적 풍요를 알게 되었을 때의 감정은 단순히 동경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 남희진 선생님은 한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북측 근로자들의 상실감, 시기심을 관찰했다. 이찬용 선생님은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측 하고 뭔가 같이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측 근로자들은 그들이 남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남한 사람들도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했고, 남희진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자 화를 냈다. 그

는 “관심 가진 대상이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으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컬러풀한 걸로 점점 선호를 바꾸니까” – 이찬용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이 “우리나라 옛날 모습” 같다고 말했다. 외모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인 문화나 장유유서 문화가 강해 산업화 시기인 1960~70년대 한국 사람들을 연상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12년 동안 운영되면서 그동안 북측 근로자들의 외모, 남녀평등사상, 언어, 경제 개념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모에서 두드러진다. 이찬용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들의 근무복이 “컬러풀한 걸로 점점 선호를 바꾸니까” 처음에는 어두운 색 위주였다가 갈수록 밝아졌다고 한다. 두 번째로 가부장적인 문화에도 약간의 개선은 있었다. 북측 근로자들이 처음에는 여성 관리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여성 관리들의 업무 능력을 인정해주었다고 한다. 세 번째 변화는 언어 측면인데,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말도 섞였다. 같은 한국말이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 북측의 말투가 거칠어서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했으나, 서로가 익숙해지면서 언어에 혼용이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경제 개념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개성공단 사업의 목적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상호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북측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도 포함된다면, 북측 근로자의 변화된 특성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자본주의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측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다섯 가지 관계형성 전략은 ‘인내하기’, ‘이해하기’, ‘선물 주기’, ‘부딪치기’, ‘신뢰 얻기’이다.

인내하기: “처음에는 듣는 쪽으로” – 북측 근로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먼저 인내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북한 근로자의 특성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도 “왜?”라고 묻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남측 근로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신의 생활세계를 벗어나 북한 속 남한인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익숙한 소통방식을 수정하고 그곳의 문법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북측의 문화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북측 근로자들이 빠르게 파악한다. 김재원 선생님은 남측 근로자가 남북 간 경제적 우열을 가리며 “자본력이 있으면 그게 곧 힘이고, 그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들이 말하는 북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전략은 “인내하기”이다. (그림: 갓파를 닷컴)

6) 이근영, “북한의 부패에 관한 연구 - 부패유형 변화와 제도적 원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87쪽; 조동호·박지연, “북한 뇌물공여 확산의 게임이론적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0권 2호 (2014), 187~231쪽.

7) 임수홍, “북한에서의 경제적 규범의 변화와 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8) 김진향 외 공저, 『개성공단 사람들』, 145~146쪽.

9)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물 시청: ‘하위문화(Subculture)’의 형성과 함의,” 『북한학보』 제36집 1호 (2011), 75~108쪽; 이용희, “북한 내 한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2014), 151~191쪽; 안지연·최현주, “북한사회 내 한류콘텐츠를 통한 남한사회 인식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8권 1호 (2018), 107~114쪽.



2004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일명 '통일냄비'를 구매하기 위해 소공동 롯데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사진: 중앙일보)

문화주의적 태도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서 북측 근로자들의 행동을 파악해야 하지만 동시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性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군인처럼 지침이 내려오면 갑자기 돌변하고, 때로는 부정직한 행동을 자행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북측 근로자들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온 남측 근로자들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찬용 선생님은 그들 행동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지 않고 구조에서 찾았다. 개인이 잘못된 것은 없지만 “경제 상황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 폐쇄돼있고” 그러다보니 마주하게 되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북측 근로자의 행동을 파악할 때 남한의 규범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선물 주기: “그 사람들 있는 공간에 잘 가져다 놓고” - 북측 근로자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는 철저하게 남측 근로자들 각자의 선택의 문제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측 근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선물 전달이었다. 이찬용, 남희진, 정원식, 박상필 선생님은 북측 근로자들을 도와주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적절한 선물을 전달했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소소한 선물을 받기도 했다. 북측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특정 근로자에게만 드러나게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정원식은 북측 근로자들에게 대량으로 사탕을 사다 줬는데, 일주일도 지나도 창고에만 쌓아둬서 책임자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열 개면 열 개, 다 가야 되고, 아홉 개면 아홉 개 짝 가야” 하는데, 몇 천 개 되는 사탕 개수를 셀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북측 근로자들은 결국 반나절 동안 사탕 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배분했다고 한다. 사회주의 배급체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성공단에서는 남북한 근로자 간 선물을 교환하는 데도 은밀하면서 공평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생각”을 가지고 북측 근로자들에게 “우리 방식을 강요”하면 갈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간 통일이 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려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우월감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해하기: “우리도 그랬잖아요” - 북측 근로자와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깊이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호

부딪치기: “세계 하면은 인정을 해줘요” - 북측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인내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이찬용 선생님에게는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가 있었다. 북측에서 이찬용 선생님이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을 덮어씌우려고 했을 때, 그는 북측 사무실에 들어가서 따졌다. “추방당할 각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행동임에도 흥미로운 것은 북측에서 오히려 이찬용을 인정해주고 사과했다는 것이다. 박상필 선생님도 북측 근로자들에게 불만이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고 말했다. 말을 너무 심하게 했거나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했을 경우 항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측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못하고 북측의 총국을 통해 총원해야 하는데,¹⁰⁾ 정원식 선생님은 인사권과 생산 주권에 대해 “그걸 놓치면 다 놓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리고 싸웠다고 한다. 물론 북측에서도 상황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을 때에만 강하게 대응하거나 거래를 제안하는 전략이 통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전략일 것이다.

신뢰 얻기: “저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 - 위에 서술한 경험들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결국 북측 근로자들과 “특별한 프렌드십”을 쌓았다. 이찬용 선생님은 라포가 형성된 근로자와는 서로에 대한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했고, 남희진 선생님도 일부 근로자와 “눈빛으로 얘기하는 정도의 친밀감”을 쌓았다고 표현하며 북측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를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가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관계라고 정의했다. 모든 이의 언행이 시시각각 관찰되고 보고되는 개성공단에서 남북 근로자 간 친밀한 관계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것은 제도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개성공단 사람들』에는 북측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남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지 판단 기준 세 가지가 등장한다. 첫째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남측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친하다는 느낌이나 뉘앙스”가 생기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이 많아야 한다. 북측 근로자들은 ‘정이 무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강직하고 정의감이 강해야 한다. 정원식 선생님은 신뢰를 얻으려면 작은 일에도 “한결같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년 동안 자신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킨 일을 소개하며 북한 사람들로 부터 듣기 힘들다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받았다고 자랑했다.

개성공단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북측 근로자들과 친해지기 위해 사용했던 관계형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들이 말하는 북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마지막 전략은 “신뢰 얻기”이다.

10) 차문석·김지형, 『북한의 공장 및 노동 실태 분석』, 123쪽.

성 전략들은 어쩌면 종교의 자유가 낮은 국가들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체득하고 있는 전략들과 유사할지 모르겠다. 북한 근로자들의 특성은 일상적인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과 닮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남한 근로자들 중에는 북한 근로자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질적인 특성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북한 사람들의 교류는 75년 이상 중단된 세월만큼 서로 달라져 왔기에 그러한 이질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하다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세워졌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폭파되었고,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상황에서 남북교류가 언제 재개될지 요원한 상황이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북녘 땅의 동포들을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개성의 교회를 찾아서

1. 남감리회 선교사들의 내한과 개성선교의 시작

1) 남감리회 선교사들의 내한과 개성선교의 시작

미국 남감리회의 조선선교는 기존에 진행되던 남감리회 중국선교부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1886년 남감리회의 『The methodist Review』라는 잡지에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이라는 글이 실렸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남감리회가 조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조선선교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남감리회의 중국 선교부에서는 1890년대에 들어 중국 남부에 한정되어 있던 선교지를 북부로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북부 선교지 개척을 위한 실질적 답사가 시작되던 시기 중국에 있던 남감리회 본부로 윤치호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그 편지에 대해 당시 중국에 머무른 지 15년이 되었으며 이후 한국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 리드(Clarence F. Reid)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한국으로부터 아주 급한 요청서가 날아왔는데, 개성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건혁이 보낸 것이었다. 이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한 윤치호는 국왕을 위해 봉사하고 있던 교육부 차관이었다. 때도 때려니와 상황도 적절하여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결정적인 섭리처럼 느껴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국으로) 탐사여행을 시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나와 헨드릭스(E. R. Hendrix)감독이 1895년 10월 13일 상하이로 출발하였다.¹⁾

편지에 등장하는 이건혁은 개성의 실력자로 윤치호의 이모부였으며, 윤치호는

1) C. F. Reid, “Superintendnt’s Report”, Minutes of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1897), Ⅲ.를 이덕주 외 『한국 감리교 역사』 p. 67 에서 재인용



윤치호는 오랜 망명과 유학 생활을 거치고 조선으로 돌아온 직후 자신이 과거에 유학했던 상해의 미션스쿨인 중서서원(中西書院)의 알렌(Young John Allen) 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리드의 조선방문을 요청한 것이었다.

당시 조정의 학부참의로서 고종의 신임을 받는 관리였다. 윤치호는 오랜 망명과 유학 생활을 거치고 조선으로 돌아온 직후 자신이 과거에 유학했던 상해의 미션스쿨인 중서서원(中西書院)의 알렌(Young John Allen) 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리드의 조선방문을 요청한 것이었다. 윤치호는 같은 내용의 편지를 당시 남감리회에서 중국 남부를 관할하던 헨드릭스 감독과 미국 에모리대학의 캔들러(Warren Akin Candler) 학장에게도 보냈다.

윤치호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한 리드와 헨드릭스 선교사는 이미 조선에 정착한 미감리회, 장로교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고 알렌 선교사의 주선으로 고종을 알현했다. 조선에 먼저와 있던 선교사들과 조선의 조정은 남감리회 방문단에게 시종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헨드릭스와 리드는 미감리회 선교사 스크랜턴의 주선으로 남송현(현재의 소공동)에 선교부지를 구입하고 중국으로 돌아간다.²⁾ 이후 리드는 1896년 5월 28일 조선에 돌아와 정착한다. 윤치호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Nicolai II)의 대관식에 러시아특명전권대사 민영환(閔泳煥)의 수행원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공무를 마치고 상해에서 6개월을 선교사들과 함께 보낸 후 1897년 한국 선교사로 임명된 콜리어(Charles T. Collyer) 선교사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같은 해 중국에서 사역하던 여성 선교사 캠벨(Josephine P. Cambell)이 중국인 전도부인 여도라(余慈度)와 함께 조선에 들어와 정착한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이미 10년 이상의 사역 경험이 있는 선교사들이었다. 또한 조선에 이미 십여 년 전에 들어와 정착한 미감리회 선교사들의 전폭적 도움이 있었으므로 이들은 조선 입국 후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방위적 사역을 시작한다.

애초에 남감리회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오게 된 것은 개성의 유력자 이견혁의 부탁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한한 선교사들도 조선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선교사들을 초대한 윤치호 또한 외부협판으로 당시 일어났던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수습과 정치현안에 집중하느라 선교활동을 전폭적으로 도울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감리회 선교사들은 미감리회의 스크랜턴이 보내준 김흥순과 김주현을 앞세워 1896년 고양군 선교를 시작하여 1897년 5월 2일에 고양읍교회를 설립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고양읍을 중심으로 하여 개성을 방문하고 파주와 연천에 대한 선교에 열심을 내어 개성, 파주, 연천에서도 결신자가 생기기 시작한다. 1897년 11월 15일 콜리어 선교사 부부는 개성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지현(山芝峴) 언덕에 선교부지를 마련하여 정착하는데, 당시 이미 개성에는 많은 결신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정착한 산지현에는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살던 삼포막(蔘

圃幕)이 여러 채 있었고 콜리어는 삼포막의 일부를 구입하여 주택과 예배장소로 활용했다.

이 집은 후일 “기관 어머니”(Mother of Institution)로 불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집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관들(진료소, 학교 등)이 생겼기 때문이다. 후에 북부교회가 되는 개성교회가 삼포막에서 생겼으며, 윤치호에 의해 세워진 교육기관인 한영서원(韓英書院)과 남성병원(南星病院)도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모두 이 삼포막에서 시작되었다.

1897년 6월 20일 남감리회의 두 번째 교회가 서울 남송현 선교부에 설립된 이후 9월 10일에 있었던 남감리회 제1회 조선 지방회에서는 선교구역을 서울과 개성 두 곳으로 나누었다. 12월 8일에 있었던 연회의 보고에 의하면 개성구역에는 2개의 교회³⁾에 47명의 성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개성의 교인 중 9명이 학습 교인이었는데, 그중에는 매우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1898년에는 이후 원산대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하디(Robert Alexander Hardie)가 남감리회 개성지역의 의료선교사로, 하인즈(F. Hinds)가 여성사역 담당자로 임명된다.

서울과 개성을 중심으로 남감리회의 선교사역이 확대되던 중 리드 선교사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생긴다. 리드 선교사의 아내인 매리(Mary Reid)의 건강이 악화되어 리드 가족은 1899년 미국으로 귀국했으며 하디는 리드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서울로 임지를 옮기게 된다. 매리는 결국 1901년 5월 미국에서 숨을 거둔다. 아내의 소천 후 리드는 한국으로 돌아와 연회를 주재한 후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리드 가문의 조선선교는 끝나지 않았다. 리드는 중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로 활약했던 경험을 살려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여 동양인들에 대한 사역을 이어간다. 그는 1904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 교회와 일본인 교회를 설립하였고, 1906년에는 조선인교회를 설립하고 양주삼 목사와 함께 『대도』라는 월간지를 발행하였다. 한편 리드의 아들 윌트먼 리드(Wightman T. Reid)는 1907년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여 개성에 남성병원(南星病院)을 설립하였다. 윌트먼 리드는 1909년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100만인 구령운동을 주도하였고 20년간 개성에서 의료선교사로 사역하였다.

남감리회의 개성선교 개척기에 설립된 교회는 북부교회(예배당교회)와 남부교회(남문교회)가 있다. 1901년 콜리어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개성에는 두 개의 교회



개성의 삼포와 삼포막 (참고: 나무뉴스)

2) 이덕주 외 『한국 감리교 역사』 pp. 66-72

3) 당시의 교회는 정식으로 설립된 교회가 아니고 기도처 혹은 기도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성 시내에 있던 교회의 위치, Google Map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참고: “재산목록” 조선 감리회 9회(1938년) 연회록 부록,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 195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는 열매를 맺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우선 여자교인들의 숫자가 매우 많고 또한 그들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⁴⁾

북부교회는 하다가 개성을 떠난 후 1902년 크램(Cram, Willard Gliden) 선교사가 개성에 파송되기까지 두 명의 여성선교사 하인즈(F. Hinds)와 캐롤(Carroll Arrena)이 교회를 이끌었다. 두 여성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사역에서 큰 진보를 보였다. 두 사람은 오히려 남부교회의 사역도 도왔다. 콜리어가 시작하여 1899년 설립한 남문교회는 개성의 첫 교회로 1900년도에 이미 매주 주일에 배 출석인원이 43명 이상이 되었고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여성사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부교회의 여성사역을 위해 북부교회의 하인즈가 일 년간 매주 화요일 여성 집회를 인도하며 남부교회의 여성사역 또한 활성화될 수 있었다.

2) 초기 남감리회 사역의 활성화

남감리회 선교부가 여타 교단에 비하여 뒤늦게 조선에 진출했음에도 초기에 사

가 있었다. 그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송도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부교회이고 또 하나는 북부교회인데 북부교회는 옛 수도였던 이 도시의 목사관(Parsonage lot)이 위치한 곳에 있고 남부교회는 도시 바깥에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약 6만 가량이 됩니다……. 북부교회는 남자교인들 쪽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지만 여자성도들 쪽은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하인즈와 캐롤이 이곳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고가 이제

역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세 가지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유력자 윤치호의 지원이다. 윤치호는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여 영어공부에 몰두하였고 1883년 주한 미국 공사 푸트(L. H. Foote)가 내한할 때 통역관으로 함께 귀국하였다. 그는 갑신정변 이후 개화파에 대한 숙청 시 상하이로 망명하여 선교사들이 설립한 중서서원(中西書院)에서 유학을 하던 중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아 남감리회의 교인이 되었다. 이후 미국의 밴더빌트대학 신학과와 예모리대학에서 6년 간 유학을 마치고 모교인 상해 중서서원에서 1년 반 동안 교수로 봉직한 후 1895년 조선으로 귀국한다. 귀국 직후 그는 조선의 학부참의로 임명되었고 승진을 거듭하여 외부협판, 학부협판 등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다. 윤치호는 출세의 가도에 들어섬과 동시에 상해 중서서원 교장 알렌에게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북부진출을 추진하던 남감리회의 중국선교부는 윤치호의 요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리드 선교사와 헨드릭스 감독의 내한 후 첫 계획은 윤치호의 이모부이자 개성지역의 유지인 이견혁을 만나는 것이었다. 이들 선교사들이 방문하던 당시 윤치호는 외부참의로서 당시 일어났던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수습하느라 선교사들과 함께 개성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1년 후 직접 선교사들과 개성을 방문하여 사역을 돕는다. 그밖에도 1897년 고양읍 교회가 설립될 때 윤치호가 현금한 30원으로 예배당으로 쓸 건물을 구입한 일, 공무로 유럽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해에 들러 조선의 두 번째 남감리회 선교사인 콜리어 선교사를 대동하여 귀국한 일 등 윤치호는 13년 차 남감리회 교인으로 남감리회의 조선 개척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는 여타 선교회에서 주로 젊은 신입선교사들에 의해 조선 개척이 이루어졌다면 남감리회 선교사들은 경력 선교사들을 주축으로 개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조선에 처음 입국한 남감리회 선교사 리드는 이미 중국 남부에서 15년간의 사역 경력이 있는 베테랑 선교사였다. 당시 중국에서 리드의 활동에 대해 동료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개성 시내에 있던 교회의 위치, Google Map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참고: “재산목록” 조선 감리회 9회(1938년) 연회록 부록,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 195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4) C. T. Collyer, MAMMECS, 1901을 김진형, 『초기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887-1910』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p. 299에서 재인용

한 선교사가 일하는 사람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성공적 사역의 원인 뿐만 아니라 결과라고 한다면 분명 리드 박사님은 유능한 사역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를 존경하지 않는 중국인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⁵⁾



고양교회(고양읍교회) 100주년 기념비. 기념비에는 리드, 윤치호, 김주현, 김홍순 등 남감리회 초기 주요 인물의 이름이 모두 담겨있다.

경받았으며 그녀가 내한할 때 상해에서 본인이 중국에서 전도하여 양녀로 삼은 여도라와 함께 입국하였다. 여도라는 중국에서부터 양어머니 캠벨을 도와 사역을 충실하게 이어온 젊은 전도부인이다. 그는 중서서원 의학부 1회 졸업생으로 영국유학을 앞두고 있었으나, 캠벨이 급작스레 조선으로 임지를 옮기게 되자 캠벨과 함께 내한하여 6년간 배화학당과 자골교회(자골교회는 성장을 거듭하여 자교교회와 종교교회로 분립 됨) 의 사역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선교사들은 이미 중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동양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역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된 채로 조선에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윤치호의 중국인 부인 마애방(馬愛芳)도 선교사는 아니었으나 오랜 기간 훈련된 성도로서 남송현교회의 주일학교를 지도하는 등 남감리회의 조선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셋째는 조선인 교인과 전도인들을 앞세운 선교 전략이다. 조선의 첫 남감리회 선교사들은 과거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현지인 사역자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 리드가 조선에 들어와 사역을 시작할 때, 미감리회 소속선교사 스크랜턴이 보내준 조선인 성도 김주현과 김홍순은 각각 리드의 어학 교사와 권서인의 역할을 하며 리드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 캠벨 부인도 스크랜턴 부인을 통해 조선인 여성도인 김사라를 소개받아 사역의 초기부터 긴밀한 동역을 이어갔다. 이후 남감리회의 첫 교회인 고양읍교회가 선교사 입국 1년 만에 설립된 것도 모두 김홍순, 김주현 등 조

선인 전도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고양읍교회 창립주일에 세례를 받은 이들 중 시각장애인이었던 백사겸은 또 다른 조선인 사역자로 성공적인 사역을 펼친 인물이다. 점술가로 많은 재산이 있었던 백사겸은 예수를 믿은 후 점술로 번 돈을 불의한 재물로 여겨 모두 친구에게 준 후 전도자로 헌신하여 많은 결신자를 얻었고 “맹인 전도자”, “조선의 삭개오”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장단군(남북으로 나뉘어 북쪽은 장풍군의 일부가 되고 남쪽은 파주시의 일부가 됨) 이장포(현재 DMZ내 파주시 해마루촌 부근)로부터 시작하여 장단군 전역에 교회를 세웠다. 그의 아들 백남석은 윤치호가 개성에 세운 한영서원을 졸업하고 연희전문을 거쳐 윤치호의 주선으로 미국의 에모리대학(Emory University)을 졸업하고 조선에 돌아와 연희전문 의 영문과 교수가 되었다.

2. 남감리회를 통한 개성의 부흥과 발전

1) 남감리회의 중심지가 된 개성

1898년 서울에서 있었던 남감리회의 2차 선교회에서는 송도에 보다 총력을 기울일 계획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토의를 벌였다. 그 이유는 윌슨(Wilson, Alpheus Waters) 감독이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 때문이었다. “우리는 서울에서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 인구 많은 구역의 중심지인 송도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곳은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곳 가운데 하나이며 선교사업의 결실을 약속해 주는 곳이다.”⁷⁾ 선교사들이 개성 사역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00년대에 들어 개성은 남감리회 선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일반적으로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서울에서 적응기간을 거치곤 했는데, 남감리회의 선교사들은 개성에서 어학공부와 적응기간을 거치고 서울, 원산, 춘천 등으로 파송될 정도였다. 개성의 부흥과 함께 조선남감리회는 1906년 중국선교연회에서 독립하여 독립선교부를 이룰 수 있었다. 1908년에는 서울, 개성, 원산의 지방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 가장 큰 지방은 개성이었다. 1910년 남감리회의 통계를 보면 전체 선교사 39명 중 15명이 개성에서 사역을 이어갔는데, 이는 서울 7명, 원산 6명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이다. 조선인 목회자도 총 177명 중 58명이 개성지역에서 목회를 했고, 이 역시 서울과 원산을 합친 47명보다 많은 수치였다.⁸⁾ 개성은 명실공히 조선 남감리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5)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Board of Mission, Annual Report,” 1921. p. 30을 Charles D. Stokes, 『미국 감리교회의 한국선교 역사』(서울: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p. 129에서 재인용.

6) Charles D. Stokes, 『미국 감리교회의 한국선교 역사』 p. 130.

7) C. A. Sauer, 『은자의 나라 문에서: 감리교 한국선교 50주년 기념자료』(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p. 57.

8) “Statistics”, Annual Report of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1910)을 이덕주 외 『한국감리교회역사』 p. 104에서 재인용.

	서울	수구문	지경터	개성북	개성남	개성동	이천(강원)
선교사	4	3	0	8	5	2	0
현지인	23	18	8	26	17	15	11
교인수	911	386	1,013	1,282	1,594	1,382	1,061

표2 1910년 남감리회 한국선교연회에 보고된 서울·경기지역 교세 통계, “Statistics”, Annual Report of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1910)을 이덕주 외 『한국감리교회역사』 p. 104에서 인용한 것을 참고하여 정리.

2) 개성의 교육사역과 여성사역

1898년 해외여성교회의 파송을 받은 하인즈(F. Hinds)는 12월에 조선에 도착한 직후 개성으로 향하여 콜리어 부인의 사역을 도와 여학교를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899년 캐롤(A. Carroll)이 개성의 여성사역에 합류하였다. 개성 사람들은 서양 여인들의 외모를 매우 신기하게 여겼는데, 이들의 보고서를 보면 한 해동안 이들을 보러 3,718명이 방문할 정도였다. 1902년에는 “4월 초파일에 찾아온 866명의 여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도 지난 여섯 달 동안 평균 16명의 방문자가 매일 우리 집에 왔고, 그들은 복음을 어느 정도 들을 정도로 충분히 머물렀다.”⁹⁾고 전한다. 1904년에는 엘라수 와그너(Ellasue C. Wagner, 1881-1957)가 내한하여 개성에 정착한다. 서양 여성들을 보기 위한 조선 여성들의 방문은 수년간 계속 이어져 하루에 2-3개의 여성 그룹이 여성교사들의 자택을 방문하면 엘라수 와그너가 한국인 전도부인의 도움을 받아 2층 양옥을 안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콜리어 부인, 하인즈, 캐롤, 와그너 네 명의 여성은 1904년 12월 12명의 여학생들을 데리고 기숙학교를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 남감리회의 선교정책과 연관이 있는데 남감리회는 조선에 있는 세 곳의 선교기지 서울, 원산, 개성에 각각 여성기숙학교를 건립하였다. 서울에는 1898년 배화학교, 1903년에는 원산의 루시여학교가 개교하였고 1년 후 개성에도 여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개성에서 시작된 여학교의 특이한 점은 이 학교는 조선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개성의 기독교인들은 1904년 여름부터 학교를 열 계획을 세우고 한국인 교사를 위한 월급을 넉 달 동안 미리 모아놓고 개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라수 와그너가 개성에 정착하자 바로 여학교를 시작했다. 조선인들의 후원과 요청으로 시작된 개성의 여학교는 성도들이 편드를 조성해 식비의 절반과 한국인 교사의 월급을 후원했다. 당시 남감리회의 선교가 시작된 지 채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선교적으로 매우 자립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1913년 12월 개성 북부교회에서 호수돈여숙 제1회 졸업식에서는 1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첫 졸업생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로도 호수돈여숙 졸업생의 대다수는 개성과 그 주변



엘라수 와그너는 1904년 내한하여 194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을 떠나기까지 호수돈여숙을 위해 헌신했다.

도시의 소학교 교사가 되었다.

1909년 미국의 홀스텐(Holston)연회는 개성에 세워진 여학교의 소식을 듣고 헌금을 보내 건물을 짓게 하였는데 개성의 여학교는 헌금을 보내준 연회의 이름을 따서 호수돈여숙(好壽敦女塾)이라 이름을 붙였다. 호수돈여학교의 상징적인 인물은 엘라수 와그너이다. 그는 조선입국 직후 개성에 정착하여 여학교 부를 하며 호수돈여학교의 개교에 동참한 것으로 1940년 일제에 의해 추방되기까지 호수돈여학교에 온 삶을 바치며 그녀가 호수돈여학교를 부르는 애칭은 “내 첫사랑(my first love)”이었다. 호수돈여고는 1919년 3.1운동 개성지역의 주도세력이었다. 3월 3일 만세시위에 불이 붙자 엘라수 와그너 교장은 만세시위현장에 출동한 일본인 군수 야마사키(山崎)를 붙잡고 “오늘 이 여학생들의 거사에 대한 책임은 교장인 나에게 있으니 나를 구속하고 학생들을 모두 돌려보내 달라”고 애원하였다. 학생들은 교장을 말리고 교장은 자신이 잡혀가겠다고 실랑이하는 와중에 감동을 받은 야마사키 군수가 시위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개성에서의 3.1운동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었다. 호수돈여숙은 6.25로 개성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자 1953년 대전에서 호수돈여자중학교와 호수돈여자고등학교로 재개교한다.

1906년 크램 부인(W. G. Cram)은 윤치호와 송도의 양씨부인이라는 사람의 재촉을 받고 기혼여성과 미망인을 위한 미리흠(Mary Helm)여학교를 개교하였다. 기혼여성을 위한 학교의 특성상, 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도 바느질, 개인위생 등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미리흠 여학교의 졸업생 중 상당수가 당시 남감리회가 세운 초등학교의 교사로 채용되었다.

1922년 5월 남감리회 여성교부는 개성의 여성사역을 위해 고려여자관을 설립하였다. 고려여자관은 사회복음센터로서 10-16세 소녀들을 위한 오전반과 16세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저녁반으로 구분되었으며 바느질, 요리, 음악과 노래, 성경공부, 개인 전도사업, 베이비 클리닉(baby clinic), 공중보건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중 베이비 클리닉은 한 달에 한 번씩 아기를 데려와 아기의 체중과 성장, 건강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으며 위생적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였다. 진료소에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건물 1층에는 50명의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 운영되었다. 개성의 외곽지역 마을에는 ‘글방’을 개설하여 여성들에게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글방 교사 봉급의 3분의 1은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고려여자관은 사회복음센터로서 10-16세 소녀들을 위한 오전반과 16세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저녁반으로 구분되었으며 바느질, 요리, 공중보건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9) C. A. Sauer, 『은자의 나라 문에서: 감리교 한국선교 50주년 기념자료』 p. 58.



1907년 목총을 든 한영서원 학생들, 한영서원에서는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사진에는 십자가와 태극기도 보인다. (홍성사 제공)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윤치호는 공직에서 물러나 개성으로 내려와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한다. 윤치호가 3,000원을 지원하여 개성에 있는 콜리어의 삼포막에서 1906년 10월 시작한 교육기관이 한영서원(韓英書院)이다. 한영서원은 국한문을 통달한 15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세워졌다. 첫째 14명을 시작으로 1908년에는 225명으로 확대되어 대지 120평에 3층의 석조건물을 세워

이전하였다. 한영서원은 인문교육과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소학과 4년, 영어전수와 2년, 고등과 3년, 반공과(半工科) 3년 과정이 있었다. 한영서원은 이름을 송도고보로 개칭하였고 이후 일제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1917년 송도고등보통학교로 변경되어 운영되었으나, 미션스쿨로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6.25가 끝난 후 개성이 북한의 치하에 놓이게 되며 남한의 인천으로 이전하여 송도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으며 송도고보가 쓰던 개성의 건물은 개성 체육대학이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다. 송도고보 출신으로는 북한정권 초기 경제의 기틀을 놓은 정준택, 부산복음병원(현 고신대병원) 설립자 장기려 등이 있다.

3) 개성의 20만인 구령운동과 조선의 100만인 구령운동



개성의 20만명 구령운동을 주도했던 젊은 선교사들 (왼쪽부터) 갬블, 리드, 스톱스 (한국기독교사연구소 제공)

1903년 원산대부흥의 주역 하디는 남감리회에 소속된 선교사였다. 그는 본래 캐나다대학생 선교회의 파송으로 조선에 왔으나 조선사역 7년차에 접어들 무렵 남감리회로 소속을 옮겼다. 소속을 옮긴 하디는 개성지역 의료선교사로 임명되었고 이후 원산구역의 지경대로 사역지를 옮겨 사역을 이어가던 중 대부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원산부흥은 불과 얼마 전까지 하디의 사역지이자, 친밀한 동역자들이 남아 있는 도시 개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04년 2월 26일부터 10일 동안 개성의 남부교회에서는 하디의 인도로 부흥회가 열렸는데, 당시 부흥회에는 개성의 교인들은 물론 주변 지역의 교인들까지 모여 들었다.

원산부흥과 평양대부흥이 지나간 이후 개성의 젊은 선교사들은 산기도에 열심을 내며 선교사들 사이에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스톱스(Marion B. Stokes), 갬블(Forster K Gamble), 리드(W. T. Reid, 조선의 첫 남감리회 선교사 리드의 아들)가 있었다. 다음은 당시 스톱스 선교사의 연회 보고이다.

지난 1년 동안 영적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도 지난 7월 개성에서 1주일간 열린 기도회를 통해 가장 놀라운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이 기도회에 참석하여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 이든 그것을 받기까지 기도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고 곧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곧바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돕고 있는 한국인 조사모두와 다른 구역에 있는 상당수 사역자들이 깨끗케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능력과 봉사하는 자세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바입니다.¹⁰⁾

은혜를 받은 스톱스는 다른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 “현재 5천명인 개성의 교인이 1년 후 5만 명이 되도록 힘쓰자.”고 독려했다. 세 명의 선교사들은 8월에 개성의 각 지방을 돌며 전도집회를 열었으며 그 중 리드(W. T. Reid)는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연회에서 개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령운동에 대해 보고하며 조선의 전 남감리회가 동참하기를 호소했다. 이 보고를 접한 연회는 당시 2만명에 이르던 교인수를 고려하여 20만명을 목표로 구령운동을 결의했다. 이는 바로 다음 달인 10월 전 교단으로 확대된다. 10월에 서울 황성기독교청년회관에서 있었던 복음주의선교연합공의회에 모인 6개 선교회 선교사들은 개성에서 일어난 5만인 구령운동의 소식을 듣고 “금년에 백만명을 그리스도에게로”(One Million Souls for Christ in Korea this Year)라는 표어로 백만인 구령운동이 시작되었다. 백만인 구령운동은 기대했던 것과 같은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1907년 대부흥 이후 침체된 한국교회의 상황과 한일강제병합의 스산한 정국에서 한국교회에 기도의 열정을 이어가게 한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연보(捐補)와 성미(誠米)를 통한 교회의 자립

크럼의 보고서를 보면 1904년 즈음 새로 들어온 성도들의 대다수는 종류층의 상인들로 교회의 모든 재정적 요청에 적극적인 헌금으로 답했다고 말한다. 당시 교회에 등록된 이 중 최대근이라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고위관료에게 큰 돈을 빼앗긴 후 당시 개성의 양대인(洋大人, 서양사람들을 조정의 고위관료와 같이 높여 보던 문화를 빗대어 서양사람들을 이르는 말)들과 개성의 실력자 이건혁의 힘을 이용

10) M. B. Stoke, “Report of Songdo East, and E Chun Circuit”, Annual Report of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1), 32를 이덕주 외 『한국감리교회역사』 p. 133에서 재인용



오랜 기간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성미(誠米) 문화는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해 복수를 하고자 교회에 등록했다. 그러나 그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신앙으로 변화를 받고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았으며 오히려 “관찰사가 부당하게 내 돈 50달러를 빼앗아 갔지만 나는 그 덕분에 예수를 찾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50달러를 더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¹¹⁾라고 고백했다.

오랜 기간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구제와 목회자들에게 대한 복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성미(誠米)도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1903년 개성의 여성도들이 목

회자를 돕기 위해 3달러 30센트를 모았는데 그들이 돈을 모은 방법을 크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들은 식구들의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숟갈씩 퍼서 따로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성별하여 마귀에게 바쳤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나서부터 최소한 하나님을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고 생각되어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숟갈씩 퍼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순회하는 사역자를 위한 보조금으로 보냈답니다.”¹²⁾ 이들의 이러한 헌신은 개성의 다른 지역으로 전해져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남감리회 선교구역을 넘어 전 조선교회로 확대되어 성미(誠米, The Lord's Pot)의 문화로 자리잡는다.

개성교회의 자립 상황은 1904년에 있었던 북부교회 건축에서 드러난다. 당시 북부교회의 건축을 위해 북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남부교회 성도들도 헌금에 동참했다. 당시 개성에서 사역하던 하보(Sadie Harbaugh, 1875-1928) 선교사는 자신도 한국 성도들이 낸 헌금을 합친 것과 같은 금액을 헌금하기로 다짐하며 성도들의 헌금을 독려했는데, 당시 건축헌금으로 모인 금액이 무려 880달러 37센트나 되었다.

5) 일제 말 개성 감리교회의 현황과 개성의 교회들

개성의 교회는 발전을 계속한다. 1939년 연회의 보고에 따르면 개성지방 교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본 지방은 신장단, 장단, 풍덕, 광덕, 백천남, 백천, 동문내, 북부, 중앙 남한 10구역으로 조직되었는데, 교회수는 25처요 기도처가 27개소요 교인총수는 2,673인이요 남녀교역자수는 24인이요 남녀선교사는 13인과 본처

11) W. G. Cram, MAMMECS, 1904를 김진형, 『초기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887-1910』 p. 311에서 재인용.

12) W. G. Cram, MAMMECS, 1904를 김진형, 『초기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887-1910』 p. 312에서 재인용.



목사가 2인 본처전도사 32인이외다.

2. 기관사업 - 고려여자관, 중앙회관, 남성병원, 송도중학교, 송도심상소학교, 호수돈고등여학교, 호수돈여자심상소학교, 미리흠여학교, 창동학교, 유아원 10개소, 남녀서당 11개소가 있어 사업이 발전되고 있습니다.¹³⁾

1920-30년대로 추정되는 개성 시내사진. 중앙회관은 감리회 개성사역의 중심지로 중앙교회가 위치했으며 고려여자관은 감리회 개성 여성사역의 중심지였다. (사진: 인천투데이, 손장원)

1930년 9월 미감리회와 남감리회의 조선선교부가 합병을 결의하여 서울 정동교회에서 연합회를 개최한 후 12월 합병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조선감리교는 하나가 되어 서부, 중부, 동부의 3개 연회로 재편되었고 합병 후 첫 합동연회는 1931년 6월 개성에서 열렸다. 이 연회는 조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총리사가 된 양주삼 목사가 주재하는 연회로 조선감리교의 역대 최대 행사였다. 개성의 모든 거리마다 환영 간판이 걸리고 호수돈여학교와 미리흠여학교에서는 바자회가 열렸으며 구세의원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연회원들에게 무료로 의료 편의를 제공했다. 당시 합동연회를 주관한 교회가 개성북부교회이다. 개성북부교회는 주로 개성지방의 감리사가 담임을 맡은 교회로, 1914년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1923년 기준 입교인수가 516명에 달하며 매 주일예배에는 65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한다.

남부교회는 개성의 첫 교회로 1898년 9월에 남감리회의 개성선교가 시작된 곳이다. 남부교회의 담임 교역자는 한영서원의 책임도 함께 맡곤 했다. 1925년에는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남산교회를 흡수한다. 1923년 기준 입교인은 210명이었고 주일예배에는 평균 250명 정도가 출석했다.

중앙교회는 1923년 12월 건축된 남감리회 개성선교부의 중앙회관 안에 위치한 교회이다. 중앙회관은 남감리회 개성선교부의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 세워진 건물로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중앙회관의 운영을 겸했다. 중앙교회는 중앙회관이 세워

13) 『기독교조선감리회 제7회 동부, 중부, 서부연회 회록』 1939, pp. 140-142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 172에서 재인용.

지기 전부터 건물 자리에 있었는데 중앙회관이 세워지며 주변의 동부교회를 병합하였다. 1923년 기준 세례교인이 148명 있었다.

동문안교회는 1923년 기준 세례교인이 107명이었고 주일에배에는 200명 이상이 출석하나, 아직 예배당을 갖추지 못한 교회였다.

위에 언급한 교회 외에도 개성의 외곽과 근교에는 신장단구역의 장단교회와 고랑포교회, 광덕구역의 망포교회, 벽난파교회, 장추동교회 등의 주요 교회들이 있었다.

3. 성결교와 구세군의 개성선교



구세신문 1912년 2월 16일에 실린 각 지역 책임사관 명단. 1912년에 로드 정위가 신의주로 옮겨가고 험쓰 정위가 개성에 부임했다. (구세군 사관 대학원 대학교 제공)

동양선교회(지금의 성결교)는 1909년 5월 강태온 전도사와 김두엽 전도사를 개성에 파송하여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다. 두 전도사를 비롯하여 이명직, 이명헌 등의 훌륭한 전도인들과 리수검, 허순성 등의 여전도인들을 거치며 10년 이상 이어졌으나 1922년 30여 명의 성도를 남감리회에 양여하며 전도관을 폐쇄하였다. 이 시기 헤슬롭(Heslop)선교사 부부가 개성에서 인도한 사경회를 통해 개성의 동양선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1917년 부흥회를 통해 8명이 회심하였으며 뒤이어 있었던 특별집회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전도되었고 그중 6명이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1932년 성서학원을 갓 졸업한 이창선 전도사가 시내 중심의 동본정에 자리를 잡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듬해에 부흥회를 열었다. 1933년 2월초에 열린 부흥회에서는 수많은 병고침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1934년에는 예배당을 건축하기에 이른다. 이창선 전도사의 뒤를 이어 1936년 개성교회에 부임한 박형규 목사는 1940년 예배당을 신축하며 사역에 열심을 내었으나 결국 1943년 12월 29일 일제에 의해 성결교회가 해산당함과 동시에 개성교회도 문을 닫게 된다.¹⁴⁾

개성에는 구세군 영문(구세군은 교회를 영문이라 함)도 있었다. 1908년 호가드(Robert Hoggard) 정령 일행이 북본정에 지방영을 개영하여 1940년 일제에 의해

폐쇄되기까지 총 29명의 사관이 봉사했으며 원당 영문에는 1912년에서 1921년까지 8명의 사관이 거쳐 갔다. 개성지방의 첫 책임자는 로드(Herbert Arthur Lord, 1889-1972) 정위였는데, 그는 구세군의 한국선교 초창기 개성과 신의주에서 사역을 마친 후 조선 구세군 사관학교장, 말레이시아 사령관을 거쳐 영국으로 귀환했으나 해방 후 한국의 사령관으로 임명받아 재입국했다. 6.25 전쟁 때 서울에 남아 구세군을 지키던 중 북한군에 의해 피랍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은퇴 후 1959년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허정 서울시장으로부터 6.25전쟁 시 서울시민에게 베푼 선행에 대한 감사장을 받는다. 그 밖에 피익수 부관이 개성에서 사역했고 1912년에는 험쓰 정위를 책임자로 성재현, 윤명옥 참위가 1913년에는 설보덕(Brigadier Charles E. Sylvester) 정위를 책임자로 김병도 참위와 오철선 부위도 개성에 부임했다. 호가드는 1908년 조선에 부임하여 1916년 대장으로 진급하여 조선을 떠나기까지 조선 구세군의 총사령관으로 사역을 했는데 호가드(허가두) 정령의 부인은 개성을 방문하여 여러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10년 5월 12일 개성구세군 병사(성도)의 자녀가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호가드 정령의 부인이 화상을 입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극진히 보살피 개성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송도는 구세군의 경기북부와 황해도를 총괄하는 기지였고 호가드 정령의 부인은 개성을 중심으로 황해도 금천군, 평산군, 해주군을 다니며 사역을 하였다. 1915년에는 해주지방이 개성지방에서 분리된다.

4. 해방 후 현재까지 개성의 교회

1) 개성의 그루터기 신자들

개성은 북중국경과 거리가 멀고 통제구역이라는 특성상 탈북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개성지역에 대한 비공식 정보들은 타지역에 비해 외부로 많이 전해지지 않으며 신앙 관련 소식들도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선교사들이 발표한 회고록, 도서, 그리고 필자가 개인적으로 만난 탈북민과 조선족 사역자들을 통한 해방 후 북한 지하교회 관련 소식들은 다음과 같다.

강석진에 의하면 그는 2003년 중국에서 북한선교사역을 하던 중 동역자를 통해 한국 목사에게 관심을 보이는 북한 내부의 주민 소식을 듣고 자신의 여권을 복사해 준다. 북한에서 강목사의 여권을 받아 본 북한주민은 한국목사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편지를 보낸다. 편지에는 그가 개성 출신으로 3대째 기독교인이며, 목사였던 그의 할아버지가 물려준 성경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편지의 봉투에는 고려기독교 ○○교회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안에 계시는 성도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태초에 천지를

14) ‘북한지역 성결교회 이야기(2)’, 성결신문, 2021. 04. 14.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278>, 검색일: 2024. 03. 02)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은혁씨 (유튜브 주성하TV 화면캡처)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어 주신 편지를 ○○○ 선생님을 통하여 받는 순간 지난 성도님을 만난 것과 같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만세 전부터 택하사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아무런 환난과 질

병 없이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큰 재앙을 받고 있는 북조선 땅에서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속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잠자는 신도들이 깨어 일어나 찬미 소리가 꽃동산에 울려 퍼지며 사랑과 평화로운 사회로 신부 단장하는 시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남은 생애에 단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¹⁵⁾

황해남도 도보위부에서 지도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서해바다를 8시간 동안 헤엄쳐 탈북한 이철은 씨는 보위부 재직 당시 알게 된 사실을 몇몇 선교단체의 간증과 개인방송에서 전했다. 그 중 유명한 사건은 황해도 연안군 창덕교회의 김○○ 목사 사건이 있다. 김목사는 개성, 평남, 평양, 함남에 6개교회 34명의 성도를 양육하고 있었다. 김목사의 사역은 2007년 발각되어 2012년까지 조사가 이어졌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김목사는 성도들을 한 번에 모이게 한 적이 거의 없다. 한두명이 모이고 본인이 직접 가거나 성도들이 와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2012년 12월 25일 성탄절 성도들이 다 모이게 되었는데, 평양시 청어동에 있는 국가보위부 특수기동대 인원 40명이 총동원돼 연안군 창덕리를 포위하고, 김목사를 비롯한 34명은 체포되어 일부는 처형되고 일부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러나 김목사와 협력한 조직과 김목사를 지원한 조직은 발각되지 않았다.¹⁶⁾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조선족 사업가 최○○씨는 북한내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성 출신의 북한지하교회 성도를 접촉한 경험이 있다. 함경도 모 지역에서 교제를 나누었으며, 개성출신 성도의 요구로 신앙관련 물품을 전해준 후 자연스레 교제가 끊겼다.¹⁷⁾ 개성출신 탈북민 ○○○씨는 개성에 거주하던 시기 기독교

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주로 남한에 친척을 두거나 남쪽과 자주 왕래하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 배경의 사람이 많았다. 자남동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으며, 1990년대 초반 사시리라는 마을 주변에서 기독교인들이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다.¹⁸⁾ ○○○씨 이외에도 개성의 주민들은 (교과서에서 교육받는 내용 이외의) 기독교에 대해서 타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욱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2) 개성공단 기독교인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중 신원 에벤에셀의 창업주 박성철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다. 신원 에벤에셀은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 준공하는 공장마다 교회를 세웠고, 공장의 전 직원들은 월요일에 직원 예배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회사이다. 2004년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한 신원그룹은 2005년 7월 시범단지 공장 건물 3층에 기도처소의 용도로 작은 예배당을 세웠고, 2006년 11월 30일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예배당 헌당예배에 남측 기독교계 지도자 약 40여 명이 초청을 받아 첫 기독교 공식예배가 드려진 이후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까지 예배가 이어졌다.

첫 개성공단 응급진료소 사업자로 지정된 그린닥터스병원은 ‘개성공업지구 협력 병원’을 설치해 2005년 1월부터 남한 의료인들이 함께 진료를 시작했다. 이 병원의 경비 조달 등 운영은 전적으로 남측의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그린닥터스에서 주도했고, 처음에는 응급진료소 형태의 작은 규모로 출범했으나 2007년부터 ‘그린닥터스 남북협력병원’으로 확대해 개성공단의 중심병원 역할을 했다. 특히, 이곳을 통해 4세대 항생제 등 최신 의약품들이 개성시 등으로 지원돼 남북의료 협력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2005년 1월 개원하여 2012년 12월 문을 닫기까지 8년 동안 북한 근로자 30만 명을 포함해 모두 35만여 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을 무료진료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밖에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 『개성공단 사람들』, 개성공단 병원에서 근무한 김명애



개성공단교회는 2016년 3층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2007년 경에는 매주일 700~800명 가량의 남측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사진: 통일뉴스)



개성공단의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201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개성공단 내에서 무료진료를 이어갔다.(사진: 통일뉴스)

18) 개성 출신 탈북민 ○○○와의 인터뷰(일시:202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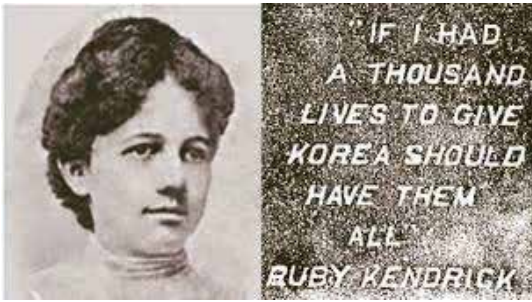
15) 강석진, 『근현대사로 읽는 북한지하교회사』 (서울: 쿰란출판사, 2020) pp. 251, 252.

16) 주성하TV 이철은씨 인터뷰(https://www.youtube.com/watch?v=zivvbGh5_5I, 검색일: 2024. 03. 01)

17) 조선족 사업가 최○○과의 인터뷰(일시: 2019. 03)

교수의 간증을 비롯한 개성공단 관련 자료들을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이 북한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지원하여 근무했음을 알 수 있다.

5. 개성의 순교자들



루비 켄드릭(Kendrick, Ruby Rachel)과 그의 묘비, 루비 켄드릭은 1907년 내한하여 개성 남부교회에서 사역하였으나 개성에 정착한지 9개월 만에 스물넷의 나이에 과로로 사망하였다. 그는 생전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건 모두 한국의 것이다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라는 말을 남겼다.

루비 켄드릭(Kendrick, Ruby Rachel, 1883-1908)은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하여 1905년 캔자스 여자성경학교를 졸업한 직후 선교사를 자원한다. 이후 2년간의 준비 끝에 1907년 9월, 텍사스 엡윗청년회의 후원을 받아 남감리회 선교사로 내한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개성으로 이주하여 개성남부교회의 매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켄드릭은 아침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쳤으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다. 스물넷의 젊은 여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씩씩하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는 당시 조선의 어린이들이 학교로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교사와 공간의 부족에 대한 보고를 전한다. “지난해에 이 학교는 세 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등록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 학교는 60명의 등록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사로는 남자 한 명과 그의 부인으로 두 명입니다.....그러나 겨우 교실 두 개와 교사 두 명이라는 상황 아래서 학교 사역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¹⁹⁾ 결국 그녀는 1908년 6월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과로로 사망했다. (켄드릭의 묘비에는 1908년 8월 15일 사망한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그녀의 장례예배는 1908년 6월 21일, 허스트 박사 집에서 송도 선교사 왓슨 목사 집례로 거행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속했던 텍사스 엡윗청년회에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건 모두 한국의 것이다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녀가 순교한 후 이 편지는 유명해져 많은 미국 청년들이 한국 선교에 참여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크램(Cram, Willard Gliden, 1875-1969)은 1902년 결혼 직후 한국에 파송되어 개성의 사역을 총괄하였고 이후 한국 남감리회를 이끌던 중 1922년 본국으로 돌아가 남감리회 본부의 지도자가 된 인물이다. 그는 개성에 정착하여 첫 아들 뉴튼(Newton)을 낳았는데, 뉴튼은 1900년대 개성에 정착한 여선교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 MK)였다. 개성에서 사역한 여선교사 엘

라수 와그너의 회고록을 보면 개성에 정착한 캐롤과 와그너는 선교사역 초기 언어 공부와 적응문제로 스트레스를 겪을 때 뉴튼과 함께 놀며 아이의 밝고 행복한 웃음에 큰 위안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²⁰⁾ 그런 뉴튼이 엘라수 와그너 부임 3개월 만에 죽음을 맞게 된다. 엘라수 와그너는 크램 부부를 도와 뉴튼을 양화진 외국인묘역에 매장하는 전 과정에 함께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선교사의 비통함, 그리고 이러한 슬픔을 함께 감내했던 선교사 공동체에 깊은 감동을 받고 선교의 소명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된다.

1909년-1910년 말까지 개성 북부교회에서 사역했던 신석구 목사는 이후 주로 강원도지역에서 사역을 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해방 후 공산치하 남포의 문애리교회에서 시무 중 정치보위부에 끌려가 1950년 10월에 평양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규 목사는 1900년 12월 1일 개풍군에서 출생했다. 1917년 개성의 송도고보를 졸업한 후 전도인의 길에 접어들어 192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개성 남성병원 원목, 개성 남부교회 담임목회자로 사역을 하였으며 1946년에는 개성지방의 감리사를 역임했다. 1950년 7월 개성감화원 원장으로 취임 후 정치보위부에 검거되어 행방불명이 되었다.

공산정권 수립 이후 평양에 성화신학교를 설립한 배덕영 목사도 개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1901년 개성에 인접한 파주군 조리면에서 출생하여 1921년 개성 송도고보를 졸업한 그는 1928년부터 3년 간 개성 중앙전도회관 총무로 시무하며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방 후 공산당이 권력을 잡은 평양에서 성화신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1949년 성탄절을 앞두고 체포되어 1950년 10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만 목사는 1894년 개풍군에서 출생하여 1916년 개성의 한영서원을 졸업하고 광덕, 토산 등 개성 주변지역에서 사역을 했다. 1927년 이후 원산으로 임지를 옮겨 원산구세병원 원목, 통천 구역장 등을 거쳐 강원동교구장으로 사역하던 중 해방을 맞았고 6.25 당시 인민군에게 피랍되었다.

이인구 목사는 1885년 장단군에서 출생하여 1910년-1912년 개성 한영서원에서 수학한 후 강원도 이천, 황해도 토산 등 개성 주변에서 사역했다. 해방 후 평천지방에서 목회를 하던 중 공산당원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이 되었다.

개성 고량포교회의 염윤희 전도사는 1950년 후퇴하는 인민군에게 남편과 함께 피살되었고, 개성북부교회의 노영애 권사도 1950년 7월 공산당에 의해 살해당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중 한 명인 신석구 목사는 개성 주변 고량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개성 북부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공산정권 수립 이후에도 남포에 남아서 목회를 하던 중 정치보위부에 끌려가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19) WEC Report, 1915를 김진형, 『수난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9) p. 317에서 재인용

20) E. C. Wagner, Korea Calls: Pioneer Days in the Land of Morning Calm, 28, 29, 36-39를 김성은 “한말 일제시기 엘라수 와그너의 한국여성교육과 사회복지사업,” p. 124, 125 에서 재인용.

나가며

개성은 조선의 기독교 초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잘 준비된 도시였다. 조정의 유력자인 윤치호와 개성의 유력자이자 윤치호의 외삼촌인 이건혁은 남감리회의 개성선교사역에 있어 확고한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윤치호의 요청으로 조선에 내한한 선교사 리드, 콜리어 등은 모두 중국에서 10년 이상을 사역한 준비된 사역자들로서 그들의 사역은 개성에서 꽃을 피우고 가장 큰 결실을 맺었다. 그 과정에서 젊은 여성선교사 루비 캔드릭과, 크램 선교사의 아들로 선교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뉴튼과 같은 귀한 이들의 삶이 바쳐진 땅이다. 조선인 유력자들의 후원과 남감리회의 젊은 선교사들의 열정이 합쳐져 탄생한 호수돈여학교와 송도고보는 수많은 개성의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 인재를 배출했다. 또한 개성에서 시작된 “성미” 문화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구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찾아온 해방 이후 5년간 개성은 교회 재건의 시도가 한창 이루어질 즈음 6.25전쟁을 맞이한다. 북한의 다른 지역들은 6.25전쟁 초기 많은 성도들이 월남의 길을 택했지만, 개성은 원래 남한에 속했으므로 남과 북이 오르고 내려가는 “통일전쟁”의 여파 속에 월남의 물결이 가장 늦게 들이닥쳐, 수많은 성도들은 미처 월남하지 못하고 개성에 남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개성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독교에 대해 더욱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 박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비율이 높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2004년 개성공단의 가동을 놓치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책들과 논문에 나오는 수많은 인터뷰를 보면 북한 주민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애정과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신원그룹의 주도로 개성공단 내에 만들어진 개성공단 교회는, 2004년 공장의 한구석에 마련되었던 예배당이 2006년 3000석 규모의 정식 예배당으로 발전하였다. 주일마다 남측 근로자들의 예배가 드려졌으며, 2007년경에는 매주 700~800명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 교회는 남한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림으로 남한사회에 남북교류와 통일선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가장 잘 준비된 조선의 성도들과 해외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땅, 수많은 성도들이 월남하지 않고 남아 남쪽과 하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땅,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땅을 밟으며 북한주민들과 교류하며 기도했던 땅 개성을 기억하며 그 헌신과 기도의 열매가 다시 맺히길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와 윤치호의 모범촌 구상

강명숙 (역사학 박사)

1. 윤치호는 왜 모범촌을 구상하였을까?

10여 년의 유학과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윤치호는 1895년부터 정부의 관리로, 러시아와 프랑스를 여행하고 돌아온 1897년부터는 독립협회의 지도자로, 독립협회가 해산된 1899년 이후에는 지방관리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이후에는 남감리교 선교와 YMCA 활동으로 조선의 근대화 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런데 윤치호는 귀국 직후부터 개성에 남감리교 선교본부를 두어 개화운동의 구심점으로 만들려 하였다. 이것은 개성 상인들과 같이 개화운동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그전부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윤치호가 파트너로 선택한 개성 상인들은 윤치호의 개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에 명민하여 윤치호를 이용한 이권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정작 윤치호가 요구하는 근대적 사업에는 거리를 두었다. 윤치호가 소극적인 개성 상인과 함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 모범촌이었다.¹⁾

당시 일제는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화폐개혁으로 조선 경제를 장악하였으며, 1907년에는 조선 개혁의 총화인 조선의 군대를 해산하였다. 윤치호는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아 조선의 독립을 지키려 하였는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구현된 것이 모범촌이었다.²⁾ 하지만 윤치호의 모범촌은 외관상으로는 한영서원 설립과 교육에 그쳐서 연구자들은 종교 교육 정도로 이해하고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을 살피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윤치호가 구상한 모범촌은 근대가 이루어야 할 경제적 산업화와 더불어 시민의식이 숨 쉬는 근대 도시의 모델로 윤치호 개화사상의 요체였다. 그러나 그것은 궁



애모리대학 시절의 윤치호

1) 강명숙, “윤치호와 미국 남감리교 선교”, 『사학연구』 124호, (한국사학회, 2016), 153-156쪽

2) 김소희, “윤치호의 조선독립보전방안 연구: 모범촌 구상(1906-1910)을 중심으로”. (이대 석사, 2006)

극적 목적은 아니고 조선의 독립을 이루는 통로이며 말 그대로 모델이었다. 윤치호는 모범촌 운영으로 근대화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려던 것이었다. 모범촌을 통해 근대화를 신속하게 이해시키고 근대화를 추진하여 조선의 독립을 지키려 한 것이었다.

모범촌은 남감리교의 개혁 사상을 남감리교 선교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얻어 신속하게 전개하려던 노력이었다. 윤치호가 유학한 미국 남부지역은 산업혁명이 가파르게 진행된 독점자본주의 사회와는 동떨어진 농업 중심의 보수적인 사회였다. 게다가 남북전쟁의 패배로 회복 불능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먼저 전쟁으로 극심하게 파괴되어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 지역이었다. 다음은 노예제가 폐지되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곳이었다. 그다음은 전쟁 패배로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여 남부에 필요한 지원책을 실시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 지역으로 근대 기술이 부족한 곳이었다. 미국 남부는 ‘재건 시기(1865-1877)’ 이후에도 조선과 같이 근대적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보수적인 농업사회였다. 미국 남부는 전쟁 패배를 극복하고 근대적 산업 사회로 나아갈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과 미국 남부는 지역적 차이에서 오는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봉건적 인종적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근대적 산업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남감리교의 선교는 조선 사회에 필요한 것이었고 윤치호의 남감리교 선교는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든 것이었다. 남감리교 선교사들과 그들의 지원을 얻어 농업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 윤치호의 조선의 근대화 방법이었고 모범촌의 실현이었다. 그러므로 남감리교의 개혁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모범촌에 적용하려 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미국 남부의 농업개혁 방법

가. 미국 남부의 혼합농업

밴더빌트 대학이 있던 미국 남부는 유럽인들의 대규모 이민으로 채워진 곳이었다. 유럽에서 온 농민들은 새로운 환금작물 재배에 몰두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향의 혼합농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혼합농업은 교통의 발달로 자금을 넘어 근대적 시장생산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윤치호는 밴더빌트 대학에 다니던 시절 ‘컬리오카’에서 미국의 혼합농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벼농사 위주의 조선 농업을 개혁하려는 희망을 품은 것 같다.

혼합농업에서 주목받은 것은 옥수수 재배와 가축과 가금류를 기르는 목축이었다. 당시 미국은 식량(밀, 귀리) 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곡물 가격이 하락하므로

농민들은 생활에 허덕이고 있었다.³⁾ 그런데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재배하는 옥수수는 식량과 사료 모두 쓰일 수 있는 곡물이었다. 옥수수로 소와 돼지는 물론 가금류까지 사육하면 식량에서부터 우유와 달걀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농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윤치호가 개성에 옥수수를 심은 것은⁴⁾ 조선에 혼합농업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축산업은 옥수수 재배로만 이룰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었다. 여러 기술과 시설이 필요한 산업이어서 제대로 시작할 수 없었다. 윤치호는 축산업 도모를 위해 선교사를 요청하였으나 조선의 축산업을 도와줄 선교사는 없었다. 윤치호는 매타들 영선(永善, 1896-1988)을 미국 오하이오 대학에 보냈고,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자 송고실업장을 만들어 축산업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악랄한 방해로 사업화에 실패하였다.

윤치호는 과수와 채소의 재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윤치호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과수와 채소재배가 폭발적으로 발전하였다. 동시에 육종산업도 발전하여 농작물의 품종개량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면화 가격 하락과 토지가의 상승으로 면화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면화 재배지들은 과수원과 목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과수원의 증가는 때마침 이루어진 철도 부설에 힘입어 식품산업(통조림)의 발전으로 연결되었다.

옥수수 재배를 이용한 혼합농업은 환금작물(면화, 담배)의 집중 재배(지속적인 단일 작물 재배)로 망가진 토지와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과정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었다. 혼합농업으로 농민들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환금성을 높였고, 출하 시기의 쏠림현상도 유통 기술의 발달을 채용하여 극복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빠르게 적용한 혼합농업은 미국 남부 농가의 경제력을 향상시켰다.

윤치호는 귀국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축산과 과수 채소 재배를 권장하여⁵⁾ 벼농사 위주의 조선 농업을 개혁하려 하였다. 이것은 조선 시장에 새로운 농업 제품을 공급하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 경제의 규모(자본의 유통)를 확대하려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농업개혁을 통해 조선의 시장과 유통을 확장하여 자본주의 성장의 기반을 닦으려는 것이었다.

3)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제3당(The Third, 인민당)’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4) 김영희, 『좌옹 윤치호선생약전』, (좌옹윤치호문화사업위원회, 1999), 288-289쪽

5) “점심 식사 후 윤 씨의 과수원을 방문했다. 윤 씨는 1만 5,000평 되는 자기 과수원에서 9,000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유지비 지출이 4,000원이니 순이익이 5,000원인 셈이다. 윤 씨는 내가 1902년에서 1904년까지 원산에 있을 때 내 제안으로 과수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이 뿌듯하다.” 『윤치호 일기』, 1923. 8. 16.



터스키기 기술학교가 벌인 흑인 예방접종사업의 모습

나. 터스키기 학교의 농업개혁과 농산물 가공 산업

노예제 폐지로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양성하려는 에모리 대학의 흑인학교 설립 운동은 남부 전체로 전파되었다. 미국 남부의 교회들은 노예제 폐지로 어려움을 겪는 남부 농민들을 위해 흑인들과 협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

흑인학교들이 설립되면서 두각을 나타낸 곳은 햄프턴 기술학교(Hampton Institutes) 출신 부커 워싱턴(Booker T. Washington, 1856-1915)이 키운 터스키기 기술학교(Tuskegee Institute)였다. 교장 부커 워싱턴은 1895년 애틀랜타 연설로 흑백 인종 간의 타협을 주장하여 흑인학교의 위상도 확립하였다. 부커 워싱턴이 제기한 흑인학교 설립 운동은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미국 남부에 5,000여 개의 흑인학교를 세우는 성과를 거두었다.⁶⁾ 흑인들은 이들 학교의 교육을 통해 미국 남부에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터스키기 기술학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농법이었다. 남부의 농업을 획기적으로 바꾼 개혁의 열쇠는 터스키기 학교의 교사 조지 카버(George Washington Carver, 1864?-1943)가 개발한 윤작법이었다. 윤작법은 담배나 면화 등 환금작물의 지속적 경작으로 피폐한 토지를 재생시키는 방법인데 콩과 식물인 땅콩, 콩, 고구마 등을 면화와 교대로 재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농민들은 면화 재배에 필수인 새로운 토지매입에서 해방되었다. 윤작법으로 지력을 회복하여 지가 상승도 극복하였다. 그리고 농산물도 다양화하여 환금성도 높이고 공급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개혁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 발전으로 나아갔다. 윤작법을 개발한 조지 카버는 윤작법으로 생산되는 콩, 땅콩 고구마 등을 이용하여 300여 가지의 제품들(대표적으로 땅콩버터, 두유, 땅콩기름, 콩기름, 인쇄 기름 등)을 개발하였다. 윤작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2차 산업(식품 가공업과 화학 산업)의 원료로 만든 것이다. 윤작법과 상품 개발은 경작지 수급 문제와 면화 병충해를 해결하고, 생산물을 다양화하였으며 공업을 발전시켜 남부 농업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결과 20세기 초반 미국 남서부 농업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윤치호는 남부의 농업개혁을 수용하여 조선의 농업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6) The rural school building program for African-American children was one of the largest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Rosenwald Fund. Over \$4.4 million in matching funds stimulated construction of more than 5,000 one-room schools (and larger ones), as well as shops and teachers' homes, mostly in the South, https://en.wikipedia.org/wiki/Rosenwald_Fund, 2024, 2.

3. 윤치호가 구상한 모범촌의 내용

모범촌에 관해 윤치호 자신이 기술한 내용들을 모아 보면

- ① “존경하는 감독님! 이 나라에서 모범적인 기독교 촌락을 건설하는 것은 나의 실현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선 선교본부가 있어야 하고 훌륭한 교육시설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100여 채 이상의 주택과 편의시설 그리고 좋은 도로를 낼 수 있는 넓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범촌의 기초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⁷⁾
- ② “그 땅의 500에이커의 지역을 얻게 된다면 길을 내고 구획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각할 것인데, 그 대상이 기독교인들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좋은 학교와 잘 갖추어진 병원 그리고 선교원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선망하는 모범촌을 만들 것입니다.”
“단순한 학교의 실습장을 넘은 농장과 간단한 공장을 경영하려 합니다.”⁸⁾
- ③ “우리의 목적에 맞게 구입하려고 하는 땅은 거주지로서 그리고 과수 재배와 원예에 가장 좋은 송도의 도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⁹⁾
- ④ “오늘 아침 나는 선교부의 새로운 땅을 오랫동안 거닐었습니다. 그것은 70 에이커쯤 되는 것 같습니다. 땅이 평평했으면 단조로웠을 이곳의 경치는 밤나무 숲과 가을빛으로 물들인 언덕들과 황금빛 곡식으로 뒤덮인 소로와 들판으로 하여 유쾌할 만큼 다채롭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왕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우리가 잘 닦여진 길과 아늑한 집들을 갖춘 이상촌의 꿈이 실현되어 그러한 집에서 오늘과 같은 안식일 아침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1,000 명이 자리할 수 있는 대학 교회당에 부름받을 수 있기를 얼마나 소원했던지요.”¹⁰⁾

7) Letter to W. A. Candler, 1907. 4. 16. 『윤치호 서한집』 (국가편찬위원회, 1980)

8) Letter to W. A. Candler, 1907. 6. 3. 『윤치호 서한집』

9) Letter to W. A. Candler, 1907. 6. 3. 『윤치호 서한집』

10) Letter to W. A. Candler, 1907. 10. 13. 『윤치호 서한집』

⑤ “5000\$의 돈으로는 선교회의 토지에 작은 계곡 하나를 덧붙일 정도인데 그러면 저희는 그곳에서 복지사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하도록 기부금을 낸다면 저희가 이미 가진 땅의 주변으로 좀 더 넓게 땅을 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단순히 저희가 그것으로 많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돈을 사용하는데 조건을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¹¹⁾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윤치호가 구상한 모범촌은 편리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대적 마을로 총면적은 500에이커(대략 60만 평) 정도로 만들려 하였다. 윤치호의 기술에 따라 토지를 배분해 보면 100여 가구의 주거지로 1만여 평(연구자 예상), 도로와 부대 시설로 1만여 평(연구자 예상), 학교 부지로 25에이커(3만 평)¹²⁾, 교회는 1,000여 명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곳이므로 2,000여 평(연구자 예상), 병원 2,000여 평(연구자 예상) 정도이다. 그러므로 도시 시설로 필요한 토지는 대략 6만 평 정도이고 50만 평 이상이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을 만들고 남은 토지는 곡식, 과수, 채소 경작을 위한 농지와 목장 등 1차 산업에 할당하였을 것이다. 그다음은 생산물을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농산물 가공 공장과 기타 공장들을 짓는데에 사용할 부지였을 것이다. 윤치호가 생각한 모범촌의 거대한 토지는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모범촌이 들어설 위치이다. 윤치호는 인용문 ③에서 보듯 주거지 농지 목장 그리고 공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토지를 개성의 도심지에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마련한 선교부도 개성 도심에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선교부 주변에 토지를 마련한다고 하였다. 개성 중심지에 모범촌을 만들 것이므로 남감리교 선교부가 선교 자금이 부족하다면 투자도 환영한다고 하였다. 윤치호는 개성도 서울처럼 발전할 것이므로 개성 도심의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에 모범촌 설립을 강권하였다.¹³⁾

이렇게 개성 도심에 모범촌의 자리를 잡은 것은 개성 사람이면 모범촌에서 일어나는 근대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과수원 채소밭 목장도 경영하여 새로운 농업 생산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려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즉 근교 농업의 환금성과 사업성을 알리려는 것이 모범촌의 일차적 목표였을 것이다. 이미 인삼

으로 농작물의 환금성을 경험한 개성 상인들에게 과일과 채소 같은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발전된 농업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목축과 가금류의 사육도 충분한 사업적 가치가 있음을 알리려 개성의 도심에 자리를 잡으려 한 것이다.

윤치호가 개성에 설립하려던 모범촌은 미국 남부의 혼합 농업과 윤작법을 수용하여 공업화와 연결하는 것이었다. 전통적 농업사회인 조선에서 급격한 변화 없이 기존의 농업을 변화시켜 생산물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업과 여타 산업의 발전으로 나아가기를 도모한 것이다. 후진 국가가 자국의 자원을 이용하여 근대적 산업 국가로 발전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며, 대규모 기계 공업의 수용으로 일어나는 어려움과 혼란을 막고 근대화해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었다.

윤치호는 이를 위해 개성 상인들에게 새로운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려고 개성 도심에 모범촌을 만들려 하였다. 더구나 개성 상인들은 인삼 가공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고 막대한 자본도 있었다. 그리고 상인집단을 운영하면서 키운 많은 사환들을 산업예비군으로 전용할 수도 있었다. 나아가 전국적인 유통망도 가지고 있어서 근대적 생산에 눈뜨면 곧바로 근대 자본가로 변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개성 상인들이 가진 자본주의적 속물 근성에도¹⁴⁾ 불구하고 윤치호가 개성 선교에 혼신의 힘을 바친 것은 이런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인내의 소산이었다.

윤치호는 이를 위해 초기에는 모범촌에 한영서원을 세워 인문과와 반공과를 두었고, 반공과에서는 농업과 공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가르쳐서 모범촌에 세워지는 농장과 공장의 운영요원들을 육성하려 하였다. 1920년대에는 만아들 운영선을 통해 송도고보에서 목축업과 유제품 사업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이후에도 송도고보에 여러 가지 과학 시설을 설치하여 조선 농업에 필요한 과학 기술을 육성하려 하였다. 그리고 YMCA와 감리교를 통해 농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윤치호는 미국 남부의 개혁 방법을 조선에 적용하려 하였으며 그 방법을 모범촌 활동을 통해 보여주려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의 쌀 단작 농업을 변화시키고 시장 경제를 확대하여 초기 산업화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던 것이다. 모범촌의 교회 마을 학교와 생산지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가능한 한 짧은



개성 송도고보, 윤치호는 모범촌에 한영서원(송도고보의 전신)을 세워 인문과와 반공과를 두었고, 반공과에서는 농업과 공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가르쳐서 모범촌에 세워지는 농장과 공장의 운영요원들을 육성하려 하였다.

11) Letter to W. A. Candler, 1907. 12. 15. 『윤치호 서한집』

12) Letter to W. A. Candler, 1907. 10. 13. 『윤치호 서한집』

13) “The land bought will be the security for the money invested, so that the scheme will not be a dead loss, by any means, even if it did not turn out a complete success. This is a safe investment as a business position pure and simple.” Letter to W. A. Candler, 1907. 6. 3. 『윤치호 서한집』

14) 정종현, “일본제국기 ‘개성’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동방학지』 151호, (연대출판부, 2010), 296쪽


기간에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하려 한 것이 모범촌의 구상이었다. 근대화를 이해시키고 선전하려고 모범촌을 설계한 것이다.

4. 모범촌의 목표와 지향

그러나 교회 마을 학교 그리고 가공 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범촌의 생활은 단순한 근대적 산업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생활 속에서 근대화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려는 전인적인 것이었고 급박해진 국가 위기에 대비하여 최대한 근대화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었다.

윤치호는 조선의 군대 개혁을 위해 일본을 돌아보고 별기군을 만든 윤웅렬의 아들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사람이다. 어쩌면 별기군의 교관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윤치호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고 국가의 독립을 지키는 군사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군사 조직에 관심을 보였고,¹⁵⁾ 러시아에서는 무기 생산과 군함 생산을 돌아보았다.¹⁶⁾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해군을 알아보는¹⁷⁾ 등 국가 독립에 필요한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 조직의 근대화도 필요하나 무기 생산이 없으면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총이나 대포는 수입하더라도 적어도 총알 생산은 국내에서 담당해야 전투 수행이 가능하므로 산업화는 무기 생산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 즉 산업화는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위한 무기 생산의 기반이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자들이 윤치호의 군사적 오리엔테이션을 무시하고 산업화를 경제 분야에만 제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나아가 근대화를 위해 제국주의 지배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친일파가 되었다는 논리도 그의 개화사상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선부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더하여 윤치호가 조선은 독립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런 필수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의 항복으로 독립을 얻었다. 그 결과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민족적 역량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다. 윤치호의 개화사상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망해 가는 국가를 지키려던 윤치호가 독립을 위해 고심한 국가의 모습은 무엇이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5) 강명숙, “개화기 윤치호의 군사 문제에 관한 이해”, 『군사』 116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2020). 59-63쪽

16) 『윤치호 일기』 1896. 7. 18. ; 7. 20.

17) 『윤치호 일기』 1896. 11. 16.

소망의 언덕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개성협력병원)

김정용 (전 개성협력병원 병원장)

1. 개성공업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개성공업지구는 본래 남쪽의 기업체들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쪽이 노동력과 장소를 제공해서 50년간 임대료 공단이 진행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100만평 규모를 계속 유지하며 본래 계획한 1,500만평의 확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2005년 시작해서 2016년 초까지 10여 년 만에 폐쇄되어 지금까지 문이 닫힌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이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력해서 경제와 문화 교류의 창구로 귀하게 사용된 장소였다.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벌인 사업가들이 말하기를 경제적 가치로만 보아도 약 100만 달러의 임금을 주었지만 약 1,0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황금알 낳는 곳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남쪽 근무자들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많이 내재한 곳이기도 하다. 개성공업지구의 가동 초창기에는 남쪽 근무자들이 주말에 딱히 할 일도 없이 쉬고 있어 개성 시내 점심식사 및 관광을 시켜 주었다. 남측 직원들은 100만 평의 울타리를 벗어나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도 되며 선죽교 고려박물관 자남산 여관 식당 등 일정한 코스지만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 되었고 실제로 20km도 안 되는 곳에 분단되어 서로 교류도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간직한 채 돌아오곤 하였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이들의 보건 의료를 책임지는 개성협력병원은 남과 북의 의료진이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5만여 명의 건강돌봄이 역할을 하였고 모든 남과 북의 환자들을 무상 진료를 통해 의료 혜택을 주는 통일 의료의 시험장이었다.

2.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이 남북 관계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작지만 아름다운 일(Small but beautiful work)을 수행하던 개성협력병원은

밤낮으로 외래 및 응급환자 처치, 후송을 담당하며 남쪽 환자 5만 명, 북쪽 동포 약 30만 명, 총 35만여 명을 8여 년간 무료로 진료했다.

특히 말라리아나 결핵환자의 현장 진단과 치료를 통해 감염질환 확산을 차단하는 역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했고, 남과 북의 의료 차이점이 있었지만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서(different but not wrong) 통일 의료의 모델을 형성할 수 있었다. 북쪽 의료진들이 개성협력병원에서 내가 일하는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는데, 남쪽에서 보수도 많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외롭지도 않게 편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 듯이 질문을 하곤 했다. 마침내 3년이 지나서 대답을 그들에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책에서 읽은 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같이 한 알의 밀(a grain of wheat)이 썩어 죽으면 많은 결실을 하지만 그대로는 한 알밖에 되지 않음에 교훈을 받았고, 그렇게 봉사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인도에서 살았고 지금도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개성에서 살아간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남쪽에도 그런 좋은 글이 있느냐 묻기에 나는 그 글이 어떤 면에서 좋은 글이냐 반문하니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원장님을 보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분을 본받아 사는 것이니 우리 모두 남북 환자들을 위하여 함께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살아가자고 제안하였다. 그 자리에서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는 작은 감동과 결심을 보게 되었다. 필자는 생일을 주로 개성에서 맞이했다. 한번은 몇 안 되는 남쪽 직원들은 모르고 지나갔는데 북측의 한 간호사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생신 축하드린다”고 축하인사를 했다. 오후 퇴근 시간에 그 부모가 그녀를 시켜 생일상을 보내왔었는데 부족한 가운데서 떡 한 접시, 도라지무침, 오이무침, 인삼주 한 병이 든 종이 가방을 받게 되었다. 딸로부터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해주신 것이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참 기억나는 생일상이었다.

이처럼 개성협력병원은 개성공업지구의 남북한 사람들에게 의료로 통해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인들끼리 마음이 연합되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의 장소였다. 한 사람의 의사로서 참으로 고상하고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북쪽 의사들에게도 돈을 내려놓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그들과 협력해서 남북 환자들을 위해 함께 헌신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계기도 되었다. 사람들이 진정한 도움(Real HELP)으로 단어놀이(word play)를 하기를 H(health), E(economy), L(language and literature), P(politics) 라고 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H(health) 이다. 이런 면에서 보건 의료 분야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일해가고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일을 해온 개성협력병원의 역할과 의미는 지대했다고 자부한다.

3. 개성협력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벽(wall)을 만들지 말고 교량(bridge)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중 초창기에는 남쪽 환자들 중심으로 밤낮 진료가 이어졌다. 때때로 밤에 생긴 북쪽 환자들 이 여러 사람을 대동해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하게 되었다. 응급 진료밖에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내일 북쪽 의사들에게 진료받으라고 말하고 보냈는데, 실제로는 더 치료받지 않아도 될 만큼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해주었다. 북쪽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북쪽 의사들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아 주었고 이런 일들이 모여서 밤에도 북쪽 의료진과 함께 진료하도록 남북 협력병원을 만들자고 북측에서 요청을 했다. 당시 의원 규모의 4배 정도로 확장하고 북쪽 의사와 간호사 각 10명씩 고용하여 그린닥터스 개성의원이 시작되고 1년 6개월 만에 개성남북협력병원으로 확장되어 하루에 남북 환자 200명 이상을 돌보는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이곳에서 X-ray 찍을 환자들 이 많았는데 방사선 기사가 없어 진료하는 남북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협력해서 사진을 찍고 판독하고 치료하며 심한 환자들은 남과 북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남북의 통일 엠브란스들이 있어 북쪽 환자는 개성 시내로, 남쪽 환자는 일산으로 부지런히 후송을 했는데 특히 허가받아서 남쪽으로 이송하기까지는 여러 절차들이 있어 적어도 1시간의 시간이 요하였다. 긴급한 환자의 경우 마음에 조바심을 만들기도 했고 특별히 놀라운 일은 남쪽으로 향하는 출입문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를 제외하고는 굳게 닫혀 출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한밤에 생긴 긴급환자는 개성 협력병원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남북 출입국 및 유엔사까지 연락을 취해 승인받고 남북의 각각 출입문을 열고 엠브란스를 끌고 남쪽으로 환자를 싣고 후송하는, 시시로 열린 문을 만드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었다.

한번은 개성공업지구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환자들을 남쪽 병원으로 3명을 후송하여 치료하게 되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북쪽 의사들을 불러 도움을 받아 함께 응급처치하였다. 이후에 환자들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그들 얼굴이 남쪽 사람 같아 보여서 우리 쪽에서 치료하였는데 말씨가 북쪽 말씨라 웃으며 북쪽 의료진들에게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마무리 진료하라고 보낸 해프닝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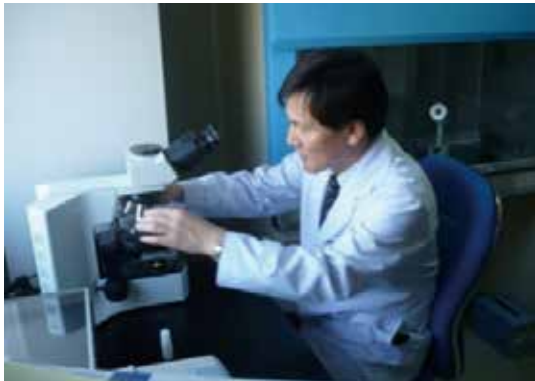


개성공단의 남북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협력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



남북의 의사들이 함께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4. 개성협력병원에서의 삶의 도전은?




고배율 현미경으로 감염균을 관찰하는 김정용 원장

필자는 오래전부터 미래 감염질환 및 공공의료에 늘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물질만 내려놓으면 의료는 진정 고상하다’는 소신 가운데 1999년 초부터 7여 년간 인도 캘커타에서 말라리아 등 풍토병을 연구하며 그곳 교민과 소외된 현지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던 중 2005년부터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남한 주재원들의 건강을 돌보고 진료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부산의 몇 개 의과대학 수련의들이 몇 주씩 돌아가며 진료했지만 6개월이 지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필자에게도 여러 차례 요청이 있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도시(캘커타)를 떠나 소망의 언덕(개성)으로 올라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7년 이상 상주하게 되었다. 개성협력병원을 통해 남북 환자들 상담과 무료 진료, 남북 협력진료를 통해 통일 의료의 모델을 제시하고, 남북 의료인들에 의해 개성의 슈바이처라는 과분한 칭호를 얻으며 자발적인 남북 협력진료의 틀을 마련하였고 통일 이후 생겨날 미래 감염질환에 대한 준비에 중요한 계기를 갖게 되었다. 진료실 한 곳에 고배율 현미경을 놓고 여러 감염균들을 발견하며 말라리아, 결핵, 설사 환자의 현장 진단과 치료를 통한 감염질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김정용 병원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몸으로 실천하며 북한 땅 개성에서 새로운 한국 의료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통일 초대석에서 말한 것처럼 남북 양쪽 의료진들은 함께 진료하며 남북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질병이라는 공공의 적을 대상으로 협력하였다.

남북간에 공허한 교류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교류하였고 개성협력병원은 통일 의료의 실험장으로, 시작할 때는 서로 말을 걸기도 서먹했지만 협력 의료의 효자인 X-선 검사를 통해 남북한 의사들이 토론도 하고 서로 힘을 합치면서 그 누구보다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지만 아름다운 개성병원으로 전국 여러 병원 및 의료진들이 자원 의료봉사로 방문해서 부족한 영역들과 꼭 필요한 의약품들을 도와주었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 의료 현장을 함께 일구어 나갔으며 여러 저명한 분들의 방문 및 격려가 이어졌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최근 백신으로 일반인들에게까지 유명해진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pfizer) 제프 킨들러(Jeff Kindler) 회장님의 개성협력병원 방문이다. 그는 한국 방문 하루 일정 중 오후 시간을 내어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했다. 개성공단 방문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개성협력병원을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참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그림을 직접 전달하면서 병원 측벽에 걸고 서명해 주었다. 당시 필자와 제프 킨들러 회장은 ‘인류가 보다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였다. 이안 리드(Ian Read, 화이자 글로벌 제약 부문 사장), 조지프 팩츠코(Joseph M. Feczko, 화이자 최고의학책임자) 등 화이자의 중진들도 동행했는데 이후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필자는 매년 수일간 유학중인 자녀들 방문차 영국을 방문하곤 했는데, 개성협력병원에 큰 관심을 가지신 영국 상원의원 알톤 경의 초청으로 영국 의회의 여러 상원, 하원 의원들 앞에서 개성협력병원 사업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필자는 “벽이 아닌 다리를 건설하자(Build Bridge, Not Build Wall)”는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고 이것은 BBC 방송 및 국제적인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BBC 기자의 인터뷰 중에 위험하고 외롭고 보수도 없는 개성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필자는 “감추인 보화(Hidden Treasures)” 예화를 말해 주었다. “한사람이 길을 가다 그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묻어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급하게 싼 값에 처분을 하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몇 배로 비싸게 값을 지불하고 급하게 땅을 샀다. 가족과 친지들은 그를 보고 어리석고 미쳤다고 하였으나, 그가 기뻐하며 자기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산 이유는 남들은 알지 못해도 감추인 보화가 이곳에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는 발표를 통해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개성협력병원의 자원 의료봉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전했다.

끝으로 오직 사랑에 이끌리어 소망의 언덕을 오르며 소명의 언덕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지내던 개성공업지구 남북 협력병원에서 마지막 함께 부르던 노래가 떠오른다. 가장 귀에 맴도는 구절은 ‘친구여 우리 서로 헤어지던 날 꽃들은 만발하였지. 그대 꺾어준 꽃은 시들었으나 그 향기 내 맘에 가득 ---’ 이라는 가사이다. Finders Keepers(찾는 자, 임자)처럼 보통 사람은 좋은 것과 귀한 것을 발견하면 내가 발견했으니 내 것이라 소유하지만, 남의 아픔과 질병을 발견하고 내가 발견했으니 내 것이며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는 특별한 사람,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화이자 제프 킨들러 회장은 개성공단 방문 시 필자와 ‘인류가 보다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였다.

박완서의 소설 『미망』에 나타나는 개성의 로컬리티



박완서의 소설 『미망』은 19세기 중반 구한말에서 한국전쟁 직후까지 개성을 배경으로 쓰인 소설이다.

남북의 분단과 함께 북한에 속한 대다수의 도시들은 남한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남한과 세계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는 북한의 몇몇 도시가 있는데, 개성도 그 중의 하나이다. 개성은 고려 500년의 문화를 품은 역사도시,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협력 상징의 도시로 남한사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글을 쓴 대표적인 작가는 바로 박완서이다. 그의 소설 『미망』을 비롯하여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산문집 『두부』에 실린 「가족」, 「옛날」, 「개성사람 이야기」 등 수많은 작품의 배경으로 개성이 등장한다. 그 중 『미망』은 박완서의 대표 소설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 1996년에는 MBC에 의해 동명의 드라마(채시라, 김상중 주연)로 제작되기도 했다. 소설 『미망』은 19세기 중반 구한말에서 한국전쟁 직후까지를 배경으로, 개성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가족 5대의 일대기를 다룬 대하소설로 고도(古都)이자 상도(商都)인 개성의 지방색과 그 중심을 이루는 상인들의 특성을 설명하며 시작한다.

고려가 망한 지 근 5백년, 고려의 옛 서울 개성은 왕도의 영화는 비록 만월대의 추초秋草처럼 속절없이 되었을망정 또 다른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조선 팔도를 고루 누비며 5리의 이문을 위해 10리 쫓기를 마다않는 보부상들뿐 아니라 상업의 요지마다 자리잡고 그 일대 물산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때로는 담대한 매점으로 거액의 이윤을 노리는 소위 송방들의 돈과 물자의 모든 길은 개성으로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¹⁾

1) 박완서, 『미망』 (서울: 세계사, 2012) p. 15.

『미망』은 개성을 움직인 중인 출신의 거상을 대표하는 전처만의 가족과 그 자손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구한말로부터 시작하여 6.25 전쟁까지 개성의 모습을 눈에 보이듯이 그려내고 있다. 개성의 거상 전처만은 어린 시절 가족이 양반에게 모욕을 당한 트라우마를 상업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킨 거상(巨商)으로 그려진다. 그가 병약한 장남에게서 얻은 손녀 태임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전처만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란다. 종상은 쇠락한 양반가문의 후손으로 종상의 할아버지 이생원은 개성 지방의 세도가로 어린 전처만의 가족을 착취하여 그의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물이다. 그런 이생원의 손자인 종상이 전처만의 둘째 아들이 하는 점포에 사환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후 전처만의 첩이 소유한 삼포에서 일하게 된다. 두 집안 간의 구원(久怨)으로 인해 종상은 첫눈에 전처만의 미움을 사지만 이후 전처만은 종상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애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끼는 손녀딸 태임이 종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해 종상을 서울로 보낸다. 종상은 서울에서 만난 선교사의 도움으로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하고 개성으로 돌아와 태임과 혼례를 올린다. 종상-태임 가족의 이야기와 더불어 과부인 태임의 모친 머릿방 아씨가 친정의 머슴과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 태남의 이야기, 종상의 배재학당 동기인 친일파가 되어 조선인으로서 총독부의 가장 높은 관리가 되지만 평생 종상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간 승재의 이야기, 그 밖에 태임과 종상을 둘러싼 개성의 각종 군상들 간의 이야기로 소설은 채워져 있다.

작가는 책의 서문 「작가의 말」에서 말하기를 “개성·개풍지방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분단 직전까지 오랜 동안 인삼 고장과 상업의 중심지로 독자적인 번영과 독특한 문화를 누려왔었다. 따라서 삼포와 장사 얘기를 빼고는 도저히 개성인의 전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개성에 살면서 그 두 가지를 외면하고 산 별종을 그럴 바에야 구태여 개성당을 무대로 할 필요가 없어지고 만다”²⁾고 한다. 작가의 말과 같이 『미망』의 배경은 개성·개풍지방을 배경으로 하여 ‘상업’과 ‘인삼’을 관통하여 모든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는 소설을 통해 개성상인의 내력을 다음과 같이 풀어낸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간에 개성상인들의 이씨왕조에 대한 반골 정신은 한결같았다. 최영 장군의 사당을 덕물산에 모시고 이태에 한 번씩 질탕한 도당굿을 올려 억울한 원혼을 위로하며,…… 그들의 조상은 그 한심한 조정에 벼슬하느니 차라리 마음 독하게 먹고, 선비들이 알보는 장사꾼이 되어 돈을 벌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서울 사람들이 입쌀이라 부르는 백미를 이

2) 박완서, 『미망』 작가의 말

쌀이라고 해서 안 부르고 왕쌀이라고 하기를 좋아했다. 이씨왕조가 골육상잔을 하건, 당파싸움을 하건 강 너머 불구경하면서 그 허술한 틈바구니를 요령껏 뚫고 돈벌이에 날로 이골이 났다.³⁾



『미망』은 1996년에는 MBC에 의해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조선이 인삼의 종주국이라면 조선 인삼의 중심은 개성이다. 개성이 인삼의 중심이 된 것은 수확을 위해 6년을 기다려야 하는 인삼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농사꾼과 농작물을 유통하는 이들에게 수확이란 곧 수입이다.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인삼에 돈을 묶여둬야 하는 자본집약적 인삼농업은 거대자본의 뒷받침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개성상인의 자본과 상술은 당시

최고의 고부가 작물인 인삼을 흔들림 없이 품질을 유지하며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선순환은 신뢰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자본을 갖춘 개성의 상인들의 상도(商道)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완서는 말하기를 “송도 시내에 사는 여자들도 기회만 있으면 빈부나 지체를 가리지 않고 조합 너른마당에 큰 맷방석을 깔고 인삼을 산처럼 쌓아놓고 여자들이 둘러앉아 대나무칼로 인삼 껍질을 벗겼다”⁴⁾고 말한다. 빈부와 지체를 가리지 않고 업을 돕는 여성의 문화 또한 인삼 산업 발전의 주요한 자산이었다.

이 소설은 태임의 아들 경우와 태남의 아들 경국이 6.25 전쟁의 와중에 개성 인삼의 종자를 얻기 위해 북한군이 주둔한 개성으로 잠입하여 태임과 태남의 집에 있는 인삼 종묘를 구해오는 여정으로 마무리된다. 사업에 수완이 있던 경우는 해방 후 서울로 내려가(개성사람들은 서울로 가는 것을 “서울로 내려간다” 개성으로 오는 것을 “개성으로 올라온다”고 말한다) 사업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는 개성에 홀로 남은 모친 태임을 서울로 모셔 오려 했으나 태임은 개성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며 개성에 남는다. 이후 1.4 후퇴로 개성이 공산당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자 경우가 지프차를 몰고 와 태임을 모셔 가려 했으나 태임은 개성에서 죽겠다고 고집을 부려 끝내 개성에 남았다. 사촌형인 경우의 도움으로 개성을 탈출한 경국은 개풍군이 마주 보이는 강화도에 자리를 잡는다. 그는 개성과 기후와 토질이 같은 강화도에서 개성의 인삼을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종묘를 얻기 위해 경우와 함께 인민군 치하의 개성으로 숨어든다. 어렵게 도착한 개성에서 “개성의 인삼이 개성을 떠나면 고려인삼이 아니”라는 태남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결국은 “훔쳐가”라는 엄마의 말에 따라 경국은 묘삼을 들고 경우와 함께 남한으로 떠난다. 아들과 조

카가 묘삼을 훔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태임이 예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난다.

작가 박완서는 개풍군에서 태어나 8세에 서울로 이주하기까지 개성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당시 부모를 따라 상경한 시골 출신 아이들이 모두 그렇듯 서울에 올라온 박완서도 방학이 되면 개성으로 돌아가 친구, 친척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통해 어린 시절 서울에서 “시골때기 골때기”라고 놀림을 받으며 보낸 팍팍한 일상과 방학마다 개성에서 보낸 즐거운 날들을 대비한다. 학기말에는 개성 갈 생각에 부풀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도착한 개성역에서 부모를 찾는 『미망』의 주인공 태임의 딸 여란은 박완서 자신을 투영한다. 해방 직전 반년간 호수돈여고를 다닌 시간까지 합하여 박완서에게 개성은 태고의 평안과 설렘을 간직한 에덴이자, 그의 문학의 받침돌이었다.

박완서의 수필 “개성사람 이야기”⁵⁾는 개성에 대한 그의 자부심 자체이다. 그가 “개성사람 이야기”에서 말하는 개성사람으로 느끼는 자부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돈을 셈하는데 있어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이다. 개성상인은 동업을 하여 이익을 나눌 때 일 전이 남으면 엿을 한가락 사서 반반씩 나누어 먹고, 여자들은 조합에서 받은 임금을 분배하고 일 전이 남으면 일 전짜리 성냥을 한 갑 사서 성냥개비를 정확하게 나누어 가질 만큼 셈에 철저하다. 개성사람들은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노력해서 번 돈은 돈 자체에도 격이 있어 함부로 쓰거나 너무 안 쓰면 돈이 스스로 등을 돌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갈하고 깔끔한 살림습치이다. 개성사람들은 화려한 걸치레보다 실속을 중하게 여긴다. 기름진 풍덕평이는 쌀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고, 벼가 익을 무렵 개성의 어느 논에서나 얼마든지 참게로 게장을 담근다. 보쌈김치, 개성제육, 개성순대 같은 미식이 풍요롭고 생활도 부족함이 없지만 개성의 전통가옥은 안채만 기와집이고 사랑채는 초가집이다. 이런 이유로 개성의 집들은 겉에서는 초라해 보이지만 집 안에 들어가면 으리으리한 경우가 많다. 개성은 삼포만이 부자들의 소유였고 그 밖에는 다들 자작농이었다. 일반 농가도 규모가 크고 번듯하며 집집마다 사랑채가 있다. 셋째는 저항정신이다. 개성의 소문난 부잣집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독립자금을 냈고 일제강점기에는 물론 해방 후에도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다. 개성은 조선의 대도시 중 거의 유일하게 일본인이 발을 못 붙인 땅이다. 일 전에 치를 떠는 개성여인들이지만, 같은 물건의 가격이 일본상점에서 아무리 저렴해도 조선인이 하는 상점의 물건만을 고집했다. 해방이 되던 날 개성의 모든 집이 급조해서라도 태극기를 만들어 대문에 달았는데, 간혹 어떤 집들은 오랫동안 깊숙이 숨겨온 듯한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박완서는 개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글을 쓴 작가이다.(사진: 여성신문)

3) 박완서, 『미망』 p. 18, 19.

4) 박완서, 「내고향 개성 이야기」, 『역사비평』 54. (서울: 역사비평사. 2001) p. 227.

5) 박완서, 「내 고향 개성 이야기」 p. 221.



박완서는 1944년 숙명여고에 입학했으나, 일제의 소개령으로 인해 개성으로 돌아와 호수돈여고로 전학했다.(출처: 호수돈백년사)

태극기를 보고 존경심에 발길을 멈추곤 했다고 한다.

박완서는 『미망』의 초판 작가의 글에서 “내 오랜 작가적 소망이자 내 나름의 귀향의 방법”으로 『미망』을 통하여 “개성인의 전형”을 그렸다고 밝힌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개성시지』를 비롯하여 개성인회가 발행한 기관지 『송도』를 탐독했다.

사실 박완서의 『미망』 연재와 비슷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송도』 역시 『미망』의 인기에 고무되어 지속된 면이 없지 않다. 개성 토박이인 작가의 모친을 비롯하여 개성인회 웃어른들은 소장하고 있던 풍부한 자료들을 딸뻘의 개성출신 작가에게 아낌없이 내주었다. 결국 『미망』은 개성을 꿈에도 그리워하는 작가의 노력과 실향민들의 지지와 도움이 합쳐져 탄생한 소설이다.

정주영의 소떼 방북과 함께 북한출신 유명인사들의 고향 방문이 성사되기 시작하며 박완서도 개성 방문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완서는 유명인사의 고향 방문이 일종의 특권이 되는 것에 반발하는 듯이 “아무의 주목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고향마을에 들어서 보고 싶다”⁶⁾고 말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불어닥친 개성공단의 가동은 “큰 특권”이 없이도 개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박완서에게 가져다주었다. 2004년 12월 28일 개성공단 시범단지 내의 국내기업 중 두 번째로 가동을 시작한 에스케이테크 준공식에 박완서도 초청되었다. 박완서를 포함한 250여 명의 참석자 일행은 준공식을 마친 후 개성공단을 벗어나 개성시내를 둘러 보고 점심을 먹고 나올 예정이었으나, 북측은 갑작스레 개성공단-개성시내 도로 공사를 이유로 참석자들의 개성시내 방문을 불허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생전에 「옛날」이라는 수필에서 갈 수도 없는 고향 방문에 대한 희망고문을 떨치며 썼던 글

만약 내가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면 그날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내 고향, 이상화된 농경 사회의 평화와 조화를 상실하는 날이 될 게 뻔하지 않은가. 어떻게 변했나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보아버리면 다시는 안 보았을 때로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 일단 글을 깨치고 나면 문맹 상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듯 말이다⁷⁾

과 같이 이상화된 농경 사회의 평화와 조화를 소유한 채로 생을 마감한다. 개성에 대한 그의 무한한 애정을 생각한다면, 고향을 향한 그의 사랑 또한 『미망』의 결말과 비슷하게, 절대로 슬프지는 않지만 너무도 큰 여운을 남긴 마무리였다. 🐟

6) 박완서, 「옛날」, 『두부』 (서울: 창작과 비평, 2002) p. 49.

7) 박완서, 「옛날」 p. 52.

개성의 음식

개성만두

고려 수도인 개성에는 메밀만두도 있고 편수도 있다. 겨울철에는 만두를 즐겨 먹고 여름철에는 편수를 먹었는데 개성에는 대중적 음식이었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연회석상이나 잔치상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음식이었다.

이름이 편수인 이유는 물에 삶아 건져낸 것이라는 뜻이다.

개성편수는 얇게 민 밀가루 만두보에 고기와 남새로 만든 소를 넣고 귀를 모아 맞붙여 익혀 낸 만두이다. 그중 송도(개성)편수가 유명하였는데 주로 정월 명절날에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에 먹으면 몸을 식히는데 제격이라고 하였다. 개성편수는 일반적인 네모 모양이 아닌 둥근 것이 특징이었다.



보쌈김치/ 개성 쌈김치

보김치, 쌈김치라 부르기도 하는데 개성사람들은 “쌈 김치”라고 불렀다. 쌈김치는 개성지방의 명물로서 다른 김치에 비해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국물이 달다. 조기젓국, 배채, 낙지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추어탕

북한의 문헌에 의하면 추어탕은 우리 인민이 즐겨 먹는 민족음식의 하나로서 그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추어탕은 허약한 사람들의 원기회복과 어린이들의 키 크기에 많이 쓰였다.

추어탕은 주로 가을에 많이 먹게 되는데, 개성의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푹 삶아 양념에 내기(방아잎)를 넣고 끓이는 추어탕이 있고, 두부 속에 미꾸라지를 넣어 만든 것도 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와 찬 두부모를 가마에 함께 넣으면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로 파고든다. 그러면 국물에 간장과 고추장, 파와 내기를 넣고 곰탕처럼 끓인다. 🐟



개성 출신의 유명인



박완서

개성출신의 유명인으로 소설가 박완서가 있다. 그의 소설 『미망』을 비롯하여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산문집 『두부』에 실린 「가족」, 「옛날」, 「개성사람 이야기」 등 수많은 작품의 배경으로 개성이 등장한다. 개풍군에서 태어나 8세에 서울로 이주하기까지 개성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당시 부모를 따라 상경한 시골 출신 아이들이 모두 그렇듯 서울에 올라온 박완서도 방학이 되면 개성으로 돌아가 친구, 친척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통해 어린 시절 서울에서 “시골때기 꿀때기”라고 놀림을 받으며 보낸 팍팍한 일상과 방학마다 개성에서 보낸 즐거운 날들을 대비한다.



윤여정

2021년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씨와 한국의 유명배우 전원주씨도 개성 출신이다. 윤여정씨는 1947년 개성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비무장 지대 일정 구역의 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땅부자였으나 땅을 포기하고 한국전쟁 직후 남으로 왔다.



전원주

전원주씨도 1939년 9월 20일 경기도 개성부에서 인삼농사를 크게 짓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1950년 6.25 전쟁으로 식구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한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두 배우의 공통점은 개성의 지주 집안 출신으로 공산정권에 의해 점령된 이후 온 가족이 재산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례라는 것이다. 🐼

개성의 사람 사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자매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성 동쪽에 휴전선 근처 장풍에서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거주했습니다. 저희 고조할아버지는 대지주이셨는데, 몇 대째 개성상인이었다고 들었어요.

지주가족이었으면 공산정부 들어온 다음에 어려움 겪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건 없었고, 저희 집안 땅문서를 부모님이 어디 물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찾을지 모르겠네요. 어려움은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 저희 집은 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저희 집 토지문서를 빼앗으러 왔더라고요. 그 전부 터도 보안부에서 자주 왔었어요.

북한의 국영농업화가 훨씬 전에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80년대에도 개인 땅이 있었나요?

그렇죠. 개성이 제일 늦게 마감됐어요. 이미 예전부터 국가에서는 땅 내놓으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

들이 내놓지 않고 그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하니 사람들이 지혜를 냈죠.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죠. 당이나 나라에서 어떻게든 다 받아 완전히 공동화를 했어요. 개성에는 국가에서 통제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80년대에는 땅 주인을 잡아가든 죽이든 자살하게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회수했어요.

장풍은 동네가 구분이 되나요?

장풍읍이 북쪽에 있고, 남쪽 대덕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죠.

장풍에서 계속 사셨는데 개성 시내에는 자주 가셨나요?

계속 가죠. 개성 시내 쪽에서 저희 마을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장풍군과 대덕산, 개성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저희도 개성에 자주 다니고, 개성시에서 인삼, 술, 신발같은 거 파는 장사꾼들이 계속 와서 쌀을 바꿔갔어요. 대덕산 쪽에는 논도 많고 과일밭도 많았어요.

대덕산에서 개성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버스 타고 한 4,50분쯤 걸리고 자전거 타고도 1시간 조금 더 걸려요.

길은 흙길인가요?

아뇨 석비레(석비레, 일명 마사토) 라고 있거든요. 개성 가는 길은 다 산이었는데 전쟁 때 집중폭격을 하면서 그 바위가 다 부서져서 그 부스러기를



강화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특별시 개풍군의 마을과 논

썩비레라고 해요. 썩비레를 깔아 차도 다닐 수 있고 버스도 다녔어요.

그러면 장풍에서 대덕산, 장풍에서 개성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장풍에서 대덕산, 개성이 비슷한 거리여서 삼각형이라 부르거든요. 대덕산에서 장풍으로 갈 때는 버스가 드물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 개성으로 다닐 때는 버스를 탔어요.

네 그러면 혹시 판문이나 개풍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개성에서 판문까지는 30분 정도 걸리고 개풍까지 40~50분 걸려요.



개성의 남대문에서 바라본 자남산(사진: 평화문제연구소)

개성 동쪽에서 큰 마을들이 있나요?

선적리가 있고 그 밑으로 철조망들이 쪽 있고 대덕산 밑으로 사시리가 있어요. 태풍전망대 가니까 선적리가 보이더라고요.

개성 중심에 자남산이 있죠. 자료를 찾아 보니 어떤 자료에는 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이에요. 남쪽에서 보면 남대문에서 도로가 나서 산 중턱에 김일성 동상까지 멋있게 되어 있어요. 차도가 엄청 넓게 되어 있고 사람 지나다니는 길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는 다 산이에요. 나무들도 울창하고요. 그런데 북쪽 높은 데서 보면 언덕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언덕은 아니죠.

개성에는 문화유산이 많잖아요? 어릴 때 소풍이나 견학을 다니셨나요?

만월대를 제일 많이 갔어요. 그리고 성균관도 많이 가고, 가족끼리 가는 위락시설들이 있었어요. 박연폭포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폭포 앞에 구름다리가 있었거든요! 폭포 물이 튀어서 엄청 시원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인가? 그 구름다리가 끊어져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박연폭포 밑이 다 바위거든요. 다 바위에 떨어져서 죽었죠. 저희는 학교 때부터 씨클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씨클이라고 불렀나요?

네 맞아요. 북한에서도 씨클이라고 불렀어요. 음악이나 악기를 배워줘서(가르쳐줘서) 위문공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개성에 초소가 좀 많아요? 아이들이 초소 앞에 가서 공연을 하게 해요. 그리고 풀도 뽑아주고 학생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무조건 다 가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다 가거든요. 부녀절이나 노동절이다 그러면 직장 단위별로 가서 염소도 끓여 먹고 통돼지도 막 메고 가서 먹고 그런 것을 다 남쪽이 보이는 곳에서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선전하고 구호도 막 외치고요. 그 초소 주변에 가서 놀기도 놀아요.

공연도 초소 근처에서 하고 놀기도 초소 근처에서 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남쪽 군인들 보라고 그러는 거죠. 남쪽에서 대북방송 하잖아요? 북쪽에서는 공연하

고 잘 먹고 노는 거 보여줘서 남쪽에 대남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성에서 자란 아이들은 악기를 하나씩은 다 해야 돼요. 아코디언을 하든지 바이올린을 하든지 가야금을 하든지요. 그런 악기를 배워야 경계초소 다니면서 위문공연을 해야 하잖아요. 개성 시내 소년궁전에 가서 악기들을 많이 배우죠. 그런데, 꼭 대남 선전 때문에 연선 주변에 가서 놀지 않더라도 연선 주변이 경치도 좋고 공기 좋은 곳이 많아요.

연선에서는 남쪽이 잘 보였겠네요?

군인들, 초소들은 보였는데 사람들 사는 거는 못 봤어요. 지금도 가끔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 동네 보면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많이 바뀌기는 했더라고요. 선적리 쪽은 2층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국경지역에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출신 성분이 안 좋다가 아니면 체제에 좀 순응을 안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그리고 남쪽 마을들이 선전마을이라고 하는 교육을 엄청 많이 받죠.

남한 뼈라가 많이 날렸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많이 보셨겠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면 마당에 뼈라가 가득 떨어져 있고 내복이나 옷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남쪽에서 날려 보낸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선전하기를 그 뼈라를 만지면 살이 썩는 독이 묻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나무로 찍어서 경찰서에 가져다줬어요.

그때 뼈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실명을 써서 “누구누구는 몇 년도에 탈북을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아들딸 낳고 잘 살고 있다. 지금 어디 회장 자리를 하고 있다.” 실명을 써서 이런 내용을 적어놔요. 사람들은 안 믿죠.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죠. 나중에는 그런 거 듣고 분계선으로 넘어간 탈북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소문이 돌아요. 이제 남한에서 보내는 거는 안전하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소문도 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남쪽에서 날려 보낸 물건들을 다 수집해서 보관도 하고 실제로 쓰기도 했는데 질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사람들에게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북에서 “개성 사람은 어떻다”하는 이미지가 있나요?

있어요. 개성 사람들은 옛날부터 깽쟁이. “개성 깽쟁이”라고 했죠. 근데 청진이나 라진이나 이쪽에 가면 개성 사람들이 천하고 온순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청진이나 나진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 사회잖아요. 장사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개성에는 어쨌든 공급이 되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어지간하면 살 만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악을 쓰고 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함경도 경쟁이 심한 동네에 가면 개성 사람들은 사기 치기 좋은 사람들, 순박하고 촌스러운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해요.



박연폭포(출처: 현대아산)

옛날 개성사람들 이미지는 깍쟁인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네요?

옛날 상인들이 있었을 때는 개성이나 사리원 쪽에서 공업도 같이 발전했거든요. 깍쟁이는 상인들이 많을 때 소문난 거고 지금은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었죠.

개성이 고난의 행군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배급이 더 많이 잘 나왔다고 하던데, 형편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왔겠네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걸 모르고 자랐거든요. 북한에서는 사는 지역을 벗어나는 일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청진을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장마당에서도 꽃제비라고 그런 아이들이 많고 또 너무 불쌍한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개성에서는 가끔 보였는데 청진은 어디를 가나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요.

개성은 공급은 잘 됐어요. 그때는 간장 된장 이런 것들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다못해 내복까지도 다 마을에 상점이 있어 배급도 잘 받았죠. 그리고 농촌 지역들은 배급보다도 1년간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거를 관리소에다 바치고 나라에 세금 낼 거 내고 나머지 가지고 동네에서 나눠서 다시 분배해서 먹고 살았죠.

개성분들은 개성상인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옛날부터 개성 사람들 중에는 상인이 많았대요. 사리원이나 함흥 쪽에서 공산품 같은 것들을 개성으로 많이 들여왔고, 그것들로 상품을 제조해서 또 다시 청진이나 나진 쪽으로 실어다가 팔고 사리원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말하자면 끈은 사리원에서 가져오고 단추는 해주에서 가져오고 끈에다가 단



개성의 시내 모습

추 달고 장식품 같은 거 만들어서 평양에 파는 거예요. 못, 너트, 볼트 같은 제품도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북한 자체가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개성은 접경지이다 보니 이동의 자유가 더 없지요?

개성에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통행증에도 빨간 줄이 있어야 해요. 개성사람은 다른 곳에 쉽게 갈 수 있지만 다른 도시 사람들이 개성에 들어오려면 개성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누구네 집 가는지도 이게 확인이 돼야 들어올 수 있죠. 통행증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어야 해요. 만약에 빨간 줄이 없으면 검문소에서 확인하고 확인이 되

면 빨간 줄을 찍어주죠! 지역이 다르면 그 통행증이 있어야 하고 상인들은 자동차로 몰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강원도 철원 쪽으로는 몰래 다니기 쉬운지, 상인들이 몰래 넘어 들어오죠!

개성에 유물들이 많잖아요? 유물이 유통되기도 하나요?

골동품은 주로 개성 시내에는 없고, 황해도 경계점이나 철원 경계점 쪽에서 많이 나와요. 고려시대에 왕비들이 죽으면서 청동이나 귀금속 같은 것들을 묻었대요. 그 골동품을 구하러 황해도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골동품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밤이면 가서 골동품 뒤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만큼 많았어요. 예전에 청동, 도자기 같은 것들 중에 완전히 그대로예요. 하나도 상하지 않은 골동품들도 많고, 깨진 것들은 아주 굴러다니죠.

개성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를, 처음으로 골동품으로 돈 번 사람은 금수저를 발견했대요. 근데 무게가 한 톤이 됐나? 하여튼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됐대요. 그 뒤로 사람들이 접시 도자기 같은 것들을 파다가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살짝 금간 것도 비싸게



서궁이 기록한 고려황궁 만월대의 전각들(출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사갔대요. 다 중국으로 해서 남쪽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국가에서도 그거를 틀어잡지 못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골동(골동품의 은어)을 아예 못하게 한 거 같아요. 북한에서도 이제 그걸 틀어쥐고 못 나가게 하고 또 그때부터 고려의 역사를 선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개성에 계실 때 예전에 개성이 “신해방지구”라고 불리던 시절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는데 아무튼 남쪽으로 내려갈 사람은 다 가고 개성땅 안에서 토지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만 거의 남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쟁 끝날 때 남쪽으로도 내려가고 청진 쪽으로 갈 사람도 다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개성 땅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개성의 문제점은 군인들이 많아요. 군부대에서 어려우니까 자꾸 마을에 내려와서 돼지도 잡아가고 군부대에 마을 사람들이랑 짜고 소도 훔쳐 잡아먹고 그러거든요. 개성에는 이런 문제만 있으면 그냥 공개처형이에요.



연천시 비룡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특별시 장풍군(사진: 한국관광공사)

공개처형도 보셨겠어요?

그럼요. 여러 번 직접 봤어요. 오라면 무조건 가야 돼요.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가라 그러고, 가장

은 직장에서 가고, 직장 다니지 않는 엄마들의 부녀회 같은 게 있으니 다 가게 돼요. 돼지 훔쳐 잡아먹고 소 잡아먹어서 총살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대덕산 쪽은 연선에 가깝기도 하고 철원 쪽으로 동 같은 걸 넘겨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총살이에요. 그런데 사람 죽었다고 총살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소 잡아먹거나 금속 빼돌리면 무조건 총살이죠.

예전부터 대지주였던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잘 사는 분들도 있나요?

80-90년대까지는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많았죠. 지금은 더이상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은 주로 골동품 밀수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2009년 화폐개혁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이 녹아버렸지요. 근데, 그때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성에 있는 판문점이 외국인 관광코스인데, 외국인들이 다니는 걸 본 적은 있으시나요?

전혀 없죠.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것도 못 봤어요.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특별시 개풍군 접경마을

개성에 계실 때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기독교인 있다는 얘기는 가끔 들었어요. ‘어디 지

하에서 몰래 기독교인들 활동한다’ 이런 얘기는 가끔 듣죠. 학교 다닐 때도 80년대, 90년대에 쉬쉬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인이 있으면 보안부서에서도 계속 추적하거든요. 어디 있다더라 하면 거기는 무조건 포위해서 잡아들이고 당장 없애버리죠. 개성 시내 자남동 근처에도 기독교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시내에서 개성공단 가는 길에 손하리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손하리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공개처형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선교사들이 만든 ‘남성병원’이 지금 개성인민병원으로 변했다고 하던데 혹시 보셨나요?

거기 건물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유명한 의사들도 거기 있었어요. 개성 시내에 모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믿고 가거든요. 선교사가 만든 병원인지는 몰랐어요.

개성의 음식 중에 보쌈이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쌈 김치는 보통 무채랑 깍두기를 많이 넣거든요. 코다리를 많이 넣고 그다음에 무를 길쭉길쭉하게 썰어요.

추어탕도 많이 먹죠?

개성 추어탕은 남쪽이랑 좀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감기 걸리거나 아플 때는 엄마가 추어탕을 끓여 주셨어요. 근데 개성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갈지 않고 통째로 끓여요. 어렸을 때는 징그러워서 못 먹었죠. 명절이면 뒷집진 만두라고 하죠. 만두를 빚어서 양쪽 끝을 이으면 동그랗게 되는데, 그걸 뒷집진 만두라고 하는데 그 만두를 먹었고 추석에는 송

편해서 먹죠. 만두, 송편은 남쪽이랑 비슷해요.

개성 사람들 말투는 남쪽이랑 비슷하죠?

맞아요! “밥 먹었어요?”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 듣기에 남한 말투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남쪽 사람이냐, 남쪽으로 가족 건너갔냐?” 라며 면박을 주기도 해요. 개성 말투가 평양 사람들이랑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데, 남쪽이랑 더 가까운 거 같아요. 그리고 능력 있고 재산도 좀 있고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남쪽에서 넘어온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남쪽에서 넘어간 분들이니까 무슨 꼬투리만 잡히면 숙청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조심하고, 높은 사람들 끼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어르신들은 남한 말투 쓰죠!

마을에 실형민들도 있었나요? 차별도 받나요?

저희 마을이 스물몇 집이 있다고 치면 남한 출신 실형민 가정이 서너 집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차별을 많이 받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말투 자체도 다르고요. 그런데 남쪽에서 온 집안은 행동도 좀 달라요. 조금 더 순하고 깨끗하달까? 저 개인적으로는 실형민 집안 애들 보면서 성품도 그렇고 배울 게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연천 태풍전망대에서 찍은 개성특별시 장풍군의 모습

개성에는 제일교포나 화교는 있나요?

사는 사람은 없고,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있죠. 개성은 화교나 제일교포가 살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개성에는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잘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죠.

개성공단에 대한 소문은 어땠나요?

시작하기 전에는 다들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내 지역에다가 저거를 벌리냐!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 일하러 뽑힌 사람을 일제 강점기 위안부같이 보고 그랬죠. 우리 친척언니도 그 전까지는 방직공장에 다녔는데 개성공단에 가서 일해야 한단니까 “왜 그런 데를 가게 하나”고 부모님들이 엄청 욕했어요. 나중에는 돈도 많이 벌고 오히려 엄청 좋아했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초코파이 같은 거 받으면 다 장마당에 내다 팔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성에 계실 때도 시장이 있었나요?

시장이 엄청 컸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시장에 가보면 그냥 선반 하나 놓고 그 위에 물건을 쭉 펴놓고 팔았거든요. 아마 장세도 낸 것 같아요. 이미 관리실이 있었거든요. 고선동 시장이 제일 크고 고려동에는 크지 않고 말하자면 야채 시장 비슷하게 있었죠. 고려동 시장도 그 후에 지붕도 씌우고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개성에서 평양까지 뺀 고속도로가 진짜 제대로 잘 나 있나요?

네. 고속도로는 평양까지 가는 게 이게 좀 제대로 돼 있고, 길옆에 나무랑 꽃들 다 심고 처음 만들 때는 엄청 멋있었어요. 저희도 학교에서 지원도 나가고 모래도 나르고 했죠. 처음에 개통하고 나서는

엄청 멋있었는데 이후로 비 오면 파이고 남아있겠
죠. 사리원까지 가는 도로도 잘 되어 있어요. 사리
원도 황해북도의 중심지여서 잘 돼 있어요.

사리원이라 개성이랑 왕래가 많이 있었나요?

왕래 많이 했죠. 사리원이 개성보다 더 크고 시
장도 사리원이 더 크죠. 사리원은 사방에서 몰려오
니까요. 평양이 더 크기는 한데 평양은 국가적으로
통제를 하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평양에는
시장에도 통제가 많을 거예요. 사리원은 언제든 왔
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평양처럼 제한도 없고요.

개풍이나 장풍같은 곳 사는 분들은 개성 시
내 쪽 나와서 살고 싶어 하나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가서 살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일 쉬운 건 결혼하면 갈 수 있죠.
그래서 농촌에서는 결혼해서 시내로 가기 원하는
면도 있어요.

개풍, 장풍 같은 곳에서 개성 시내로 출퇴근
도 하나요?

오히려 개성 시내에서 연선으로 출퇴근을 하죠.
연선에는 예전에 대남방송을 한다거나 아무튼 기

술이 필요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을 관리
하는 사람들은 좀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학도
졸업해야 하고요.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기
능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시내에서 자란 사람들
이 그런 일을 하죠.

출퇴근은 어떻게 하죠?

버스 타고 다녀요. 남한으로 치면 정기권(?) 같은
개념으로 타고 다닐 수 있었어요.

개성에는 어떤 작물을 많이 키우죠?

논이 많죠. 그다음에 옥수수, 과일밭은 옛날에
는 개인이 소유하는 데도 많았어요. 저희 증조할아
버지는 논 밭관리를 하고 또 그거를 사람 불러다
가 다 따서 팔고 했대요. 저 어릴 때도 농사지어다
가 팔았죠.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국가
에서 땅을 회수를 해가기는 했는데, 관리는 어쨌든
우리 엄마한테 맡겨서 과일 농사도 많이 지어서 팔
고 했거든요. “사과배” 아시나요? 사과랑 배랑 접
붙인게 사과배예요. 사과배도 키우고 복숭아도 있
었어요. 감은 있기는 있는데 엄청 비싸요. 많지 않
아요.

“개성은 이런 도시다” 개성에 대해 독자분
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볼 때 개성은 북에서도 최고의 도시입니다.
문화 역사가 든든하게 묻혀 있죠! 공업도 발달하
고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고요. 개성은 하여튼
특별해요. ☺

(인터뷰 일시: 2024년 3월)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사진: 뉴스핌)

최근 1년간 언론에 보도된 개성과 관련된 소식

개성공단 관련 소식

북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완전히 치워

북한이 지난 2020년 폭파하고 방치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완전히 치웠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24년 3월 9일 보도했다.

VOA는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
난달 2024년 2월 24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건물 대신 잔해 일부와 그 위로 눈이 쌓인 장면
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반면, 2023년 8월 촬영된 위
성 사진에는 건물 뼈대가 남아 있었다. VOA는 “북한
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을 완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폭파
했다. 폭파 잔해는 내버려 뒀다가 지난해 4월 쯤 정
리를 시작하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고 VOA는 전
했다. 지난해 말 북한이 이 같은 ‘흔적 지우기’에 나
선 정황이 포착되자 정부는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VOA는 또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부지를 살펴
본 결과 10개 공장 건물 앞에서 버스 10대가 발견
됐다고도 보도했다. 이는 과거 공단 운영 시기 북한
근로자 출퇴근에 쓰이던 대형 버스와 유사하다. 이를 두고 VOA는 북한이 이들 공
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라고 제시했다.
(참고: VOA, 연합뉴스, 문화일보 2024년 3월 9일)



개성공단 지원재단 2024년 3월 20일 해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재단)이 2024년 3월 20일 해산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통일부는 재단이 재단 정관 제16조(이사회 소집), 제29조(해산)에 근거해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해산 후 청산법인으로 전환된다. 통일부는 "청산법인은 채권·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맡는다.

2007년 말 출범한 재단은 공단 입주기업 인허가, 출입경,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남북관계가 기본적인 교류마저 단절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단 해산 방침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올해 초 재단 해산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 뉴시스, 2024년 3월 20일)

개성의 문화유산 관련 소식

개성시, 선죽교 등 민족문화유산 보호사업 진행

개성시에서 민족문화유산 보호사업을 펴고 있다고 북한의 매체가 2023년 5월 31일 보도했다. 북한 국영 미디어인 '조선의 오늘'은 "개성시 민족유산 보호관리소에서 송양서원과 목청전 등의 보수작업이 역사주의 원칙에서 진행되도록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켜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선죽교와 표충비, 경효왕릉 등 국보적 의의를 가지는 유적구역의 녹지관리와 화단조성, 돌구조물과 축대보수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려박물관과 왕건왕릉 유적관리소에서는 옛 건물의 보존관리에서 기본인 목부재와 기초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성금송, 만월대느티나무 등 주변 풍치조성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박연폭포 명승지 관리소에서는 대흥산성 복원과 범사정, 고모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참고: SPN 서울평양뉴스, 2023년 5월 31일)



개성시에서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을 하는 모습(사진=조선의 오늘)

개성에서 고려 옥불상 발굴

북한에서 처음으로 옥불상이 발굴돼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023년 11월 16일 보도했다.

옥불상이 발굴된 곳이 고려시기의 건물터였으며 고려시기의 자기조각, 기와조각, 도기조각등이 나왔고 고려시기의 흥국사와 같은 절이 자리잡고 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또한 옥불상의 받침대와 형상수법, 두광(불교에서 존귀함을 표시하는 뜻으로 불상의 머리뒤에 나타난 금빛의 빛발)에 있는 무늬, 서체 등이 고려 전반기의 형식을 띄고 있기에 "옥불상의 제작시기가 고려 전반기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주사전자현미경 분석법에 기초한 분석으로 불상의 재료를 해명한 결과 이 옥불상의 재료는 비취옥에 속하는 보석 광물의 한 종류인 연옥으로서 삼국 시기에 금과 은, 청동과 같은 금속재료가 아닌 옥과 같은 돌재료로 불상을 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현재 이 옥불상은 고려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했지만, 발굴 장소와 당시 현장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참조: SPN 서울평양뉴스, 2023년 11월 16일)



북한에서 발굴된 옥불상(사진=조선신보)

개성의 개발 소식

지방발전 20X10정책에 개성특별시 장풍군 선정

2024년 2월 3일 노동신문은 "1월23일 개최된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제8기 제19차)에서 선정된 '지방발전 20x10 정책'에서 개성특별시의 장풍군에 2024년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할 것"이라 소개했다.

김정은이 처음에 이 정책명을 제시하였고 당 중앙위 조직비서 책임하의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이날 각 도 당책임비서 책임하의 비상설 도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름은 '지방 발전 20x10 비상설 도추진위원회'로 각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책임하에 시, 군당위원회 비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각 도 안에서 2개 군을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며 여러가지 선정 기준이 있겠지만, 먼저는 지리적 안배를 하며 정책의 핵심인 도민들의 민생을 위한 생필품, 의류, 학용품을 생산하는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 것으로 서로 인접한 군들을 함께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날 선정된 지역들은 '계획성', '집중성', '전망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지방공업실태를 파악하여 '원료기지조성'을 핵심으로 이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혁명강령에 따른 농촌마을 현대화 사업은 복잡하고 많은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해소 및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10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각 도별 치열한 경쟁과 선정되지 못한 군들과의 협조를 끌어내는 문제, 무엇보다 도당위원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 자원을 비롯한 필요한 것들을 도별로 자체 조달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았다.

(참조: SPN 서울평양뉴스 2024년 2월 3일)



북한이 새로 창제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 선전화(사진=노동신문/뉴스1)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